



12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12호

(루게 470)

◆◆◆◆◆◆◆◆◆◆ 차 례 ◆◆◆◆◆◆◆◆◆◆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3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 선언 7	
세계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10
현대문학의 새 이정표- 평양국제문학토론회	12
김일성 그이는 사상의 화불	17
내 찾아가리 (외 1 편)	17
헌시	18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18
나의 조선	19
아, 삼지연	20
12 월 27 일이며, 너와 함께	21
한해를 보내는 기쁨	22
향도의 해발넘치는 《지하평양》	23
염분진포구에 파도 설레네	25
난알의 향기	26
온천골에 비친 해발	36
선바위	37

무명날이 종구 좋네	37
기다리는 마음	37
나에게도 노래가 있다.....	38
추녀아래 높이 건 구호.....	39
땀을 내린다 (외 1 편)	39
장령과의 담화.....	40
담장	40
수재의 어머니.....	41
고려청자기	43
아담한 형식, 의의있는 문제성.....	53
귀항의 밤에	56
벗이 많은 용해공.....	56
입갱전 한때	57
탄벽앞에서 (외 1 편).....	58
탄부의 훈장	58
무저항과 굴종을 설교하는 반동문학의 독소	59
나의 집 불빛.....	63
나에게 조국이 있어	63
들국화.....	64

김일성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6년 9월 29일)

존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문화와 예술의 선봉적기수이며 지성인의 대표자들인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과 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 자리를 같이하고 이처럼 유쾌하고 의의있는 시각을 보내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의 이름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와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회합을 가지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작가들의 다양한 국제적회합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앞에 나서는 과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며 진보적인 작가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함으로써 현대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진보적문학과 작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은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사람의 생활을 언어로 형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학입니다. 주체의 인간학인 문학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입니다.

자주적인간의 생활을 반영한 진보적문학의 인식교양적의의는 매우 큼니다. 진보적문학은 인간생활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찬미하고 사회악과 불의를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아갈 길을 밝혀줌으로써 자유와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대업에 이바지합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름있는 작가들의 걸출한 작품은 사회의 귀중한 재보로서, 투쟁과 생활의 고무자로서 인민들에게 복무하며 그 감화력은 당대사회뿐아니라 먼 후세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교과서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합니다. 문학의 사명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작가들이 생활이 있고 투쟁이 있는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하며 인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간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의 화신이며 그것은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오늘의 제국주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와 총칼을 휘둘러 세계인민들을 위협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는 한편 이른바 《원조》와 《협조》의 울가미를 씌워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략탈하며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새 사회 건설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반제자주,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바라는 자주적인 새 사회, 평화로운 새세계는 오직 인민들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대륙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현대문학은 오늘의 이러한 시대상을 옹계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을 정의의 위업으로 고무하는 화불이 되어야 하며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는 철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현대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온갖 불의와 사회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지성인으로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옹계 판단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진보와 자주, 평화를 위하여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어야 할것입니다. 작가들이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 때 그것은 압제자들의 죄사슬이나 총포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활동에서 마땅히 인민들의 요구와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그 대오의 앞장에 서있는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에게 침략과 전쟁을 미워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 대하여 날날이 폭로하고 준렬히 규탄하여야 합니다. 작가들은 특히 미래의 주인공들인 세세대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력과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인민대중의 정의의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당신들, 작가들은 민족문화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입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자주적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는것입니다. 진보적작가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서 해매던 인민대중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현대문명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며 자기 나라의 문학과 예술을 찬란히 꽃피우는 보람찬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야 할것입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에서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 제국주의반동문화는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좀먹는 유해로운 독소입니다. 진보적인 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양키식 《현대문화》와 《현대문명》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반동문화의 침습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가는 사회생활의 대변자이며 인간정신의 기사입니다. 작가들이 사회와 인민 앞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단순한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체험자로, 정의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계의 이름있는 작가들은 모두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한 인민들의 진실한 벗이었으며 정의의 위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와하지 않은 견결한 투사들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하고있는 민족문화의 일대 전성기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노력과 헌신적투쟁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공통된 리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단결하고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호상 접촉과 래왕을 활발히 하고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교환하여 단결과 협조의 뉴대를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작가, 예술인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서 훌륭한 평양선언을 채택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과 문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이번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인민들의 반제평화위업과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평양국제문학토론회 참가자들이 나에게 따뜻하고 고무적인 감사편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시대의 선각자들인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작가들이 앞으로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바라면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작가들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협회 집행리사회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모든 외국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평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61개 나라에서 온 66개의 작가대표단과 2개의 국제기구대표들이 모여 1986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가지었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에 참가한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는 일치한 념원을 안고 국제공동체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작가는 시대의 선각자이며 인민대중의 교양자이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도주의의 전위적기수이다.

오늘 인류가 평화나 핵전쟁이나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침예한 정세하에서 작가들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결한 투사로 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

수천년 흘러온 인류문학은 인간의 참된 삶을 옹호하고 구가한 고결한 인도주의정신으로 수놓아져있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도 인류의 운명과 존재가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작가들이 써내는 하나하나의 작품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송가,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송가로 높이 울려야 한다고 심장의 목소리를 합치었다.

현시대의 문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와 인종주의의 침략적본성과 핵전쟁도발책동을 폭로단죄하고 고발하는 론고장으로 되어야 하며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옹호하는 우렁찬 메아리로 온 누리에 힘차게 울려져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힘있게 틀어쥐고있는 정의의 필봉은 전쟁의 역류를 평화의 조류로 밀어내며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여 날을 따라 더욱 장성하는 인민대중의 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

으로 되어야 한다.

현시대 작가들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무자비하고도 가혹한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올해가 유엔에서 국제평화의 해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핵전쟁책동을 다그치면서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에 따라 군비경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평양토론회는 지구를 몇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폭탄을 무저놓고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의 핵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우리 지구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위협은 가셔질수 없으며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평양토론회는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배치를 금지하고 지금 있는 핵무기들을 축감하며 모든 핵무기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현세기말까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완전히 철폐할데 대한 소련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평화발기들을 환영하였다.

토론회는 나라들사이의 분쟁과 충돌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란과 이라크가 벌리고있는 살륙적인 전쟁을 종식시킬것을 호소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과 전쟁책동이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고있지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오늘 독립과 자주, 평화와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힘차고 완강하게

벌어지고있다.

작가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 유대복고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토론회는 아랍인민들 특히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의 지도밑에 조국땅에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과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침략과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레바논과 수리아 인민들에게 연대성을 표시한다.

토론회는 아프리카전선국가들과 그 주변의 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의 침략과 불안정화 정책을 규탄한다. 또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족대회와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정의의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하며 프레트리아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여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거제조치를 적용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한다.

토론회는 쿠바인민들과 니카라과인민들을 비롯하여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으며 남조선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보다 1,000배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와 수많은 핵운반수단들이 전개되어있는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토론회는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비핵,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간주하면서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세계의 평화와 인민의 자주적인 삶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이 현시대 작가와 문학의 숭고한 임무라는것을 한결같이 재확인하였다.

토론회는 세계의 모든 작가들이 이 숭고한 리념에 충실할것을 엄숙히 호소한다.

2

문학은 사람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활의 교과서이며 인민들에게 사활적인 정신적 양식을 주는 훌륭한 작품은 금보다 더 값이 있다.

문학의 사상에술적가치와 인식교양적의의는 주인공의 형상에 의하여 담보된다.

현대문학은 시대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떠밀어 나가는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역사무대에는 지난날 온갖 침략자들과 억압자들에게 짓눌리고 뜯기우다가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이 거인처럼 서있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자기 운명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슬기롭고 힘찬 모습을 빛나고 숭고하게 형상하여야 우리 시대 문학이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다.

자기의 힘으로 참된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다.

작가들은 이러한 존엄있고 전도양양한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인류의 진보와 문학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현대문학은 자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반제투사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자주와 정의롭고 공고한 평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는 기치로 되여야 한다.

문학이 자주와 평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면 또한 사람들의 가슴에 반제, 반전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 문학은 억압과 략탈,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파괴와 테로, 간섭과 전복을 일삼고 인류를 파멸적위험에 몰아넣고있는 그들의 죄행을 날날이 발가놓음으로써 인민들에게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대복고주의, 인종격리 정책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복돋아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는 구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타협없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전쟁으로 인한 재난과 불행을 전달하고 강조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쟁공포증과 비판주의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요소를 경계하고 우리 시대의 즐거운 자주적흐름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념과 량만, 용기와 힘을 안겨주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문학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자면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침략과 전쟁, 착취를 반대하며 기아와 질병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한다.

자주를 위한 투쟁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선행세대가 개척한 자주와 평화 위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침략자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발가놓은 작품, 애국선렬들의 투쟁력사와 전통을 형상한 작품들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는것은 우리 시대 문학의 력사가 실증하여주고있다.

작가들은 인류의 진보와 광명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현대문학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며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3

작가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세계의 작가들은 정견과 신앙, 언어와 풍습이

서로 다르고 각이한 전통을 계승한 문학, 서로 다른 민족생활을 반영한 문학을 창조하고있지만 자주, 친선, 평화의 공통된 리념을 안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토론회는 세계작가들이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전선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이 원칙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과 문학활동전반에서 빛나게 구현해나갈 때 우리 문학은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것이다.

작가들은 파쑈적인 탄압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여러 지역의 량심적인 작가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작가들의 즉시 석방과 그들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자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매개 민족의 리익과 전반적인 평화와 정의, 자유를 사랑하는 력량의 리익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여기서 민족문학과 세계 진보적문학의 지향은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되어있다.

세계의 작가들은 반제투쟁과 반전평화운동에서 공통점을 앞세우고 차이점을 뒤로 미루면서 민족적리익과 공동의 리익을 결합시키는 자세와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 한다.

매개 나라의 작가조직들은 작가대표단의 호상 교류를 적극 벌리고 친선을 강화하며 쌍무적 및 다무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며 매개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들과 창작경험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현대문학앞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과 현세계에서 작가들앞에 나서는 임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세계문학발전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는 세계의 모든 작가들이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문학창작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리고 자기 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며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1986년 9월 29일 평양

세계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모임을 가지었다.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조선인민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상태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련대성모임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렬의 고통과 극도에 이른 새 전쟁, 핵전쟁의 위험을 절감하면서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예로부터 한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빚내이며 화목하게 살아온 여기 조선땅에서는 사랑하는 부모처자들과 친척친우들이 근 반세기동안이나 서로 갈라져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가슴아픈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인공적인 국토량단으로 조선은 통일적인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민족적공통성마저 점차 사라져가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날을 따라 짙어가고있다.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과 조선반도에서 커가고있는 전쟁위험의 장본인은 다른 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온 미국은 《두개 조선》 조작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는 조선반도를 저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우세》와 《남침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새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남조선의 군사통수권을 쥐고있는 미제는 4만여명의 자기 군대와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군대를 상시적으로 《림전태세》에 두고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쟁화약고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피뢰들과 함께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분렬의 비극과 첨예한 긴장상태는 조선의 평화가 튼튼히 담보되고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할것을 시대와 력사앞에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작가는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이며 인류의 량심과 지향의 대변자이다.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은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고 외세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강요당하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없애고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문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할것이다.

세계의 량심있는 작가들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비극과 전쟁접경에 이른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의 화근이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있다는것을 온 세계 인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고 그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자.

우리들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야망과 남조선강점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인류앞에 날날이 발가놓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내정간섭을 세계의 리성앞에 폭로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남북의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목적이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있으며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의 서울단독개최안을 들고나온것도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정치적목적에서 출발한것임을 만천하에 까밝혀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서 분렬의 비극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을 세계인민들이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은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자기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지원하자.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념원인 동시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의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 평화통일, 민

죽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로 형성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수많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다는것은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각 대륙의 진보적작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공명정대한 평화통일제안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에 의하여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도록 심장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속에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날을 따라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도 이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합류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과 전두환피뢰도당은 이에 대하여 가혹한 파쑸적탄압으로 대답하고있으며 온 남조선땅을 살인적폭압망으로 뒤덮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자주와 민주를 요구했다는 한가지 이유로 매일과 같이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체포투옥되어 모진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있으며 많은 출판기관들과 출판물들이 폐쇄폐간되고 진보적작가들과 량심적인 문화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철창속으로 끌려가고있다.

련대성모임에 참가한 우리들은 자주와 민주,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안고 반미반파쑸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의 애국적인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적극 지지지원하며 파쑸광풍이 휘몰아치는 남조선땅에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진보적인 직가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체포투옥된 모든 작가들의 즉시 석방과 그들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여 나설것을 세계의 모든 진보적작가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며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얼마전에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의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를 거부해나섰으며 대결과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못하고 전쟁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뿐아니라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엄중하게 파괴하게 될것이다.

인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정의로운 투사들인 우리 작가들이 어찌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휩쓸었던 재난보다 비할바없이 무서운 참화가 인류의 머리우에 들쭉쭉이는것을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평화에호력량은 전쟁세력보다 훨씬 강대하다.

세계 진보적인인민들과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고수할수 있으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이여!

우리모두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량심과 리성의 목소리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힘찬 메아리로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자.

조선은 반드시 조선사람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일되어야 하며 조선반도는 통일된 조선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평화로운 땅으로 되어야 한다.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은 정의로운 문필활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광범히 벌려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힘있게 성원하자.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사람의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물러가라.

통일된 조선 만세!

평화 만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작가들의 련대성모임

1986년 10월 5일 평양

현대문학의 새 이정표- 평양국제문학토론회

현시기 인류의 머리우에는 열핵전쟁의 구름이 각일각 질게 드리우고있다. 북아메리카대륙의 황폐한 네바다주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울리는 핵폭발의 굉음은 우리 푸른 행성의 존재자체를 말살하는 핵버섯구름을 예고하고있다.

지금 세계는 열핵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인류사상 전례없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문학은 생활반영의 거울이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천년간의 인류문학사는 전쟁과 평화를 취급한 수다한 작품들을 기록하고있고 진보적작가들은 누구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구가하였으며 그걸로 인류를 선도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노력하고있다. 이런 면에서 문학은 인류의 문명과 평화를 위하여 적지 않은 작가와 작품들을 남겼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인류량심의 대변자이며 시대의 선각자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필봉을 날카롭게 버리고 인류를 반전, 반핵투쟁으로 선도하여야 할 과업이 오늘처럼, 오늘처럼 절박하게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현대문학의 앞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작가들의 국제적회합은 1986년 9월 평양에서 열리었다.

주체의 조국이며 주체적인간학이 눈부시게 개화만발하는 땅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서 놈들의 새세계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해나가는 자주적인간- 문학의 주인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열리는 토론회이고 보면 그 의의와 성과의 담보는 사전에 약속된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의 저명한 작가들은 커다란 흥분과 기대를 안고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그 일행에는 본국에서 이미 창작한 서정시 《조선》의 원고를 가슴에 품은 마다가스카르의 시인도 있었고 지난 50년도의 첫겨울부터 36년간을 간직해온 열렬한 소원이 풀려 전우의 나라-조선의 압록강을 건지면서 깊은 감회에 잠긴 중국작가대표단의 시인 진명선도 있었다. 무르익은 조선땅의 황금산과 황금벌을 러객기의 둥근 창구로 굽어보며 시상을 무르익히는 벨가리아의 시인도 있었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를 하루앞둔 휴식기간 러로의 피곤도 풀기전에 즐기게 솟은 고층주택들이 비껴흐르는 대동강가를 거닐며 지난 임진전쟁시기 일본침략군을 격퇴한 평양성사람들의 영웅적

인 군상을 다시금 눈앞에 펼쳐보는 일본작가도 우리는 만날수 있었다.

1986년 9월 26일 오후 5시 자주적인 인간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과 작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막을 올렸다.

인민문화궁전앞 국기계양대에는 오색기발이 날리고 토론회장장면에는 평양국제토론회를 상징한 마크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 평양-1986. 9》라고 쓴 글발이 나붙어있었다.

토론회장에는 또한 반핵, 반전 투쟁에서 세계 진보적작가들이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데 대하여 호소하는 구호와 평양국제문학토론회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글발이 대표들의 시선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61개나라에서 온 66개의 작가대표단과 2개의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석윤기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국제문학토론회가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세계제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극히 모험적이고 침략적인 세계전략에 매달리고있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준기부총리의 축하연설에 이어 연단에 오른 까메룬 시인 및 작가 협회대표 마이마이쁘 떼오 도르는 《나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원수님께와 우리 작가들이 애독하는 문헌인 《영화예술론》을 집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소리높이 웅변했다. 순간 회의장은 한없는 경모와 찬양의 파도가 굽이쳤다.

계속되는 축하연설에 이어 류량한 나팔소리가 울리고 조선소년단축하단이 들어서며 토론회장을 꽃물결로 채웠다.

...

여러 나라 작가선생님들!

똑똑히 보여주세요

전쟁과 피를 즐기는 원썬놈들은 조선전쟁에서 처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하나로 일떠서 싸

우는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야만한다는것을

...

조선소년단원들의 랑랑한 그 목소리는 국제문학토론회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 천진한 소년들의 눈동자에 길이 푸른 하늘이 비끼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없는 지구, 살륙의 오스벤짐과 미제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신천이 다시 없는 지구우에 아름다운 꽃동산이 펼쳐지게 하기 위하여 문필선에서 정의의 붓을 높이 들어야 할 작가로서의 크나한 사명감이 토론회장을 휩싸고있었다.

2일, 3일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토론하였다.

- 1, 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작가들은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자.
- 2,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문학의 주인공문제.
- 3, 청년들의 반제교양과 문학
- 4, 반제, 반인종주의투쟁에서 작가들의 련대성과 창작적련계의 강화.

첫토론을 한 방글라데슈 아. 아 작가협회대표 단단장 카비르 초우드리는 현대문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토론회장은 시종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존경과 신뢰, 폐찬의 토론들로 끓어번졌다.

말파대표 펠릭스 아구스는 조선의 문학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혁명통을 계승하여 훌륭히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작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각하께서 제시하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조선의 문학과 예술은 오늘 전례없는 전성기를 마련하고있다고 토론하였다.

로므니아작가대표단 단장 알렉산드르 안드리쵸유는 《민족들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이 훌륭한 모임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 주체사상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는바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케니아작가협회대표 조엘 쿠리아 문가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이란 인간학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작품에서 산 인간을 그리고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 진정한 문학이다.》라고 하면서 주체의 인간학을 접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론하였다.

또한 말리전국작가동맹대표 아부들라이 아스꼬파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 《**영화예술론**》중에서 《생활과 문학》을 탐독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은 자기의 심정을 토론에서 펴 령하였다.

수단 작가 및 시인동맹대표 무함마드 알리 아부가타리는 문학과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현대문학의 탁월한 스승》이라는 칭호를 드릴것을 전체 토론회참가자들에게 제의하여 토론회장을 열광적인 찬동과 환회의 박수갈채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우리는 토론회의 휴식시간에도 여러 나라 대표들의 흥분된 심정을 엿볼수 있었다.

중앙아프리카 시인 및 작가협회 대표인 이 협회부위원장은 토론을 앞두고 자기의 소원이 실현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나는 귀국을 방문해본적은 없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각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각하에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창작할 시에서 그분들이시야말로 세상을 밝혀주는 붉은 태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빨리 토론회에 참가하여 **김일성** 주석각하와 **김정일** 각하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 의제에 대한 토론은 모든 작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가밑에 더욱더 열기를 띠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부단장 김병훈은 토론에서 우리 작가들이 틀어진 붓은 지구에 덮인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밀어제끼는 위력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쓰는 글은 전쟁도발자들, 평화의 원수들을 고발하는 예리한 론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반전평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독립과 자주, 평화와 생활창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고 매개 나라에서 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개화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자주, 친선, 평화의 공통된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의 진보적작가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대표단 단원 김 쉐리호보오의 토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리 조선작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룩한 영웅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폐허로 되었다가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인

민들의 근면한 로동과 용감성에 의해 봄날의 정원마냥 다시 일떠서 급속히 번영하고있는 이 유서깊은 땅에서 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시기 위하여 자기들의 창작물으로써 그리고 자기들의 생을 바쳐 모든것을 다하라라는것을 확인한다.》

남조선작가대표단 단장 로일명의 토론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의 심정을 대변한것으로 하여 토론회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주체적인 문학예술이 개화만발하는 이북의 현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지적하고나서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되고있는 이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용감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반괴피투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운동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책동을 폭로하였다.

벨가리아작가대표단 단장 이완 발라바노브는 작가들의 필봉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평화와 정의,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이 현대문학의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작가협회대표단 단장 풍목은 강의하고 풍부한 전투력과 창조력을 가지고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영웅의 땅에 상응한 훌륭한 문학이 창조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의 작가들이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시기에도 그러했지만 나라를 다시 일떠세운 건설시기에도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창조성을 발휘하였다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에파프르작가 대표 베드로 호르헤 베라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는것은 우리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굳게 뭉치는것은 현단계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현대문학의 주인공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갔다.

가이나나작가대표 하롤드 에이, 바스콥은 문학의 주인공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한 실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작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인민의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고 소설에서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훌륭히 형상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알제리 작가, 기자, 번역자동맹대표 다후 라르비는 우리 시대의 문학은 자유와 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온 세계의 많은 영웅들을 형상해야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 영웅들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원 김용원은 현시대의 진보적문학은 우선 지난날 압박과 천대를 받아오다가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새형의 인간전형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제투사, 열렬한 혁명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작가동맹대표단 단장 야로미라네예들라는 문학의 주인공문제에 언급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이름난 작가 올리우스 푸치크의 작품 《교형수의 수기》가 반파쇼투쟁정형을 보여준 작품으로써 오늘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는데 대하여 실례를 들었다.

재일조선작가대표단 단장 박종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작의 기초로 삼고 자본주의의 황색문화가 군림하는 일본땅에서 참다운 주체문학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재일조선작가들의 투쟁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작가대표들은 계속하여 청년들의 반제교양과 문학에 대한 의제, 진보적작가들의 련대성과 창작적련계의 강화에 대한 의제들을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 선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평양선언은 현시대의 문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대복고주의와 인종주의의 침략적본성과 핵전쟁도발책동을 폭로단죄하고 고발하는 론고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쏘련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평화발기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평양선언은 평양국제문학토론회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며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양선언은 현대문학이 시대의 중심에서 서서 력사를 떠밀고나가는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침략과 전쟁, 착취를 반대하며 기아와 질병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평양선언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작가들이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전선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한 내용을 확인하였

다.

토론회는 상정된 의제들을 성과적으로 토론하고 폐막회의에 들어갔다.

먼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편지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계속하여 축하토론들에 이어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석윤기위원장의 폐막사가 있었다.

그는 토론회의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생활력이 아꼈로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폐막을 선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9월 29일 평양 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접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29일 저녁 금수산의사당에서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베풀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연회에서 하신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 사명》**은 현대문학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대륙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은 오늘의 이러한 시대상을 옹기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을 정의의 위업으로 고무하는 해불이 되여야 하며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는 철추가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현대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 할수 있습니다.》

연회에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을 대표하여 튜니지작가대표단 단장인 튜니지문화성 국장 무스타파 엘 페르시가 연설하였다.

그는 가장 친근하고 저명한 벗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각하의 연설은 이번 토론회의 기초문건으로 될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다함없는 존경과 환희를 담아 연설하였다.

그의 소박하고 진정이 담긴 이 칭송의 말마디들에는 평양국제문학토론회에 참가한 여러나라 작가들의 열렬한 심정이 반영되어있었다.

연회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수단 작가 및 시인동맹위원장 무함마드 알리아부 가타티의 시 **《김일성 그이는 사상의 해불》**, 로므니아잡지 **《파밀리아》** 책임주필이며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인 시인 알렌싼드르 안드리쥬요의 시 **《내 찾아가리》**와 **《헌시》**를 작가들이 읊었다.

...

김일성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여

광휘로운 해발이시여

기쁨의 상징이시여

위대한 사상의 영재이시여

당신은 세계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

(시 **《김일성 그이는 사상의 해불》** 중에서)

...

내 묻노니 이 아름다움 어디서 솟아나는가

천재의 예지를 지니신 세기의 위인

위대한 철학의 거장 **김정일** 동지

위대한 철학으로 인민을 령도하시기에

조선의 걸음마다 백전백승 떨치네

...

(시 **《헌시》** 중에서)

연회가 끝나고 밤이 깊었으나 여러 나라 대표들은 흥분속에 잠들지 못하였다.

고려호텔의 면담실에서 우리 기자들과 만난 콩고작가동맹위원장은 다음가 같이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연설은 전세계 진보적인 작가들, 특히 아프리카나라 작가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지침으로 되며 또한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작가들을 고무하는 투쟁의 지침으로 됩니다. 나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하신 연설내용을 중부아프리카지역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 작가들에게 선전하여 그들을 고무하겠습니다.》

별가리아작가대표단 단원인 시인 폴류 쉼보보는 방금전의 연회에서 받은 흥분을 안고 원고지우에 펜을 달려 서정시 **《목란꽃》** 초고를 써나가고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연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은 이번 평양국제문학토론회를 현대문학의 이정표로 되게 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인 문헌이었다.

그 빛나는 이정표를 지닌 현대문학의 앞길에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오른 거인-자주시대의 근로인민대중의 형상이 뚜렷

한 모습으로 서있다.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핵불을 들고 야만인의 란무를 하는 레간과 그 동맹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현대문학의 주인공, 핵참화의 입벌린 폐허를 눈앞에 그려보며 공포나 절망, 염세와 고독 속에 전율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투쟁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강毅한 평화투사가 서있다.

참으로 평양국제문학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자원으로 도약할 나래를 얻었다고 할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각국에서 모인 작가들은 토론회가 끝난후의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벌써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을 수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으며 주체조선의 현실을 참관하면서 자기들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발견하였고 앞으로의 문학활동의 모범을 목격할수 있었다.

10월 1일 대성산 남문앞에서 열린 친선모임은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 진보적작가들의 단결을 굳건히 하는 실천행동에서 첫 고리로 되었다.

토론회기간 세계 여러 나라 작가대표들은 자기들의 현상옹모작품창작으로써 주체사상이 나래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눈부신 업적을 칭송하였고 반전, 반핵운동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들의 창작의 꽃은 10월 2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린 《시인의 밤》에 풍만한 결실을 보였다. 여러 나라 시인들이 무대에 올린 서정시들인 《**김정일** 찬가》, 《목란꽃》, 《희망의 태양》, 《감사합니다》, 《자주시대의 신성한 노래》, 《강을 건느다》를 비롯한 16편의 시들은 우리 작가들과 관람자들의 커다란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문학세미나르에서 한 네팔작가대표 가넨드라 바하두르 까르끼의 연설은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에 대한 세계작가들의 경이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종자론의 새로운 등불을 안고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작가들에게 영광이 있리라!》

평양국제문학토론회에 참가했던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해갑문의 참관을 통하여 평화로운 건설에 바쳐진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으며 분계선에 남조선피괴들이 둘러친 철근콘크리트장벽과 판문점에 버티고 선 미제침략군의 거만한 낯짝을 향하여 조선통일의 장애, 세계평화의 원수들에게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터쳤다.

이 기간 한편으로는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가 진행되었다.

아. 아작가협회 제8차대회를 앞두고 협회활동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는 이번 집행리사회에서는 아. 아작가협회 제7차대회이후 조선작가동맹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문학상인 《로터스》상 심사위원회에서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전위원장 천세봉과 쓰련시인 라쉴 갑자프브, 예멘아랍공화국 작가 아브둘 아지즈 알마갈레호에게 《로터스》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의 참관은 계속되었다.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만수대에술극장과 교예극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선민속박물관들을 참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본 수단대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화구를 막고 소생하였으며 오늘은 이곳 강사로 있는 김성진영웅에게 자기의 수놓은 흰 목도리를 증정한 실례 등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끝없는 경탄과 찬사, 뜨거운 진정이 담긴 반향을 이 작은 지면에다 옮길수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마감참관대상은 묘향산의 붉은 단풍속에 서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이였다. 대표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흥모를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앞을 다투어 자기들의 후더운 감정을 감상록에 남기고나서 묘향산의 절승경개를 구경하였다. 그들은 400년을 자란 천연기념물인 산뽕나무의 무성한 잎새들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에 불타버렸던 이 나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받은 우리 인민들의 정성속에 소생하였다.

참으로 이 땅의 한그루의 나무에도 전쟁의 불구름을 타승하며 용용하게 솟구쳐오르는 이 나라인민의 희망찬 기개가 깃들어있는것이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 대표들은 10월 8일에 우리나라를 떠나갔다.

영원한 친선의 악수, 희망찬 창작적결심, 뜨거운 포옹...

작가들을 태운 려객기들은 은빛동체를 번뜩이며 저멀리 활주로끝에서 편이어 푸른 창공으로 리륙하였다. 마치도 거대한 이정표를 지나서 현대문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듯이...

우리는 배웅의 손을 높이 든채 비행장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본사기자 김유권

김일성 그이는 사상의 화불

무함마드 알리 아부 가라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계시는 당신을
우리는 한마음 우러러 존경합니다
당신은 시대의 수령, 투쟁의 기수
고귀한 가르치심 화불로 타올라
인류문학의 앞길을 밝게 비쳐줍니다

당신은 현대문학의 원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자양분을 주시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작가들에게 붉은 피를 부어주시고
투사의 심장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김일성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여
광휘로운 해발이시여
기쁨의 상징이시여
위대한 사상의 영재이시여
당신은 세계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주저를 모르시고 두려움을 모르시는
당신의 령도밑에 승리는 이룩되었습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침략과 압제는 끝장났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확신과 투쟁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로동당을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을 빠른 길로 전진시켜오셨습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당신의 투쟁이 아니었다면 해방은 이룩될수
없었을것입니다
당신의 사상이 아니었다면 민족의 힘은 발휘될수
없었을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인민의 위업은
성취될수 없었을것입니다
당신의 예지가 아니었다면 과학의 려명은
밝아올수 없었을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역사는 기록을 남길수
없었을것입니다

세계 진보적작가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여
당신을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모십니다
위대한 당신을 인류는 열렬히 존경합니다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절절히 축원합니다

(필자는 수단 작가 및 시인 동맹위원장임)

내 찾아가리 외 1편

알렉산드르 안드리포유

황금의 전야에서 거뒀들인 벼이삭안고
먼곳으로 가는 평화의 사절로
내 평양으로 가는것은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있기때문

조선으로 가는 길
대양과 대륙을 넘어야 하건만
청춘과 창조로 들끓는 세계의 시인들
조선에서 자양분을 찾네

내 안고가는 시는 장미꽃과도 같이 아름다와
조선의 하늘아래 활짝 피어나리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에

넘치도록 향기 그윽히 피우리

만경대를 먼저 찾아 영광드리자
유서깊은 만경봉아래에서
세기를 주름잡는 걸출한 위인께
현시대 평화의 상징이신 위대한 영웅

김일성동지께

보는것마다 영광의 리정표
하늘과 땅에 충만된 평화의 노래소리
싸움에 나선 세상만민은 그분께 희망 걸고
귀중한 한마음 유산으로 물려가네

부꾸레슈퍼에서 평양으로
평화의 념원 안고왔네

평화의 더운 숨결 노래하러
자연과 로동의 메아리 울리며...

헌시

궁전과 같은 공원의 도시 평양에
밝은 햇빛이 찬란히 비치네
평양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
평양에 온 외국손님들 정다운 제집에 온듯
우리 로므니아사람들도 그리운 제집에 온듯
심금을 울리며 높이높이 일떠서는 이 아름다움
따뜻하고 평화롭고 인정미 넘쳐흐르는 이
아름다움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몸과 마음 온 심혈을 부어
유구한 조선의 땅우에 일떠세우시우신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고를 바치시여
몸소 마련하신 그 기초우에
김정일동지 하늘가득 창조의 기념비를

일떠세우시네
주체사상으로 미래를 황금나락같이 가꾸시려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긍지높은 미래를
꽃피우시려고

내 묻노니 이 아름다움 어디서 솟아나는가
천재의 예지를 지니신 세기의 위인
위대한 철학의 거장 **김정일**동지
위대한 철학으로 인민을 령도하시기에
조선은 걸음마다 백전백승 떨치네

창공을 치달아오르는 천리마따라
우리들의 꿈도 끝없이 나래치네
우리들을 귀빈으로 맞아들인 이 땅우에서
백화만발하고 노래가득찬 이 땅우에서
아, 우리들은 마음속에 위대한 태양을 모시네

(필자는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이며
잡지 《파밀리야》책임주필이며 시인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인민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그이는
대지에 빛을 뿌리시는 별
투쟁의 영원한 빛발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전체 인민을 인도하시는
향도의 별
수천수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강철의 의지의 체현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향도의 빛발로 시대를 밝히시는
빛나는 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지도자이시여라

(필자는 기네-비싸우 민족무용단 단장임)

베가 떼바 땀바 나눔나

나의 조선

(벨가리아) **이왕 발라바노브**

여러해동안 내 마음은 조선에 가보고싶은 일념 속에 있었다. 일찌기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선고아들이 벨가리아에 왔을 때 우리 벨가리아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미국놈들의 파렴치하고 악독한 침략을 무한히 증오하였다. 벌써 그때 우리들은 긍지높고 불굴한 조선인민의 힘을 느끼였고 이런 인민은 결코 정복할수도 타승할수도 없다는것을 믿었다. 과연 진리와 정의를 타승할수 있을까? 과연 혁명적인 생활속에 태어나기 마련인 인간의 존엄, 인간의 명예를 허물어버릴수 있을까? 극도의 야만성과 수치속에서 매개 잔인한 행위의 역사적교훈과 불명예의 종말을 잇고 감행되던 적들의 그 광란이야말로 어떤것이었던가?

그때로부터 삼십년이상이 흘렀다. 그리고 운명은 나로 하여금 맑은 아침의 나라와 목란꽃, 혁명이 승리하고 자립성이 이룩된 나라와 상봉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선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사람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어리어있고 환하고 밝고 행복스럽고 친절한 그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단 한명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늘과 미래를 위하여 쟁취한 그토록 높은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있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모술수로 얻는 성과와 공짜의 영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의 노력, 령감, 자기의 재능의 열매를 기뻐하는바 그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새생활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에 대한 나의 두번째 인상은 방방곡곡 어 느것을 보아도 순후무결하다는것이다.

사람들의 눈에서, 그들의 견해와 사업에서, 극장과 경기장, 노래와 시들에서 청신한것을 체감하였다. 술한 고난을 이겨낸 이 인민은 시적이고 매혹적인 인민이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고난을 이겨내리라는 신념속에 이악하게 맞서 나아간다. 중요심에는 인민이 자기 혁명의 미래와 자기 힘에 대한 조용하고 기지있는 확신성을 가지고 대꾸한다. 미제침략자들의 포탄들은 조선인민의 전통적이고 혁명적인 미덕들을 말살할수 없었다.

오늘 주체사상은 인간의 상징으로서 혁명과 사회주의 개조의 기치로서 확인되었고 공산주의적 신념처럼 살아있다. 그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구현되었다.

김일성동지는 늙지 않으신다. 왜냐 하면 그이 자신이 자기의 심장이 늙어지기를 용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이의 젊음은 자신의 생활, 자신의 확신성과 혁신의 창조자인 인민의 파감하고 위력한 젊음속에서 샘솟아난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의 참가자들인 우리 작가들은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고 감사를 드렸으며 무엇보다 그이의 인간적인 매력을 확인할 가능성을 지니었다.

우리 벨가리아사람들은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인 토도르 쥬프코브동지와 **김일성**동지사이에 맺어진 개인적인 친분과 따뜻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 두분은 모두 인민속에서 나왔고 두분은 혁명속에서 태어났으며 부분은 모두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활동가들이며 평화와 공산주의리상의 승리를 위한 투사들이다.

조선에 대한 세번째 나의 인상은 근로하는 사

람의 힘이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없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얻기보다 더 많은것을 내놓는다. 사상정치적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조선인민은 중심으로 자기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라고있다. 얼마나 응당하고 정의로운 지향인가! 이 통일은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종당에는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그렇다, 조선은 핵무기없는 자유로운 지대가 될것이다. 조선은 나라를 파는 괴뢰들의것이 아니라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의것으로 될것이다. 그들의 땅은 노동과 기쁨의 열매를 가져다줄것이며 열핵위험의 시험장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은 바로 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모인 우리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작가들은 조선인민의 이 정당한 지향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위협의 그늘속에 살고있다.

열핵참화의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하고있다. 열

핵무기시험중지기간을 1987년 1월 1일까지 연장할데 대한 소련의 일방적인 조치는 행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새 걸음을 앞으로 내디딘것으로 된다. 인류앞에 지닌 높은 책임성의 발현이야말로 제 인민들의 관계에서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

문학은 허위와 침략에 복무할수 없다. 재능있는 작가는 평화와 인간을 반대하는 음모자의 편에 설수 없다. 예술적언어의 본성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파괴와 열핵적인 광란의 동맹자로 될수 없다는 그것이다. 글은 언제나 생활, 신념과 희망, 빛과 아름다움의 벗이다. 책은 선량한 사람들이 읽는 한 영원히 살아남을것이다. 창작은 생활의 동의어이다.

오늘날 참된 재능은 인류의 미래앞에서 창조자의 책임성을 발휘할 때 똑똑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재능있는 책임성을 나는 혁명적이고 궁지높고 시적인 조선에서 목격하고 느낄수 있었다.

구경서역

가사

아, 삼지연

한원군

천고의 밀림을 물결우에 비껴 담고
고요히 설레누나 삼지연 삼지연
장군님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신
김정숙어머님의 그날의 미소어려
아, 못가의 진달래도 송이송이 피어웃네

한그루 봇나무도 향기론 꽃송이도
높은 뜻 안았구나 삼지연 삼지연
맑은 물 뜨시여 고운 꽃 고르시여

장군님께 드리신 어머님의 마음어려
아, 못가의 바람결도 가슴속에 후더워라

백두의 해와 별 네 먼저 맞으며
사시절 푸르구나 삼지연 삼지연
장군님을 위해 바친 어머님의 그 한생
우러러 따르리라 변함없이 영원히
아, 삼지연 삼지연 충성의 거울이여

12월 27일이여, 너와 함께

김흥권

기쁜 날이면
못잊을 날이면
우리는 먼저 기발을 올린다
하늘 높이 기발을 올린다

12월 27일 -

이날은 그러한 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세상에 선포된 날

아빠트들마다에
청사들의 지붕위에
공장들의 정문에
배들의 마스트에
람홍색 우리의 기발이 오른다

저 기발이
우리 높이 들고 고지에 오르던
그 기발이 아니냐
우리의 권리
우리의 존엄을
법으로 지켜 올리는 기발

인민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발을 올린다
누리는 권리
누리는 자유
누리는 행복을 담아

쇠물을 녹이고싶은 소원도
노래를 짓고싶은 열정도
하나로 꽃피워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법으로 담보된 행복의 요람이여

기발을 올린다
기발을 올린다
수수만년
법으로 보호받아본적없던 우리 인민이

돌이키면 가슴에 마쳐오는 한마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소말뚝이 뽑히어도
어린 딸을 빼앗겨도
다만 한마디 - 법이 없구나

매맞고 짓밟히고
목숨마저 잃어도
막아줄 법이 없던 인민에게
웃음을 주고 노래를 주시려
수령님 세워주신 사회주의제도에
인민의 법 - 사회주의헌법이여

오, 못잊을
12월 27일
너와 함께
조선은 얼마나 큰 걸음 옮기였더냐
들은 들마다
만풍년 나락이 설레이고
뜨거운 출강구는 쇠물을 쏟아내고
바다엔 풍어의 노래 높고

한덩이 쇠돌에도
날바다를 막아선 갑문에도
학교들의 창문에도
존엄으로 깃들어 빛을 뿜는 날이여

너와 함께
전번의 역사를 수놓아온 기쁨
수령님 쌓으시는 위업속에
우리 당이 이끌어가는 길우에
더욱 깊이 새겨지려니

기발을 올린다
기발을 올린다
12월 27일이여
영원히 너와 함께 가자고
공산주의 그날에로 가자고

한해를 보내는 기쁨

김송남

둘러보면 이 하늘아래
어디나 밝고 깨끗한 웃음
이 땅우엔 날과 날에 못잇을 감격뿐

아득히 내려쳐오른 새집들
무수한 창문들의 저 행복한 웃음에 실어
판평에 순천에 그리고 저 먼 금골에
지축을 흔드는 창조와 건설의 동음에 실어
이해를 보낸다

서해갑문은 우람찬 두팔을 벌려
파도처럼 드높은
세계의 환희를 끌어안았다
활짝 열리던 갑실로
밀물쳐오르던 그 환성에 실어
기쁨넘친 이 한해를 보낸다

순풍에 돛달고
쉽게 넘어온 나날이 아니거니
백두의 행군길 이어
그날의 눈보라 헤치던 마음이였기에
건설의 나날도
가렬한 전장을 헤쳐온듯
력사에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해여

못잇어라 못잇어라
이해의 그 모든 기쁨처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버이수령님 영상
밤깊도록 우리 당 건설의 위대한
새 로작의 글줄을 이어가시고
눈비내리는 날에도
먼 북변의 제철기지를 돌아보실 때

못견디게 못견디게 달아오르는
우리의 마음 한가슴에 모두 안으시고
동해기슭 바람찬 새벽길로
직매점의 흥성이든 매대앞으로 이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자욱따라
밝아오고 또 밝아온 이해의 날과 날...

그렇게 펼쳐졌어라
일심단결의 발구름 높이
힘차게 안아온 비약의 숨결이
광복거리, 태천발전소
창조와 건설의 새 진군로가

가는해의 저 노을속엔
아직도 쟁쟁히 어려있어라
흥겨운 춤노래로 꽃물결치던
잊지 못할 선거장의 환호소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변함없이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가,

세월이 덧없이 흘러만가라
이 땅에 오는 세월은
나래치는 창조로
숫구치는 기적으로
이르는곳마다 기쁨을 남기고
가닿는곳마다 행복을 남기거니
이 땅에 흐르는 해는
력사에 길이 남아 빛나는해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가르치심 받들어
맞으며 보내는 모든 시간을
기쁨으로 틀어쥔
우리는 세상 행복한 인민

오직 보답 못한 마음만을
의리로 끓는 가슴속에 아쉬움으로 안고서
기쁨 넘치는 한해를 보내노라
찬란한 미래의 행복을 안고
승리와 영광의 큰 자욱을 내디디노라

향도의 해발넘치는 《지하평양》

박창민

인민의 념원을 헤아리시어

전동차안이 더 환해지기 시작하였다. 《건국역》에 들어선것이다. 차장으로 황홀한 불빛이 확 안겨들었다.

우리는 전동차에서 내렸다.

《건국역》!

건국역은 건국역대로 특색이 있었다.

마치 분수가 솟아오르듯 청신하고 맑은 기분을 주는 수많은 구슬무리등, 독특한 가공기술로 정교하게 만들어세운 우람한 천연대리석기둥에 화려하고 무게있게 장식한 목란꽃송이들...

보통강지구의 수천척지하에 웅장화려한 《지하평양》이 펼쳐지고 사랑의 전동차가 다니게 되던 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건국》역을 찾으시었다.

지하역 천정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있는 우람한 천연대리석기둥이 그리도 마음에 드시어 만져보시면서 그 무게와 길이도 가늠해보시고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었던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하철도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하철도건설의 나날 제일 좋은 천연대리석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국가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마음 놓이지 않으시어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대리석과 화강석견본을 보아주시고 어느 지하역에는 어느 지방의 대리석을 어떻게 가공하여 붙일데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던것이다.

평양지하철도가 개통되던 날, 우리 인민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이 기쁜 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통강지구에는 아직도 지하철도를 건설하지 못하였다고 걱정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을 받아안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토성랑과 더불어 지난날 통곡소리 높던 보통강지구에 훌륭한 지하철도를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령도의 나날을 이어오시였다.

일꾼들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가 벽화앞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전동차에서 대여섯명의 외국손님

들이 내리는것이였다.

그들은 대리석기둥을 둘러싸고 기둥을 쓸어도 보고 만져도 보면서 해설원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보고있노라니 지하철도를 참관하였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찬탄해마지않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말이 귀에 쟁쟁히 울려오는듯했다.

《평양지하철도는 그 규모와 화려하고 웅장함에 있어서, 그 장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현대 지하건축물의 자람이며 예술의 극치를 이룬 훌륭한 지하박물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궁전에도 이런 대리석기둥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닥에도 온통 대리석을 깔았다. 그 대리석을 특권층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밟고다닌다. 정말 조선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다.》

아,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벽화 《락원의 보통강》은 또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이 벽화에도 향도의 해발이 뜨겁게 어려있다.

어느날 벽화창작전투를 지도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벽화의 주제사상과 예술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지하철도의 모든 장식들이 예술적조화를 이루도록 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벽화 《락원의 보통강》이 완성되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날 눈물의 강이였던 보통강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로동당시대에 와서 락원의 강으로 전변된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토성랑사람들의 원한을 싣고 흐르던 눈물의 강 - 보통강의 력사를 더듬으시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한숨이 보통강의 거치른 물결에 실려갔던가.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거처로 피나리보짐을 풀던 토성랑, 수재의 대명사, 병마의 소굴로 알려진 보통

강기슭, 사람들의 처량한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여 강물도 흐느끼며 흐르던 보통강!

그 한많은 기슭이 은혜로운 해빛아래 오늘은

람원으로 전변되어 지상에도 지하에도 웅장화려한 평양이 일떠섰구나!

《황금벌》역에서

《건국》역을 떠난 전동차는 수천척 깊이 뻗어간 두줄기 궤도를 따라 경쾌하게 달렸다.

전동차안에서는 손님들이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그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가 그리도 많은지 속살거리다가는 까르르 웃음을 터치는 처녀들, 책에 정신이 팔린 대학생들, 귀여운 애기의 볼을 살짝 건드리며 행복의 미소를 짓는 젊은 녀인들...

그 누구를 보아도 밝은 얼굴, 기쁨과 희망에 넘친 얼굴이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랑에 반들리어 어떤 행복의 길을 오고가는지 알고나 있는지.)

레사로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윽고 전동차는 《황금벌》역에 들어섰다.

황금벌! 마치 황금나라 설레이는 벌 한가운데 서있는것만 같았다.

한알을 툇 따서 입에다 넣으면 스리슬슬 단물이 온몸을 녹일것만 같은 포도송이들을 형상한 무리들, 금시 흥떡이며 파도쳐 밀려올것만 같은 벼바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향기를 날리는 빨간 사과며 누렇게 익은 배, 어데선가 통탕거리며 달려올것만 같은 트랙트르...

주체농법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풍요한 벌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 벌로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산천이 설레인다.

아, 어디에 서면 저 황금의 벌을 다 바라보랴. 은혜론 해빛은 넘치고 벌은 설레누나.

바라보면 해마다 풍년을 노래하는 농장벌 어디선가 금시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오실것만 같구나.

포도송이를 형상한 무리들이 너무도 신기하여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내원처녀는 자랑에 넘쳐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매우 만족해하신 무리들입니다.》

정말 볼수록 황홀하기만 하였다.

웅장한 돌기둥을 떠이고 선 홀천정에 장식한 밝고 우아한 빛을 뿌려주는 무지개조명, 무르익은 포도송이를 형상한 갖가지 색깔의 조명등, 그

현란한 빛발아래 대리석의 시원한 빛이 흘러넘치는 밝은 지하역...

이곳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황금벌지하역에 무리들을 포도송이처럼 만들어 달았는데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벽화가 웅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색조가 좀 흐릿합니다. 아래에 서는 잘 모르겠더니 올라와보니 확실히 색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벽화작품에서도 조선화의 기법을 살려 형상이 뚜렷하고 색조가 선명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황금벌역에는 우아하고 화려한 조명장치와 함께 주체농법의 승리를 보여주는 벽화를 사상에술성이 높게 형상하도록 여러차례에 걸쳐 건축형성안과 설계도면을 보아주시고 벽화창작전투도 지도해주시였다.

볼수록 황홀하여 감탄을 자아내는 저 조명과 장식들에도 향도의 해발이 뜨겁게 어려있다.

황금벌역 건축형성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밝고 화려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좁은 시야를 퇴워주시며 주체적인 건축미학의 예술적나래를 활짝 펼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적으로 다 소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독특한 형식과 구조로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고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걸작품으로 되게 최고의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조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밝고 우아하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 지하역에 설치할 산데리아도안을 구슬산데리아로 다시 만들도록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펼쳐주시였다.

천정우에는 민족적형식의 문양으로 아름다운 띠를 두르고 화려한 구슬산데리아를 아래로 늘어 예술적으로 완벽한 벽화와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장식에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교시.

참으로 그이께서는 한부분이 전체에 미치는 영

향을 보시고 이처럼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설계가들은 크나큰 감동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간접조명은 전반적색이 안개가 낀 것처럼 뽀얗게 보이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예견하지 못하였던 간접조명 처리까지 가르쳐주시고 지하철도 조명유리가 결렸다는것을 아시고는 대양을 가르며 머나먼 항해에 오른 무역선에 전보를 치도록 하시고 내부장식에 필요되는 사소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던것이다.

지하철도의 모든 장식들은 예술적인 대화폭의 구성요소로서 개별적인것의 독특한 미와 함께 전반적인 통일속에서 잘 조화됨으로써 웅장화려함을 더욱 돋구도록 가르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하철도가 하나의 거창한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장식을 예술작품화하는 조건에서 반드시 예술일반에 관통하는 원칙을 고수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건축미학사상!

한폭의 그림이나 몇시간의 예술공연, 몇개의 건축물에 대한 예술적장식이 아니라 수천척 지하에 그처럼 방대한 구조물에 대한 예술작품화!

이것은 보통상식이나 그 어떤 담력을 가지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위대한 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처럼 거창한 사

업을 진두지휘하시여 이렇듯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마련해주시었다.

사람들이여!

아침저녁 즐거운 출퇴근길에 오를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동차에 올라 유원지로, 극장으로 갈 때 지하의 저 창조물들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대들이 밟고있는 한장의 대리석과 한폭의 벽화, 하나의 무리등, 하나의 조각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극진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있음을 잊지 마시라.

× ×

우리는 다시 전동차에 올랐다.

이제 들리게 될 모든 역 그 어디에나 이렇듯 뜨거운 향도의 자욱이 어려있나니,

혁명의 수도 평양의 수천길 지심깊이 뻗어간 철길과 지상, 지상역들 그 모든것에는 지하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현명한 령도와 창조의 역사를 전해주는 위대한 사적으로 빛나는것이 아닌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그길로 행복을 싣고 기쁨을 싣고 전동차가 달려간다.

우리가 가고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간다!

가사

염분진포구에 파도 설레네

윤석중

푸른 물결 저 멀리 날아에는 갈매기도
못잊을 그날의 자연 노래하는가
해방의 기쁨을 안고오신 김정숙어머님
오늘도 못잊어 치마 못잊어
아, 염분진포구에 갈매기 날아예네

도래굽이 한끝에 붉게 타는 해당화도
뜻깊은 그날의 자욱 새겨안았네
어로공새살림 축복해주신 김정숙어머님

그 은정 뜨거워 정녕 뜨거워
아, 염분진포구에 해당화 붉게 타네

그날의 높은 뜻 꽃피여난 이 기슭에
풍어의 흥겨운 노래 울려퍼지네
마음속에 모시고 따르는 김정숙어머님
영원히 받들어갈 한마음
아, 염분진포구에 파도되어 설레네

날알의 향기

안용근

1

평양교외에 있는 장마당은 점심때가 되어오면서 더욱 번잡해졌다. 이고지고 든 형형색색의 사람들의 물결이 장마당 주변 골목에까지 범람하여 떠돌씩 붐빈다. 뒤늦게 온촉들은 그 골목자리도 다행이라는듯 서둘러앉으며 가지고온 물건들을 슬금슬금 퍼놓는다. 가을장이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해방을 맞은지 몇해되는 이해 가을의 장마당은 류별나게 인산인해다. 게다가 새하얀 옥백미며 새빨간 사과며 누런 배며 김이 문문나는 팔죽동이며 기름이 찰찰 도는 떡함지며 구수한 군밤냄새며... 어느것이나 사람들의 구미를 부쩍 돋군다.

어디서 웃음이 담긴 목소리들이 터져오른다. 《헤- 해방이 좋긴 좋구나. 우리 같은 잠뱅이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됐으니 천지개벽일세. 여보게들, 이 좋은날에 우리 춤이나 출가. 허허허...》

흰 모시두루마기를 입고 선술집앞에서 담소를 하고있던 로인들이 흥취가 올라 들쭉들쭉했다. 엉거주춤 로인들이 춤을 출 기세로 일어서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아, 아주버니, 닭알깨지는 소리가 뭐 복소리줄 아시우. 저런 저저 또 밟네. 쫓쫓...》

입심 센 아낙네의 기겁한 녀두리가 혼잡을 누르며 청높게 울렸다. 누군가 닭알꾸레미를 다쳐놓은 모양이다. 그래도 혼한데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닥 가시박힌 소리는 아니다.

봄비는 사람들속에 끼여든 진옥이는 손수건으로 이마전에 송골송골 내뿜힌 땀을 찍어내며 생선매대쪽으로 바쁜 걸음을 놓았다. 그는 지금 반찬감을 사러 장마당에 들어서는 참이다. 좁전에 김정숙어머님께서 회령에서 온 손님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시게 된다는것을 알았던것이다.

해방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받들리어 교아의 설음을 이겨내고 녀맹일군으로까지 자라난 진옥은 그러지 않아도 몹시 비쁘게 지내시는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어 이렇게 몰래 장에 나왔던것이다.

무슨 일로 회령에서 손님이 왔는지는 딱히 몰라도 어머니의 고향에서 오신 손님이니만치 진옥이로서도 자연 마음이 갔다. 얼마나 그리운 고향이라. 해방이 된지도 몇해 잘되는 지금조차 늘 일에만 다몰리다보니 한번도 가보지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진옥이는 늘 안다까움을 금치 못했

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에서 손님이 왔다는걸 보니 분명 그림던 친척일것이였다.

어머님께서 평양시안의 녀성들의 문맹퇴치정형을 알아보라고 주신 과업을 수행하고난 진옥은 그 바람으로 부리나케 장마당에 달려왔다.

웅성거리는 장터에서는 별의별 옷감을 다 걸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대는 장사군들의 구성진 목청이 진옥이를 사로잡았다. 순간 진옥이의 눈앞엔 늘 입고다니시는 색날은 어머니의 검은 저고리가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돈지갑에 손이 갔다. 볼록한 돈지갑에서 어제 받은 첫 로임 지전이 자르르 자르르 하고 기분 좋게 속삭인다. 언제나 진옥이를 친부모보다 더 사랑해주고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픈 진정이 봄물처럼 어려왔다.

그러나 진옥은 이내 도리질하며 검은 눈을 내려간채 장군들앞을 그냥 지나쳤다. 또 나무람하실 어머니의 모습이 부지중 눈앞에 떠올라서였다.

(언제면 어머님께서도 풍족한 생활을 하시겠는지.)

장마당의 흥청한 기분속에서도 어째서인지 한숨이 호- 나갔다.

생선파는데는 사람이 많았다. 한동안 기다려야만했다. 시계를 보니 열두시가 거의 되였다. 오늘 오후에는 손님이 오기에 어머님께서 별로 다른 사업을 예견하지 않을것 같았지만 점심때가 가까와오니 자연 마음이 조급해났다. 진옥은 잉어며 송어를 비롯한 몇가지 반찬감을 사들자 오던 길로 돌아섰다.

쌀과는 장사군들앞을 지나려던 진옥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와 걸음을 늦췄다.

《그러니까 금년엔 농사가 잘됐단 말씀이군요.》

《네, 잘 됐다마다요. 마을이 생김이래 처음보는 대풍이 들었췌다.》

《아 아니 그러지 말고 어서 편히 앉아 말씀하세요.》

웬 로인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는분은 분명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여길 나오셨을까? 손님맞을 준비때문에 걱정되시여 나온것이 아닌가?)

진옥은 말없이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미리 말씀올렸더라면 저렇게 바쁜 걸음을 하시지 않았겠는데...

진옥은 사람들의 물결을 헤가르며 어머님께로

다가갔다.

어머님과 마주앉은 로인은 쌀자루를 펼쳐놓은 채 황송한 몸가짐을 하고있었다. 아마 햇쌀을 팔려고 나왔다가 어머님을 뵈온듯싶었다. 몹시 낮이 익었다. 그러나 딱히 어디시 만났던지 짝이는 데가 없다.

《난생처음 제땅을 가진데다 비까지 맞춤하게 와서... 천수답이 많은 우리고장도 인젠 먹을 걱정을 모르게 됐수다.》

로인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채수염을 연신 내리 쓴다.

《참 막내딸은 시집갔는가요?》

《우리 수연이요? 그 애가 뭘 잔치를 하지오다. 어머님께서 우리 집을 다녀가신후 사치에서 혼처가 나셨수다. 글쎄 문쩍에서 불이 다 날 지경이였다니깐요. 오늘 이렇게 먼저 바시미한 쌀을 팔아 잔치상 차리는데 좀 보탬가 하여 왔습시다. 하하...》

로인은 눈굽을 훔치며 호방하게 웃기까지 한다. 어머님께서 자기 집에 다녀가심으로 하여 별치않게 생긴 딸의 인품까지 부쩍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진옥은 그제야 낮익은 로인이 월석리의 근성로 인임을 알아보았다.

작년 늦은 가을 일이 생각났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3.7제투쟁정형을 알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진옥이와 함께 월석리를 찾으시였다.

천수답이 많은 월석리에서는 농사도 잘 안되는데다 지주 최기택놈때문에 3.7제투쟁도 흐지부지되고있었다. 그래서 베어놓은지 오랜 벼들을 탈곡하지 못하고 서리를 맞히고있다가 이제는 눈속에 묻히게 되었다고 한다. 최기택놈은 포악하고 교활한 놈이었다. 농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대로만 더 있으면 필경 지주놈의 요구대로 소작료를 엄청나게 물어야 했고 농민들은 겨우내 여름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때 김정숙어머님께서 월석리로 나가시였던것이다.

...어머님께서는 한 로인의 집을 찾으시였다. 고작은 초가이영이 나들문 절반까지 내려와 덮여있는 집이었다.

어머님께서는 마주 나오는 로인앞으로 다가가시며 공손히 인사를 드리였다. 유근성이라고 불리우는 로인이였다.

《로인님, 마을형편을 좀 알자고 왔습시다.》

지나는 길손으로만 일고 범상히 맞던 근성로인은 마을형편을 알려고 먼길을 우정 왔다는것을 알자 희숙한 눈섭을 꿈틀 곤두세웠다.

검은색 무명치마에 흰 옥당목저고리를 받쳐입으시고 까만 고무신을 신은 보통 차림새였으나 영채도는 눈길이며 부드럽고 인정이 흐르는 말씨며 소박한 인사차림에는 어딘가 다른 사람과 구

별되는 그 어떤 체취를 느끼게 하였다.

로인은 황황히 그이를 집안으로 안내하려 했다.

요즘 우에서 간부들이 농사형편이랑 알아보러 내려왔다더니 이 부인도 그래서 온것 같았다.

유근성로인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먼저 들어섰다. 루추한 방에 그이를 모실 일이 자못 걱정되어 대충 치우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로인의 웅색해하는 심정을 헤아리신듯 바깥이 좋다고 하시면서 퇴마루우에 허물없이 앉으시는것이였다. 미처 자리를 깔아드릴 사이도 없었다. 이러는 사이 타작을 앞두고 궁금해있던 마을농민들이 속시원한 소리라도 듣고싶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는 그들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누신 다음 마을 농사형편이며 3.7제투쟁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마디씩 물어보는 말에나 대답하던 농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들의 억울한 심정이며 땅에 대한 절절한 소원을 터쳐놓기 시작하였다.

전후사연을 다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월석리에 나와보기를 썩 잘했다고 생각하시였다.

《...여러분! 지주는 우리 농민들의 원수입니다.

본래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입니다. 절대로 지주놈의 꼬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3.7제투쟁을 벌리고 지주놈들이 발악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얹어매놓아야 합니다.》

농민들의 원한과 증오와 세기적속망을 한순간에 헤아려보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모두 주먹을 불끈불끈 쥐였다.

《웁수다! 3.7제를 해야 합니다.》

《땅을 달라는 <진정서>를 올립시다.》

《당장 타작을 합시다! 까짓거 최기택놈이 달려들면 도리개로 면상을 후려칩시다.》

농민들이 기세를 올리며 떠들어대자 유근성로인의 울대뼈도 오르내리였다. 정말 쥐면 한줌안에 안찰 지주 최기택놈때문에 허리도 못펴고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나 그놈은 조금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던가. 그런데 마을에 온 소박한 녀인이 그놈을 보잘것없는 추물로 만들어버린다.

보통본이 아니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인정이 넘치시는 모습인가.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었고 조언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유근성로인은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죄다 말씀드리고 물어도 보았다.

아닌게아니라 어머님께서는 무릅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앞이 확 트이는 말씀도 해주시는것이였다. 이야기가 깊어감에 따라 로인은 어려움도 있고 다 자란 막내딸 혼사걱정도 털어놓게 되었다. 어머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 해주시며 집집승도 기르고 농사도 잘 지어 지주

최기택놈의 만팔 잔치상 부럽지 않게 차리라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었다...

진옥은 감회가 새로웠다.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로인네의 살림살이가 펄어싸 쌀을 팔 여유가 생긴데다 걱정했던 딸의 성례까지 치른다지 않는가.

어째서인지 마음이 장마당분위기처럼 흥청흥청한게 기쁘기 그지없다.

《이 쌀은 햇쌀이구만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베풀사까지 잘됐으니...》

어머님께서는 무등 기쁘시여 로인앞에 있는 새하얀 쌀을 줌에 취해보시었다. 줌안의 쌀들이 자르르 소리를 내며 자루안에 쏟아져내린다.

어머님께서 그 소리가 듣기 좋으신지 이번에는 줌더 손을 높이 드시여 쌀을 흘리시었다. 그러자 쌀알 부딪치는 소리가 짜라락짜라락 더 크게 들려왔다. 어머님께서 미소를 띄우신채 또 한번 그렇게 해보시었다. 그러시던 어머님의 안색이 서서히 어두워지시었다.

어머님을 우러르며 노상 웃음을 짓고 흡족해있던 로인은 웬일인가싶어 당황한 기색을 지었다.

《아버님, 쌀알들이 한결같이 영글지 못했군요.》

어찌나 서운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진옥의 가슴이 다 저리여왔다. 진옥이는 쌀자루 가까이로 다가가서야 어머님께서 서운해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새하얀 옥백미에 파르스름한 쌀알이 뉘처럼 드문드문 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네 그닥 씨원치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전년에 비하문야...》 그러던 로인은 갑자기 말허리를 끊었다. 어머님께서 그 쌀이 그닥 충실치 못한것으로 해서 근심하신다는것을 깨달은것이다.

로인은 천수답에서 난 쌀을 먼저 팔려고 잘 된 쌀을 깔고앉아있다가 어머님의 심중에 그만 걱정을 끼쳐드린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로인은 사실대로 말씀올려 어머님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드리고싶었다.

《이 쌀은 천수답에서 난거웨다. 상답에서 난 쌀이야 이렇리 있나요. 자, 이걸 보시우다. 이 쌀이 어떤가.》

로인은 깔고앉았던 다른 쌀자루의 목을 풀어헤쳤다. 아구리가 짝 벌어진 자루안에는 정말 떡가루같이 하얗고 소담하게 잘 여문 햇쌀들이 일매지게 윤기가 돌았다.

어머님의 안광이 일순 빛나시었다.

《아니?! 그럼 이 쌀은 상답에서 난것이겠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다녀가신후 올봄에 우린 논만도 3,700평을 분여받았체다. 그중 상답이 2,000평, 천수답이 1,700평...》

《네- 그렇군요.》

어머님께서서는 다소 마음을 놓으시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나 안색은 아까와 같이 밝지 못하시었다.

《그래도 천수답에서 여직 낱알이 이렇게 익어 보기는 처음이지오다. 비가 어디 와주어야지요. 해마다 물때문에 논바닥만 마르게 아니라 농군들의 가슴이 더 바작바작 말랐지요. 근데 올해엔 어떻수. 비가 좀 적은감은 있어도 논바닥이 마르지 않았수다. 아, 글쎄 동네가 생기이래 참보는 대풍이라니깐. 매년부턴 우리도 찹쌀을 심어보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로 부러울게 없지요.》

어느사이 로인은 또 풍년자랑으로 넘어갔다. 로인에게서는 그이상 바랄것이 없는상싶었다.

로인과 헤어진 어머님께서는 진옥이를 보시고 무척 반가와하시었다. 어머님을 대신하여 처자보러 왔다는 진옥이의 말에 어머님께서 그 마음이 고마우시여 밝은 웃음을 띄우셨다.

《나도 회령에서 오신 할아버지께 평양에서 유명하다는 대동강송어국을 대접하고싶어 이렇게 장에 왔는데 진옥인 정말 어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이 펄펄 뛰는 생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점심은 우리집에 가 하자요. 집구경도 할겸...》

진옥이의 손을 꼭 잡으신 어머님께서는 웅성웅성 봄비는 장터를 더 돌아보시고 댁으로 향하시었다. 어느사이에 점심때가 다 되었던것이다.

2

댁으로 돌아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점심을 서두르시었다.

어머님께서는 뭔가 돕지 못해 애쓰는 진옥이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오늘 점심은 진옥이가 가져온 물고기와 반찬감들로 국도 끓이고 반찬도 준비하시었다.

어머님께서 기쁜 안색을 짓고계시니 진옥의 마음도 즐거워났다.

진옥은 생긋 웃으며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어머님을 도우려 한발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러던 진옥은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부엌세간들이 너무도 평범하였기때문이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찬장, 크고 작은 질그릇들과 놋그릇들, 윤이 흐르는 솥이며 노란 바가지...

어느사이 즐겁던 마음은 초물 굳어지듯 얼어붙었다.

진옥이는 어머님께서 나лага 해방된지 두해째나 되는 오늘까지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계신다는데 대하여 자주 듣고 목적도 했지만 눈으로 직접 부엌세간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쪼박쪼박 찢기는듯한 아픔이 마음을 괴롭혔다. 어머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따르면서도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때늦게 빠져린 후회로 갈마들었다. 꼬집어놓도록 자신이 미워났다. 회칠 잉어를 손질하려고 식칼을 들기는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거기에 갔다. 부지

중 한숨이 새어나갔다.

진옥은 한동안 초점없는 눈길로 잉어를 뒤척이 기만 하다가 머리를 푹 숙이고서서 제 성미대로 와락와락 씻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도 그것이 진옥의 성미때문만이 아님을 아시는것 같았다. 뭐나 푼푼하게 쓰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그러나 무슨 말로 설명할수도 없으시였다. 어쩐지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생각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진옥이를 바라보시다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신것처럼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참, 진옥이, 내 좋은걸 보여줄까?》

《좋은거라니요?》

어머님께서는 대답대신 명주치마에 젖은 손을 문대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였다.

진옥은 호기심이 앞서 어머님의 뒤를 따랐다. 방아래목에 쌀자루같은것이 놓여있었다.

어머님께서는 그리로 가시더니 그 자루의 목을 푸시였다.

어머님의 손길을 따르던 진옥은 갑자기 눈이 둥그래지며 환성을 올렸다.

《아이, 햏찹쌀이구만요!》

《호호, 진옥이도 찰떡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어머님께서는 햏찹쌀을 두손에 담아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시였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샀어요. 네? 어디서요?》

진옥은 금금증이 앞서 다우쳐물었다.

《회령에서 온 손님이 가져온거예요. 글썄 부여 받은 땅을 논으로 풀어 지은 찹쌀이라고 하면서...》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시였다. 그러시다가 어린시절 한마을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햏쌀 한짐을 지고 찾아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하시였다.

《글썄 이 무거운걸 지고 그 먼데서 오는 법이 어디 있는가구 나무람하자 그 할아버지는 어린시절 떠나보내면서도 토스레웃 한벌 해주지 못하고 새질신 한켄레 없어주지 못한것이 늘 후회됐다고 하면서 이 쌀을 받아야 피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다잖겠어요. 그러고는 기어이 회령으로 같이 가자구 막무가내겠지요. 글썄 내가 뭐라고...》

진옥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것을 짐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차라리 잘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서 고향 회령에 한번 다녀왔으면 하고 바랐다.

어머님께서 어찌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지 한번 가본 일이 없는 진옥에게도 회령은 손금보듯 환한곳이였다.

해방이 되여 누구나 고향을 찾고 부모형제, 친척친우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안가는데 없는데 어머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회령으로 가신다면 얼마

나 좋으랴. 기약없이 헤어진 언니, 조카의 생사여부도 거기 가면 알수 있을것이였다. 햏쌀구꿇 하얗게 된다는 오산덕기슭도 거니시고 어린 시절 배고픔을 참으시며 뽕뿌리 캐러 다니셨다는 오솔길도 밟으시며...

생각할수록 오래동안 헤어졌던 고향과 상봉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아직 나라가 갈라져있지. 안팎의 정세도 그렇지. 어떻게 제 고향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회령손님을 저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섭섭해할 마음을 풀어주자구요.》

《아니, 그럼!!》

일시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모처럼 마련된 이 기회마저 사양하시면 언제 시간을 내시겠는가.

《그래도 이번에는 꼭 가셔야지요. 어머님께서도 그렇지만 고향사람들이...》

진옥은 고향사람들의 기다리는 심정을 빗대서라도 어떻게 하나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싶었다.

《또 녀사라고 하는구만요.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데... 왜 자기 언니나 다름없는 사람을 녀사라고 자꾸 불려요?》

《저...》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고도 그저 <동무> <언니>... 이렇게 부르라고 하라요. 그것이 얼마나 정답고 친근해요. 꼭 그렇게 하지요?》

진옥은 갑자기 목이 메면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긍정도 할수 없고 부정도 할수 없었다. 더우기 어머님께서 이런 말로 고향으로 갈것을 지못게 고집하는 자기의 청을 밀막아버리는것이라고 생각되여 더욱 그랬다. 그렇다고 무한정 침묵을 지킬수도 없는 일이여서 그저 두어번 숙인 머리를 까닥까닥했다.

진옥은 자기의 힘으로는 더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는 사이 밥이 다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얼른 시계를 보시고 솔뚜껑을 여시였다. 구수한 햏냄새와 향긋한 승어국냄새가 온방에 가득찼다.

진옥이는 그릇들을 내리려고 찬장을 열었다. 순간 진옥이의 그릇들을 내리려고 찬장을 열었다. 순간 진옥이의 시선은 찬장안에 거울처럼 윤기도는 햏바리에 멎었다.

바리를 내리우려고 햏보개를 여는 순간 거기에 햏곡이 다문다문 섞여있는 얼마되지 않는 햏이 담겨져있는것을 보았다.

(아니, 이 풍년든 해에 햏곡햏을 잡수시다니?)

진옥은 아연한 눈길로 햏바리를 들여다보았다.

《뭘 그리 들여다봐요.》

어머님께서는 진옥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시며 웃으시였다.

진옥은 이내 열적은 표정을 지으며 따라 웃기는 했지만 눈썹이 솟구치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산에서 싸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민들이 활기에 넘쳐 나날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걸 보면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군 해요.》

진옥이는 스프르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말씀이 온 공간에 메아리치는것만 같았다.

진옥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방안에 들어와 무의식적으로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눈앞이 자꾸만 뿌옇해왔다. 무엇인가 손끝에 닿는다. 머리를 드니 회령손님이 지고왔다는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알수 없는 힘이 진옥의 눈길을 오래도록 그리로 끌었다. 이렇게 들어온 쌀은 그 얼마이던가. 우리 인민이 올린 지성어린 쌀을 쌓으면 저력정원도 모자랄것이다. 그 많은 쌀을 모두 건국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다시 돌려주신다는것을 진옥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당하여 풍년든 이해에 하루 아니 한끼만이라도 햇쌀밥을 해잡수시지 않으시고 잡곡으로 끼니를 에우셔야 한다는 이 사실앞에 가슴 에이는 듯한 아픔과 갈마드는 자책을 쉬이 녹애틈수 없었다.

이래저래 울적해진 진옥은 쌀자루안의 하얀 쌀만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는 진옥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맑은 이슬이 가랑가랑 맺혀들었다.

3

회령손님이 떠나가자 어머니께서는 진옥이를 데리고 월석리로 향하시였다.

손님과 한나절은 고향이야기로 회포를 나누시리라 생각했던 진옥은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한채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께서는 늘 입고 다니시는 흰 옥당목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받쳐입으시고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드신채 바람에 웃고름을 날리시며 앞서 걸으시였다.

진옥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월석리를 찾으실 때에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곰곰히 더듬어보면 사업상용무가 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짚이는것이 있다면 오늘 장마당에서 유근성로인이 무심히 막내딸 잔치를 래일 한다는것을 알린것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근성로인의 막내딸 잔치때문에?!)

생각이 여기에 미친 진옥은 금시 기쁨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사업으로 분망하신 어머니께서 피로도 푸실겸 잔치구경도 하시고 가을소풍도 할수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심분 그럴만도 했다.

진옥은 어머니를 따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

다.

구름 한점 없는 청청한 날씨다.

지나는곳마다 풍요한 들에서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소슬바람을 타고 구성지게 들려온다. 벼가울이 한창이였다.

무명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인 농민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낫을 휘두르며 아름이 벌게 벼를 베어놓인다. 둔덕진 저쪽, 웅기종기 모여있는 집집의 처마밑에는 고추타래가 불 붙는듯 보이고 잘 익은 박들은 어서 쳐달라는듯 덩실 지붕우에 앉아있다.

어디선가 시큼한 두엄냄새가 풍겨왔다.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살붙이처럼 여기는 이고 장 농민들이 벌써 다음해 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고있는것이였다.

시원한 길이 별판가운데로 가리마처럼 곧게 뻗어갔다.

김정숙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는 뜻깊은 길이다. 작년에도 이 길로 해서 월석리로 가시였고 울봄에는 토지를 분여받고 기쁨 가득 모내기엔 신명이 난 농민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월석리의 이웃리도 이 길로 하여 가시였다. 그러고보면 이 길도 어머니의 거룩한 발자욱에 의하여 생겨난 것처럼 생각된다.

어느덧 월석리로 들어서는 길목이 나뉘었다. 가을해빛은 더욱 따사롭게 머리우에서 재글거리고 황금물결은 굽니며 와실렷다.

좌- 스슬렁... 좌- 스슬렁...

들의 한끝에서부터 한끝으로 파도쳐 굽니는 벼이삭들은 일제히 어머니께로 고개숙여 달음쳐오는것만 같았다. 진옥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비쳐오는 모든것- 알알이 영근 이삭이며 기쁨에 젖어

부르는 농민들의 노래소리며 새빨강게 익은 고추며 지붕우의 박들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담고있는것만 같았다. 월석리에 들어서신 어머니께서는 등너머에 있는 천수답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쪽으로는 나지막한 산들이 기복을 이루면서 대동강과 잇닿아있었다.

《...?》

어머니께서 마을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경사진 천수답쪽으로 방향을 돌리시자 진옥은 의아했다. 하지만 이내 의혹이 풀렸다. 산기슭 둔덕진 그곳에서는 월석리를 비롯한 린근마을의 풍경이며 오탁백과 주렁진 풍요한 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며 소풍할겸 부감하기에는 그저 그만일것이였다.

진옥은 탄력있게 걸음을 옮기시는 어머니를 따라 천수답 두렁길에 들어섰다. 두렁길은 오불꼬불 기복도 심했다.

어느덧 어머니의 얼굴에는 땀발이 돋기 시작하였다.

한참 그렇게 오르시던 어머니께서 무춤 걸음을 멈추시였다. 가을을 끝낸 논판의 한구석에 벼이삭이 떨어진것이 눈에 띄였다.

어머님께서 물속에 만나마 잠겨있는 그 벼이삭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끌리듯 그리로 가시었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여 벼이삭을 주으시었다. 몇걸음앞에 또 한 이삭이 달구지바퀴자리에 짓뭇개져있었다. 어머님께서 신발이 젖는 것도 모르시고 거기에도 가시여 그 이삭까지 들고 나오시었다.

진옥이도 어머님을 따라 몇개의 이삭을 주어들었다. 벼단을 나르다 흘린것이 분명하다.

어머님께서 진옥이가 주는 벼이삭까지 물에 씻으시여 보자기에 정히 싸시었다.

진옥이는 어머님께서 진탕속에 박힌 한두이삭의 낱알을 보석보다 더 중히 여기시는데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수록 풍년바람에 낱알 귀한줄 모르는 논임자를 속으로 나무람하였다.

진옥은 어머님을 모시고 달구지길로 나섰다. 그렇게 한동안 걸어가시던 어머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무엇인가를 찾으시었다. 그러시던 어머님의 눈빛이 빛나시었다.

《거기 표말이 있군요.》

아닌게아니라 좀 떨어진 둔덕에 《유근성 논 1, 700평》이라고 쓴 표말이 박혀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금년봄에 써서 박은것이여서 그런지 주인의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까만 글발이 저녁 해빛에 윤기를 번쩍이고있었다.

어머님께서 표말을 한동안 보시다가 진옥이를 보시며 의미있게 웃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감회깊은 얼굴이시었다.

진옥은 어머님께서 유근성로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며 장마당에서 그를 다시 만났던 일을 회고하시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을사람들이 몹시 보고싶구만요. 작년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여기 천수답에 물을 댈 생각을 했어야 할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마을사람들을 만나보기도 몇몇한데...》

《네? 물이라니요?》

진옥은 산이나 다름없는 이 높은곳에 물을 댄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트이었다.

《이 천수답 일대에 물을 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고장 농민들이 금년엔 맛쫄한 비에 례년에 드문 소출을 내긴 했지만 해마다 비가 그렇게 와줄수야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더우기 이렇게 높은곳에...》

《그러게 방도를 찾아보자는거예요. 벼알 모두가 한알같이 여물자면 물이 있어야 해요.》

《네!! 아니 그럼...?!》

《겸사겸사해서 나왔어요. 진옥에게 미리 말하면 아까 잉어를 손질할 때처럼 또 와락와락 할가봐...》

어머님께서 기꺼우신듯 한손으로 입을 막으시며 크게 웃으시었다.

(그래서 서둘러 월석리로 나오셨구나!)

이 순간 진옥은 장마당에서 근성로인의 쌀자루에서 알차게 여물지 못한 쌀알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보면 어머님께서 장마당에 나오신것이 단순히 회령손님때문만이 아니시었다.

그때 벌써 어머님께서 해방을 맞은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으며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신것이라. 진옥은 어머님께서 가을소풍을 나오신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얼마나 경망스럽게 생각되었는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머님께서 천수답일대의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시고 작은 수첩에 포전략도를 그리고 필요한 부호들과 수자들을 적어넣기도 하시었다.

그 일을 끝내신 어머님께서는 좀더 높은곳으로 오르시여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이윽고 어머님께서는 결심을 내리신듯 천수답 아래쪽 나무숲이 있는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거기로는 아무런 길도 없었다. 개버들이 뒤엎켜 헤쳐나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한동안 그렇게 걸으니 진땀이 나졌다.

진옥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을 이런곳으로 더는 가시게 할수 없었다. 그런데 벌써 어머님께서 신발을 벗어두고 성큼성큼 진펄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거긴 위험해요. 제가 갔다오겠어요. 아니 그럼 제뒤로 해서 오세요!》

급해난 진옥이는 미처 신발도 벗지 못한채 어머님의 뒤를 따랐다.

《진옥이 천천히- 덤비지 마세요. 내가 밝은 자리로 따라와야 빠지지 않아요. 가만 내 손을 잡아요.》

진옥이는 어망결에 그이의 손을 잡았다. 한쪽 발이 쑥 들어갔던것이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며 진옥이를 일른 수렁진곳에서 건져주시었다. 한참 신고를 해서야 진펄을 지날수 있었다.

《이젠 됐어요. 저 산기슭을 따라 물길을 내고 양수기를 설치하면 강물을 끌어올릴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습지대가 작은 호수로 될거예요. 그 물이면 이곳 천수답의 논들을 얼마든지 적실수 있을거예요...》

어머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온 얼굴에 웃음을 함뱌 담으신채 진옥이의 두손을 꼭 잡으시었다.

그러시고는 감탕에 빠졌던 신발을 닦을념도 없이 재촉하시었다.

《빨리 가세요. 마을사람들과 의논도 해보고 돌아가서 장군님께 말씀올려 양수기를 해결받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이 천수답에서도 하나같이 영근 쌀알들이... 생각 좀 해보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어머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머무신채 개변될 일석리의 전경에 대하여, 이고장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그림을 놓고 설명하듯이 들려주셨다. 어쩌나 구수하고 감칠맛있게 이야기하시는 지 진옥은 무연히 펼쳐진 논과 밭에서 가을바람에 일렁이고 속삭이는 난알들이 풍기는 독특한 향취가 금시 감각되는듯하였고 뒤동산엔 백과주령진 아담하고 정가로운 농촌마을에서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게 될 농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황홀하게 안겨왔다.

그럴수록 그 생활, 그 기쁨을 마련하시려 심혈을 바쳐가시는 어머님의 수고가 가슴에 파고들었다.

어머님을 따라 마을로 찾아가는 진옥은 그이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오늘이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성품을 따라배우게 되는 귀중한 하루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터워났다.

4

어머님께서 리일군들과 함께 천수답일대를 돌아보시면서 물덜 방도와 위치들을 의논하신 다음 유근성로인의 집을 찾으셨을 때는 장미빛노을이 어둠에 서서히 엷어지고있을무렵이었다.

번듯한 근성로인의 집은 솫대문까지 있는 기와집이었다. 올 농한기에 새로 지었다고들 했다.

마당안에 벼랑가리가 우중충한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것이 보였다.

어머님께서 솫대문안으로 들어섰을 때 로인은 굽을사한 허리에 한손을 얹고 다른 한손은 활활 내저으며 떡을 치는 앞마당에도 가보고 고기를 손질하는 뒤마당에도 가보느라고 야단이였다.

그때마다 부엌에서 한창 지짐을 지지던 마누라한테 살그니 다녀야지 지짐에 재티가 앞는다고 허차는 소리를 듣고도 로인은 그저 제풀에 허허하고 웃을뿐이었다. 어쨌든 그는 집안콧이 좁다하게 다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집안의 잔치분위기를 감득하시다가 진옥이에게서 보자기를 받아드시고 벼랑가리걸로 다가가시였다. 그 벼이삭들을 아무도 모르게 두시려는것이였다. 웅색해할 로인네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여서였다.

그때 부엌으로 장작을 안고 들어가던 근성로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을 살피였다.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계시는곳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왔다.

잔치준비를 도우러 오는 이웃들과는 아무래도 행색이 다른 모양이였다.

어정어정 디가오던 로인이 우뚝 멈춰섰다. 로인의 회색한 눈썹이 곱름하더니 입귀가 실룩거린다. 로인의 가슴팍에서 장작개비들이 와르르 발밑으로 떨어졌다.

《아니 어머님께서 어떻게 이런델... 제가 너무

불민하여 여러모로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린것만도 죄송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찾아오시기까지...》

너무 기쁘고 당황하여 한다는 인사가 이렇게 되고말았다.

《말씀을 낮추어주십시오. 잔치준비를 한다기에 지나는 길에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쩔수 없이 반나마 펼쳐진 벼이삭을 썬 보자기를 급히 싸드신채 근성로인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유근성로인은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집에 왔다가신 다음에야 누구라는것은 알고 인사 한마디 변변히 못한 자신을 두고 얼마나 후회막심해했던가. 그런데 오늘 장마당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 소탈하시고 겸허하시니 도무지 인사를 차릴수 없었다.

《...정말 찹쌀까지 보내주시여... 조상대대로 찹쌀구경 못하고 살아온 이고장에 저렇게 떡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 황송함을 어디에 비기겠소이까. 그렇지 않아도 와주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바랐소만 외람된 생각이 앞서서 차마...》

로인의 말을 듣는 진옥이의 눈앞에는 어머님의 집에서 보았던 알알이 백옥처럼 희디흰 찹쌀이 방블히 떠올랐다.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그 쌀을...?

어머님께 자기들이 지은 찹쌀밥 한 그릇이라도 올리고싶은 고향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그 찹쌀, 토스레웃 한벌 못해주고 떠나보낸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물어보려고 천리길을 달려온 회령할아버지의 지극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는 헛찹쌀, 아! 저 로인이 그 사연을 알게 된다면...

진옥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솫구쳐올랐다.

로인은 격하여 말을 더듬거렸다.

《평생처음으로 땅을 받고 이렇게 로적가리를 하늘높이 쌓고보니 어느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수다. 퍼이는 살림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오늘은 막내딸잔치상까지 세상부럼없이 차려놓았수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로인은 어머님의 뒤에서 그이를 안으로 안내하였다.

진옥이는 문득 1년전에 왔을 때 본 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그때 로인은 몹시 부끄러운 기색으로 굴속처럼 컴컴한 땅에 제먼저 들어가 주섬주섬 방을 치워가며 미안한 인사를 늘어놓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얼굴에 노상 흡족한 웃음을 머무고 허리까지 젖히며 걷는 로인의 몸에는 젊은 기운이 내솟고있었다.

마루에 올라서며 로인은 갑자기 안에 대고 어머님께서 왔음을 소리쳐 알리였다. 일가친척들을

그이께 인사시키려는것이였다.

확 열려진 문으로 일가친척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일하다 급기야 뛰쳐나온 그들은 옷자락에 손들을 서둘러 문대고는 허리를 굽적하며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덥석덥석 잡는다. 저저마다 하는 인사 투가 각이했으나 모두가 그림던 혈육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고 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목메여하였다. 모두가 눈가에 눈물이 그렇하니 고이였다.

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가친척들을 대신하여 숙연히 머리숙이였다.

어머님께서는 로인의 손을 잡으시며 인사를 받으시였다.

그바람에 어머님께서 들고계시던 보자기에서 벼 이삭이 땅에 흘러내렸다. 이젠 별수없게 되였다. 어머님께서는 방긋이 웃음지으며 허리를 숙여 벼이삭을 주어드시였다. 눈들이 어머니의 손길을 따랐다. 어머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시였다.

《…?!》

모두 의아한 표정이였다.

《로인님, 오다가 저… 논에서 주은 벼이삭이예요. 누군가 날라올 때 떨어졌 갈더군요.》

《아니, 벼이삭이라니?!》

황망히 벼이삭을 받아드는 로인의 손은 경련이 인듯 부들부들 떨렸다. 차돌처럼 여문 벼알들이 로인을 뻘뻘 울려다보는것만 같았다.

로인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회오의 바람이 일었다.

한줌도 되나마나한 벼! 이것은 풍작 이룬 자기네 낱알더미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것이였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몇천 몇만섬의 낱알무게로 느끼시며 소중한 여기시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농군인 자기는 논밭에 널린 벼이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한알의 낱알의 무게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들이 모두 허실없이 밥상우에 놓이게 하시려고 어머님께서 예까지 들고오셨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벼이삭을 받은 로인의 손바닥우에 무엇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로인은 젖은 눈길을 들어 어머니를 우려했다.

옅은 저녁노을이 어린 어머니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답고 유순하고 인정미 넘쳐보이였다.

로인은 갑자기 꺾이우듯 허리를 굽히며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저는 농사군의 자격이 없소이다. 한생을 땅에 명줄을 걸고 살면서도 낱알을 중히 여길줄 몰랐소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로인님, 그저 지나다 눈에 띄워서 가져온겁니다.》

어머님께서는 범상하신틀 로인의 웅이진 손을 따뜻이 쓸어주시며 인정미 흐르는 웃음을 지으시

였다.

그이께서는 웅색해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신랑에 대해서도 들으시고 잔치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잔치상을 좀 보자고 하시였다.

《?!》

유근성로인은 당황하여 어쩔줄 몰랐다.

(낱알 귀한줄도 모르면서 상만 요란히 차렸으니 어머님께 무슨 낱으로 그것을 보여드린담.)

로인은 어머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옷방문을 열어드리면서도 내내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였다. 눈앞에서는 어머님께서 들고오신 벼이삭이 그냥 얼른거린다.

옷방으로 들어가신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띄우시고 잔치상을 살펴보시였다. 그리 요란하지는 않아도 있을것은 다 있는것 같다. 통닭이며 큼직한 사파며 밤, 대추, 절편, 송편 등이 보기 좋게 놓여있었고 벽에는 제법 화려한 병풍까지 둘러쳤다. 게다가 한쪽옆에는 큰 거울이며 술이며 금강산을 그린 풍경화 등 살림에 쓰일 물건들이 가득했다.

어머님께서는 그것이 더 기쁘시였다. 그저 흥청하게 차리기만 한것이 아니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담하게 장만한것이다.

그이께서는 낱알이 늘어나는 우리 인민의 윤택한 생활모습을 유근성로인의 집에서 보는듯한 기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거울을 만져보시며 로인에게 미소를 담으시고 말씀하시였다.

《거울도 크고 좋은걸 마련했군요. 이 술이랑…》

《예. 이웃들이 글썽 제 딸 잔치를 축하한다면 서 하나씩 들고온것이 이렇게 한살림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잔치도 잘 차리고 잘 살게하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싸우신거예요.

장군님께서 이 잔치상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기쁩니다.》

그때에야 굳어졌던 로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머님께서 기뻐하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정말 고맙기 그지없었다. 코마루가 쨍해오며 눈곱이 뜨거워났다. 로인에게 있어서 오늘은 기쁜 날이면서도 눈물도 많은 날이었다.

어머님의 그 미소, 그 자애깊으신 모습을 마주하는 진옥의 눈앞에는 순간 잊지 못할 화폭이 또 떠올랐다.

찬장에 당실하니 놓였던 밥그릇, 잡곡밥… 진옥이의 눈전에 맺혔던 맑은 이슬은 밧그레 달아오른 그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진옥이도 잘 보아두세요. 네 호…》

젖어든 가슴을 봄벌처럼 덥혀주시는 어머님의 맑은 웃음소리에 눈물로 아롱진 진옥이의 얼굴에도 방긋이 웃음이 떠올랐다. 진옥이는 눈물을 닦을념도 않고 어머님을 우러렸다.

기쁨과 만족으로 밝게 웃으시는 어머님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붉은 노을이 한껏 어려있었다.

5

가을이 왔다. 1949년의 풍년가을이다. 산에도 들에도 머리숙인 누런 황금이삭이 싱그러운 가을바람에 흐늘흐늘 춤을 추는 대풍년이 왔다.

산굽이를 돌아 아득히 뻗은 새로 닦은 큰길로는 집채같은 벼단을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늘어섰는데 이마전에 붉은 꽃을 단 누런 황소들도 알랑질랑 소방울을 절주있게 울려대며 《평년타령》에 성수난 주인들의 흥취를 한껏 돋군다.

《천수답》기슭에 아늑히 자리잡은 호수가에선 오늘도 물장단에 시간가는줄 모르는 마을의 꼬무래기들이 까맣게들 탄 잔등에 모래짐들을 담뱃둘러쓰고는 처절석 물속에 뛰어들어 자맥질을 해댄다.

떼지어 푸른 수풀속을 떠다니는 양떼들도 무르익은 가을 풍치에 취했는지 잔디밭에 허리를 쭉 펴고 엎드려 푸른 잠뱅이를 입은 초목동충각의 피리소리에 귀기울인다.

부르릉 부르릉 용을 쓰는 자동차에 빨강게 익은 사과들을 담아내고 도시로 떠나는 운전사총각의 희떠운 인사에 익살스런 웃음으로 화답하는 파수원처녀들의 경쾌한 웃음소리는 풍년든 산야에 멀리멀리 울려퍼진다.

《참 좋은 때지. 내 평생에 이런복을 받았으니.》

근성로인은 입에 물었던 담배물주리를 신바닥에 툭툭 털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는 옆에 놓인 초모자를 머리에 꼭 눌러쓰고는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와와.》

소를 멈추는 소리에 뒤이어 벼단을 산더미처럼 실은 소달구지가 소방울소리를 왕랑질랑 울리며 근성로인이 있는 버드나무옆에 와 섰다.

《아버지. 오늘도 안오시나봐요. 인젠 들어갑시다.》

《허 그녀석, 일이나 정신담을것이지... 빨리 가거라... 자식 음.》

근성로인은 짐짓 위엄있는 얼굴을 짓더니 큰 기침을 짓으며 재촉한다. 그바람에 사위인 철수는 허를 쭉 내밀었다가 들이고는 《이랴, 쪼쪼》하고 혀차는 소리를 내며 달구지를 몰아갔다.

달구지소리와 함께 철수의 구성진 흥타령이 풍년든 벌판으로 메아리쳐갔다.

근성로인은 대견한듯 빙그레 웃는다. 소 한마리든적 없던 그의 집뜨락에 해방된 이듬해에 저렇듯 누런 황소를 몰아 외양간에 들어세우던 날

근성로인은 실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머금었던가... 생각할수록 그 은혜 그 사랑에 목이 메여올라 근성로인은 붉어오르는 눈전을 썩썩 문지르고 또 고개길을 바라보았다.

(아니, 언제나 오시려나. 이렇게 대풍이 들었는데...)

근성로인은 만민이 환락에 넘친 이 풍년가을에 어머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동구길로 들어서실것만 같았다. 농사도 풍년이겠다, 마을도 번듯하겠다, 신작로도 깨끗하겠다, 이쯤하면 장군님과 어머님을 제고장에 모셔도 부끄러울것 같지 않았다.

로인은 어느 하루도 어머님께서 떠나시며 하시던 말씀을 잊은적이 없었다.

《아버님,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세요. 벌이 익고 황금과도 물결칠 때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이랑 마을사람들이 더 잘살터인데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로인은 하루에도 몇번씩 동구길까지 나가 평양과 잇닿은 길목을 이렇게 지켜보곤했다.

그러다 기다리기에 지쳐서 어둠이 깃든 동구박길을 스적스적 걸어들어올 때마다 그는 또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님께서 가셔야 할 길, 해야할 일 그 얼마이시기에 그리 쉬오실수 있으랴. 차라리 자기가 지은 곡식을 위대한 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께 가져다 보여드리는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것도 당치않는 생각같았다.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져간다 해도 고작해야 쌀몇되밖밖에 질수 없는데 저 많은 쌀단가리는 어찌 보여드리며 또 저 출렁이는 호수는 어찌 보여드리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양수장을 만들고 물을 끌어올려 호수까지 만들었으니 물없이 고생하던 천수답에 알알이 터지게 여문 벼이삭이 저렇듯 머리숙이여 일렁대지 않는가! 어머님께서 다녀오시던 그 고개길을 바라보며...

마치도 이 만풍년을 안겨주신 김정숙어머님을 기다리는 로인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아니 이 나라 농민들의 소원을 담았는지... 걸을 때마다 종다리를 툭툭 치는 묵직한 벼이삭을 어루쓰담는 로인은 제혼자 타이르듯 말한다.

《여 이것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내사 다 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 마음은 오죽한줄 아느냐... 꼭 오실것이다. 너희들을 보러 꼭 오실것이 란말이다.》

그 말에 대답하는듯 벼이삭들은 췌 하고 잔물결을 일으킨다.

《저 로인님.》

자기를 찾는 소리에 로인은 우뚝 걸음을 멈췄다. 두어걸음 앞에 웬 처녀가 숨을 킁으며 서있

었다.

《아, 아버님이시군요! 그간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시우. 어머님과 함께 오셨던...》

로인은 진옥의 손을 덥석 잡으며 기뻐 어쩔 줄을 몰라했다. 진옥이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진옥의 얼굴은 온통 땀발이 내배였다. 무슨 급한 일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델 이렇게 급히...》

《아버님 기뻐하세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이 도일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계십니다. 곧 월석리에도 들리실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진옥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로인은 조금히 묻는다.

《아니 장군님께서? 정말 장군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신단말이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함께 오시겠구만...》

희색이 반면해진 로인의 눈이 대번에 빛났다.

《그럼 그럴겠지. 작년에도 오시었던 어머님께서 올해엔 장군님과 함께 풍년벌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어서 나는 이렇게 매일 벌에서 살고있소다.》

진옥은 그 무엇인가 안타까운 사연을 목새기듯 마른침만 삼켜가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어머님께서도 방금 할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이께서는 위대한수령님께서 월석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저더러 먼저 와 일러주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이 어머님과 하신 약속대로 벌에 있겠으니 혹시 장군님을 뵈옵지 못할가봐 빠짐없이 이르라고 ...》

진옥이는 끝내 흐느끼고야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자기를 떠나보내던 어머님의 그 모습이 어려왔던것이다. 중한 병석에 누워계시면서도 그 다감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시던 어머님께서 진옥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간절히 속삭이던 그 말씀.

《...진옥이 내가 가지 못하여 그 로인이라 썩 섭섭해하신테니 잘 말해주요. 오늘은 일이 좀 ... 아니 오늘은 못가지만 다음부터 풍년든 가을마다 꼭 찾아가겠다고... 이 정숙이는 그들과 함께 벼가을도 하고 그 낱알의 향기도 함께...》

어머님께서 고추타래 빨강게 익은 월석리를 눈앞에 그리시는데 황금파도 물결치는 《천수담》을 보시는데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방긋이 웃으시었다.

《그리고 장군님을 만나뵈게 되면 제가 앓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꼭 약속하지요. 장군님께서 그 풍년벌을 마음껏 돌아보시고 기뻐하시게...》

아! 김정숙동지.

간고한 혁명투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찬로숙의 기나긴 나날에 어혈진 병세가 도지면서 생명을 위협하고있는 각 순간에조차...

진옥이는 줄터진 구슬마냥 떨어지는 눈물을 닦

을념도 못하고 억센 로인의 두손을 잡은채 흐느꼈다.

《아니 웬일이오다. 혹시 어머님께서 못오시는게 아니요? 엉?...》

《아니, 아니예요. 어머님께선 꼭 오세요. 어머님께선 꼭 로인님을 찾아오실거예요. 그이께서는 꼭 풍년벌에 오실거예요.》

진옥이의 그 말소리에 벼이삭들도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며 고개길을 향해 설레인다.

《암, 그래야지요. 여부가 있나요.》

아참, 월석리에 대동운이 났소다. 풍년벌에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님을 모시게 됐으니.》

로인은 너무 기뻐 채수염을 하늘에 날리며 두팔을 벌리고 빙 돌았다. 금방이라도 춤 출 기세다. 갑자기 벌한가운데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벼가을을 하던 농민들이 두손을 버쩍 머리에 올리고 저쪽으로 와 밀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진옥이도, 근성로인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월석리에 오셨음을 깨닫고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때를 기다린듯 살쾅 벼메뚜기들이 벼대를 건너차며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고 토실토실해진 청제비들이 벌판을 가로세로 썰며 연신 지지배배 지지배배 읊조린다. 청명한 하늘아래 오곡이 물결치는 들판을 누비며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포전길로 들어오는것이 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차에서 내리시었다.

그러자 아이 어른 할것없이 온 동네가 위대한 장군님께로 몰밀듯이 밀려갔다.

《만세! 만세!》

순간에 위대한 장군님과 농민들이 한데 뭉쳐졌다.

진옥이의 가슴은 격동으로 들끓었다.

(아, 김정숙동지, 바로 저 순간을 안아오시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 보십니까, 저 장엄한 모습을! 산천초목도 기쁨에 흐느끼는데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못오십니까... 아니 어머님께선 바로 이자리에 계십니다. 저 감격의 눈물 짓는 농민들속에, 햇빛보다 밝은 웃음을 띄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몸가까이에 저 기쁨안고 출렁이는 풍년이삭들의 파도속에, 어머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싱그러운 가을, 풍년든 9월의 벌은 또 한번 굵니며 파도친다. 바람에 구수한 낱알의 향기가 가슴벌게 풍겨온다.

진옥이는 조용히 속삭인다.

아, 벌이여 벌이여
풍년든 조선의 벌이여
해마다 9월이 오면
잊지 말고 날리어라
너의 그 짙은 향기를
우리 김정숙동지께서
안아오신 사랑의 향기,
특유한 낱알의 향기를!

온천골에 비친 해발

림종근

끝없는 길

물도 굽이 끝도 굽이
양덕이라 대탕지
온천골로 가는 길은
멀지 않은 절승의 시오리

황홀경의 굽이마다
어머니의 뜨거운 숨결 어려있어
폐사로이 걸을수 없는 이 길
그 뉘가 한낫길이라 했던가
이른아침 떠났는데
아직도 초엽이네

하늘중천에서 웃는 해를 바라보며
서둘러 발걸음 옮겨가니
츠렁츠렁 바위우에 떨어진 진달래는
항일의 이야기 들려주시며
마을너인들 이끄시고 저기 오르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미소런가

뜨거워 가슴뜨거워
옷깃 여미며 머리 숙이니
소리치며 발밑에 감도는 옥같은 물
아, 그우에 어리어있구나
너인들의 빨래손 도우시며
장군님 뜻 심어주시던 어머니 모습

한떨기 꽃에도 흐르는 내물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깃들어있어
쉬이 발걸음 옮길수 없거니
언제 불가 그네터는
언제 들을가 샘물터의 이야기는,

아, 장군님의 건국의 뜻 받들고
온천골을 찾아오신 김정숙어머니
순간인들 자신의 한몸 돌보셨던가
언제나 마을너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새조선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셨나니

보채지 말아
어서 가자 부르는 꽃바람아
발길 달고 눈길 닿는
굽이굽이 그 어디나 어려있는
어머니의 이야기
어찌 한번 듣는것으로야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온천골 시오리는
뜨거운 감격의 시오리
어머니의 높으신 뜻 가슴에 새기며
세월을 이어 걷고걸어도 못다 걸을
아 끝없는 시오리

사격터에서

높으신 사격술에 감탄만 해왔네
삼일포의 사격터를 보면서도
신비한 사격술에 머리만 숙여왔네
지울리에 올리신 총성을 생각하면서도

허나 온천골 사격터에 이르니
가슴치며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

어찌하여 어머니 가시는곳마다에서
백발백중의 총성을 울리시였을가

아, 혁명의 총을 들고 찾은 행복
총없이 지킬수도 누릴수도 없기에
어머니는 총을 쓰시였네
사람들에게 총쏘는 법 배워주시였네

선바위

푸르른 소나무 머리에 이고
하늘가에 층층 치솟은 선바위
어머니 절승이라 치하하시며
너인들과 기념사진 찍으신 선바위

비바람에 주위의 모든것 다 변했어도
선바위는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 서있네
어머니 모시였던 영광 길이 전하려
어머니 보아주신 제모습 달리할수 없어

무명날이 좋구 좋네

앞산 뒤산에 진달래 동백꽃 피어
온천골은 꽃향기 꽃천지구요
우물집마당에선 웃음소리 짜그르르
어머니 모시고 무명날이하는 너인들
무슨 일로 그리도 흥이 났는가

불땀 은근한 겨불무지우에
실실이 무명실 줄줄이 늘어놓고
오리오리 끌고루 풀을 먹이시는
어머니의 알뜰한 그 일솜씨에
처녀들 얼을 잃고 멍청하니 섰는데

어머니는 환히 웃으시며
이 무명 어서 낱아 조국방선 지켜선
이쁜이, 굽단이 랑군에게 보내자 하시니
그러자며 그러자며 웃어대는 너인들
웃음속에 곱게 곱게 매여지는 무명실

무명실만 줄줄이 매여지는가
바람찬 회령집에서 언손 불며 익히시고
불길솃는 부암동에서 원쑤치며 다지신

어머니의 그 솜씨 따르고따르니
너인들 마음도 어머니의 뜻으로 불타네

아무렴 한뜻으로 불타네
마음 합쳐 매고맨 씨실과 날실
이제 베틀에 올려놓고 짚짚
북바디 정답게 울리면
갈래갈래 무명실이
필필이 하나의 무명필 되듯이

장군님 두리에 온 마을이 뭉치고
장군님 이끄시는 새 조국건설
세상에 찬란히 꽃피어나리니
에헤라 보패야 얄전아
너희들도 떨쳐나와 애국무명 어서 낱자

에헤- 밤도와 잉잉 뽑은 실 풀고풀어라
정들여 매고맨 실 감고감아라
온 마을너인들 김정숙어머니 따라
충성의 한마음 키우고 다져가는
무명날이 좋구 좋네

기다리는 마음

술술너머 양덕읍에서
려객렬차의 기적소리 울리어와도
스스로 큰길쪽으로 향하는 눈길
다시 오겠다시며 떠나신 어머니
혹시 오시지나 않으시려나

산에 산에 진달래 붉게 피어도
력사의 그 봄에 남기신 뜨거운 추억
못견디게 못견디게 떠오르며
다음해 봄에 꼭 오겠다신 어머니

혹시 오시지 않으려나?

헤여지기 떨어지기 아쉬워
손저으며 따라서며 감격의 눈물짓는
너인들을 달래며 웃으시던 어머니
아, 기다려지는, 기다려지는 마음

심심산촌의 길디길은 온천골을
장군님의 한뜻으로 숨쉬게 하시고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가도

식지 않을 뜨거운 정을 남기신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날이 갈수록 더더욱 생각나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뵈옵고싶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지는 마음 막을수 없고

쫓구치는 그리움 녹찾힐수 없네
아, 언제나, 언제나 오시려나
어제도 오늘도 우러러 기다리며
온천골 인민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네
대량지마을은 어머니와 함께 있네

나에게도 노래가 있다

김창걸

나에게도 노래가 있다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용해공의 불같은 노래가

잡소리 소란하던 그 시절에
유독 우리 심장을 틀어잡았던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믿음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깊어져

내 서른해를 두고 쇠물을 끓이며
이 노래의 마디마디를 버리었노라
그날에 미처 다 몰랐던 사랑
새길수록 가슴뜨거워
크나큰 믿음 처음으로 받아안던
그 나날 더듬으며 노래부르나니

기억한다
색날은 병사배낭 하나 멘채
불을 갓 지핀 로앞에 섰을제
채 가리우지 못한 용해장지붕으로
내리는 눈이 그대로 날아들던것을
1956년 그해의 첫눈을

아마도 그래서 뎀팽이들
안팎에서 머리를 들었던것이리
그래서 꺼리낌없이 췌했던것이리
철과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우리의 전망은 환상이라고

만톤의 강재가 그리워
조국이 허리를 못퍼던 그 시절
숫눈길 헤치며
수령님 모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난로불 어수선한 창고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불려일으켜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목메여 울리는 우리의 만세속에서
계급의 대답을 헤아려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우리를 믿어의심치 않았거니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말씀올렸더라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주산 과업을 꼭 해낸다고

하여 우리 비록
눈에 익고 손에 선것 많았어도
세상을 한눈에 쭈욱 굽어보며
쇠장대를 내리치며 웨쳤다
-야 종파새끼들아
썩 나서라 모조리 쇠물속에 처넣을테다!

아아, 것처럼 어려운 나날에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이끌어주며
걸음걸음 손잡아준
위대한 믿음이어

위대한 믿음은
뜨거운 의리를 낳는다
그 고난찬 세월에
우리 마음속을 속속들이 알아주었듯이
그 믿음은 우리의 심장속에
피처럼 소중커니

하여 언제나 우리
끓은 피줄 두드러진 계급의 이 손으로
쇠물을 휘저어 강철을 붓나니
한번 부어 끄덕없는 쇠기둥처럼
영원한 신념의 기둥을 쌓으며

그때문인지 나의 노래는
열도를 올릴수록
쇠물처럼 뜨겁고 묵직한것인가
위대한 우리의 단결속에
위대한 그 믿음이 소중하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나의 심장속에
쇠물처럼 사뭇쳐 끓는것이여라

추녀아래 높이 건 구호

박희구

너무나 수수한 도구들이다
마치, 줄갑, 불집게...
새세대들은 보고도 모를 도구들이다
풀무, 통나무에 박은 도끼 등모루...

허나 가장 준엄한 수난의 세월
우리 혁명의 손에 쥐여졌던 첫 공구들
이것으로 어떻게 마련되었던가
항일대전의 무장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뜨거운 숨결 불어넣는 풀무질에
달아오른 화독안의 쇠조박들
그것도 목숨으로 바뀐것이어서
그처럼 피같이 불타더란다

때로는 적의 포위속에 들어도
총과 함께
놓지 않은 마치고소리
그것도 원썬격멸의 총성이 되어
밀림속에 높이 울려갔더란다

열백번의 실패속에도
주저할줄 모르던 불같은 심장들
지혜와 열정 한데 모아
만들어냈어라
풀과 나무만이 있는곳에서
《연길폭탄》과 총을...

보고 또 보아도
너무나 평범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숭엄한 생각 안겨주는
력사의 진렬대우에 영원히 빛날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들이다

력사앞에
자력갱생의 무기로 남아...
세대에 이어주는 선서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필생의 철리로
여기 병기창의 추녀아래 높이 건 구호여!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땀을 내린다 외 1 편

김정철

땀을 내리자 배들아
우리 저마다 국적은 달라도
항행의 목적지는 똑같은
여기가 주체의 조국-조선

아, 얼마나 허구한 세월
인류가 찾던 희망의 해안이나
한쪽의 뚝쪼각에 운명을 걸고
기슭을 떠나던
조상들의 머나먼 아침부터

때로는 조난당한 배우에서
간절한 희망을 모아
저 산굽이만 돌아가면
기다리던 그 해안이 있으리라
하늘을 향해
빌어도 보았고

그러나 바라던 그 해안은
대륙의 진귀한 상아와 함께
팔려가는 노예의 신음높던
원한의 해안

노예해안

진정 어디에 있었던가
배부른자들에게
끝없는 사치와 허용을 채워주던
그럴 황금의 해안은 있었으되-

그래서 이승에서 찾지 못한 그 해안
배길이 닿지 못하는
저 하늘의 천당에서 찾았던가

내 지금 그 해안에 들어서나니
조상들이여
굳고굳은 지각의 화석에서 깨여
그대의 자손앞에 펼쳐진 세계를 보라

아 해와 별이 지지 않는
희망의 해안
해와 별이 언제나 빛나
시대의 하늘가에 빛을 뿌리는
영원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땀을 내리노라
내 인생의 향로우에

아직 한번도 내린적없는
마음의 땀을 여기에 내리노라

장령과의 담화

내앞에 장령이 서있습니다
희속한 귀밑머리 해풍에 날리며
방금 간석지를 걸어온듯
감탕에 발린 장화를 신고

수만장병들 휘하에 거느린
한 부대의 사령관이였다는
지금은
간석지건설을 책임진 장령

얼마나 빛나는 복무의 나날이
저 이마아래 흘렸겠습니까
이제는 예순도 훨씬 지났으니
일하기가 힘들게란 내 말에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나야 군인이 아니요
대자연과의 이 전투도
나는 명령으로 받아안았소

다만 너무 늦어졌소
백두의 우등불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십해
두 제국주의와 큰 싸움 치러야 했으니까

하지만 보시오
아득히 드러나는 저 땅을
전쟁때는 한치의 땅을 위해
군단이 피를 흘렸소만...
내 저 수평선을 지평선으로 바꾸려오-

과도는 철썩이고
해연은 하늘높이 내려쳐오르는데
희속한 귀밑머리 날리며
거인처럼 걸어가는 장령

나는 우려했습니다
군인-건설자
얼마나 새로운 의미를 안고
이 말이 내 가슴쳐오는것입니까

나는 심장에 새깁니다
조국의 수호자로
창조의 건설자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을 행복으로 쟁취한 사람들
이 군인건설자들을

담장

김영길

하늘도 가신듯 맑은 아침
순찰길에서 돌아오던 두 병사
산기슭에 오붓한 분계선마을
대추꽃 핀 농가집앞에서 걸음 멈추었네

간밤 사나운 폭우에
태풍까지 휘몰아쳐
몽청 한모서리 무너져내린 담장
이른아침 들일 나간 주인들을 대신하여
약속한듯 팔소매 걷어올렸네

어린시절 즐겁게 뛰놀던
정든 고향집을 생각하며 한돌기...

배낭메고 초소로 떠나올 때
정답게 바래주던 얼굴들을 그려보며 또 한돌기...

아담하게 담장을 다시 둘러쌓고
발걸음 가벼이 돌아가는 두 병사
초소에서 한밤을 지새운 그 피곤
인민을 아끼고 도운 기쁨속에 풀었네

아아-
간곡한 우리 당의 그 뜻 새겨안아
한 농가의 울담이 되는 그 마음들이
방선천리에 이어져
나라의 큰 성새로 높이 솟아있어라

수재의 어머니

류수경

예로부터 우리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고.

옛적 우리 나라 서예가로 이름난 한석봉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비로 그 실례의 하나이다.

3년간의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반가운 심정을 누르며 글공부한 정형부터 살펴보았다. 방의 불을 끄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글을 써었다. 그리고 자신은 떡을 썰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썬 떡은 놀라울 정도로 고르고 곱게 썰리었으나 아들이 쓴 글은 그렇지 못했다. 하여 즉석에서 아들을 되돌려보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석봉의 어머니인들 어찌 하루밤 묵으면서 아들과 정을 나누고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아는 조선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들들을 키웠다.

세상에는 어머니 없는 아들이 없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지만 그 기울이는 정성과 노력은 같지 않다.

하기에 어디서 인제가 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례히 그를 품어 키운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 대하여, 그 수고에 대하여 먼저 헤아려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해안도시에서 태어난 서예가로 이미 알려진 김하경학생, 나는 수재로 소문난 하경학생의 어머니를 취재하기 위하여 평강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밖에 달리는 대지에 어느덧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손님들로 붐비던 기차칸에도 점차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깥풍경에 정신을 팔던 사람들도 하나 둘 몸방향을 바꾸더니 이젠 여담으로 넘어가려는가싶었다.

전국의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곳이 열차칸이다. 직장, 직위, 나이, 성별이 다 다르고 성격과 취미 또한 다르다. 이런 때 이런 장소에서는 누가 말머리를 떼는데 따라 이야기가 흘러가기마련이다.

내가 지그시 눈을 감고 듣노라니 누가 요즘 있는 아세아빙상경기대회에서 이름을 떨친 나 어린 휘저선수들에 대한 말을 꺼내자 편이이 이름을 떨친 체육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필름 풀리듯이 흘러나왔다. 이어 유치원때 고등수학을 풀었다는 이야기, 세살난 미술가에 대한 이야기... 수재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이나 벽적 뚫더니 어느덧 화제는 수재를 키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좋은 교양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사람들은 꽃을 가꾼 원예사의 노력을 헤아려보듯이 훌륭한 사람의 뒤에 있을 어머니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나의 취재의 걸음도 수재의 어머니를 만나자고 옮겨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내가 만날 주인공-수재의 어머니에 대하여 여러모로 상상해보게 되었다.

취재의 목적도 목적이라니와 나도 녀성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만큼 그런 의미에서도 들을 이야기가 있으리란 기대도 컸다.

역홈에서 나오자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바삐 서둘렀다. 나도 호기심의 문을 두드리놓은 수재의 어머니를 찾아 그달음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한것은 노을이 붉게 비낀 저녁녘이었다.

만나야 할 주인공은 흔히 보는 수수한 녀인이었다.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녀인은 찾아온 목적을 짐작한듯 어서 들어오라고 하며 반가와했다.

《하경이의 어머니십니까?》 나는 우선 내가 찾아온 주인공을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물었다.

그의 안내로 방안에 들어선 나는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그런데 뭐 별로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했으나 그의 얼굴엔 기쁨과 긍지의 자욱이 력력히 엮혀있었다.

취재의 대상을 만나면 이렇게 시작되는 일이 일쑤이므로 주동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야 함을 자각하고 나는 물었다.

《그런 재능을 엿보이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언제쯤입니까?》

《글쎄...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유치원때도 그 애선생은 개가 글씨를 곱게 쓴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될줄은 어머니인 나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 녀인은 얼굴을 살짝 붉히고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 애가 유치원으로부터 인민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어디 선생님들뿐입니까...》

하며 하경이 어머니는 곳곳에서 온 편지들이며 귀중한 책자들과 붓들을 하나하나 내놓았다.

그속에는 하경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그것을 보고 벽촌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보내온 편지도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할말이 없어하던 그가 말쑥지를 뵈면 다음에는 자기 자랑인줄도 모르고 말이 흘러나왔다.

(대를 물려 내려오는 벼루와 붓까지 보내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무드기 쌓여있는 책자들을 내려다보던 나는 알지 못할 감동이 가슴에 짝 차올랐다.

그러는 나의 눈앞에는 언젠가 신문에서 본 한 남조선 어린이에 대한 토막기사가 떠올랐다.

...어느 마을에 수재로 소문난 나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나 어려서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수재로 소문난 이 소년이 행방불명이 된채로 종내 그를 찾을수가 없었다.

시간이 펴 지난 어느날 마을의 학교천정에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소년은 책을 벤채로 누워 굶어죽었다는것이 알려졌다. 기막힌 사연의 기사였다.

얼마나 공부하고싶었으면, 얼마나 선생의 목소리가 그리웠으면 학교천정에서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책을 베고 죽었겠는가.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소년, 그토록 배우고싶

고 그토록 학교에 가기를 열망하던 그 소년, 그러나 그의 재능은 결국 비참히 스러져버렸다.

날아키운 어머니는 그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재능은 이처럼 무참히 짓밟혔고 소년은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가?...

착잡한 생각에 잠긴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던 하경의 어머니는 감격에 젖어 말하였다.

《개가 수재라면 거야 모두 나라의 혜택이지요. 내야 낳았다뿐이지 나라에서 다 키운걸요...》

녀인의 소박한 말마디가 깊은 의미를 담고 귀전에 울려왔다.

(나라에서 그 애를 키워주었다.)

아! 이 얼마나 진정에 넘친 우리모두의 심정인가. 실로 우리의 이 위대한 조국의 품이 없었던들 그의 운명도 바로 그 남녘의 나 어린 수재의 운명과 무엇이 다를바가 있으랴.

수천수만의 애 어린 짝을 따사로이 안아 수재로, 영웅으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조국, 조국은 진정 우리모두의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 조국, 바로 이 위대한 조국의 품이 있었기에 외진 산골의 이름없던 소녀가 혁명영화의 주인공으로, 인민배우로 자라나고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이 세계 음악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연주자로, 지휘자로 자라났으며 또 수없이 태어나는 숨은 영웅들의 대오...

오늘은 수수한 이 녀인의 자식이 수재로 만방에 이름을 날리지 않는가.

조국은 얼마나 많은 수재와 영웅을 키웠던가. 꼽으려면 실로 끝이 없다.

한 아들을 훌륭히 키운 석봉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못사람들의 이야기속에 전해지고있거늘 수천수만의 수재와 영웅을 키운 어머니조국의 그 위대함은 무엇에 비겨 말할것인가.

...하여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자라난 수재와 영웅들은 오늘 조국을 튼튼히 떠받들고 조국의 이름을 빛내이는것이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어머니조국, 그 품에서 수재와 영웅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씩씩하게 자라날것이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영웅조선, 우리 인민을 지혜로운 인민이라 일컫지 않는가!!

고려청자기

정연진

우리 역사박물관에는 국보적가치를 띤 유명한 고려청자가 있다. 불수록 아름답고 못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 청자기는 고려자기가운데서도 최대결작품으로 널리 알려지고있다.

색과 모양이 비길데없이 정교하고 무늬 또한 특출하여 생동하기 그지없다.

박물관 연구사인 나는 며칠전에 고려자기의 특성을 밝히는 소론문을 써달라는 어느 한 출판사의 청탁을 받은 일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소론문집필에 앞서 우리 박물관의 귀물이며 국가의 재보인 포도무늬박이 고려청자기(조롱박형태의 주전자)에 깃든 이야기》더 정확히 말하면 해방후 한 젊은 녀인이 우리 박물관에 이 청자기와 함께 가지고온 그의 남편이 쓴 수기와 편지를 정리하여 내겠다고 했다.

편집부는 나의 의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조국이 없던 그 수난의 시기 한 젊은 고고학도가 이역에서 체험한 생활을 될수록 여기에 그대로 적으려고 한다.

1

교포는 혼슈의 내륙지방에서 제일 크다는 도시이다.

조상의 유골이 묻힌 그리운 고향을 눈물로 하직하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우리 가족은 교포에 정착하여 근 20여년을 살았다.

우리가 교포에 자리잡게 된것은 단지 일본의 옛 수도로서 교적이 많고 미술공예품의 산지라는 데서였다.

워낙 고고학에 뜻을 둔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나마 학문을 터득하려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소박한 꿈마저 이루지 못한채 한갓 골동상으로 고달픈 인생을 마쳤다.

명색이 사립대학의 동방고고학부를 나왔다고 하지만 나 역시 아버지처럼 골동상의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그런데 근심과 시름에 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뜻밖의 행운이 차려졌다.

종전에 말이 있는 취직문제가 해결된것이였다. 그것도 보통일자리가 아니라 역사유물을 적지 않게 보존하고있는 교포민예관 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실은 평시의 소원이 성취된셈이였다.

민예관 관장 가루베는 내가 존경하는 일본사람이였다.

한것은 오랜적부터 아버지와 교제가 있는 우리 집의 단골손님이었다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 조

선문화유물에 조예가 깊고 고고학의 권위자로 명망높은 학자이기때문이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일루의 희망이 봄아지랑이처럼 아롱지게 피어올랐다.

이름있는 고고학자 밑에서 한 이삼년 굴러나면 지식과 재능이 늘것 같기도 했고 어쩌다 신수가 트이게 되면 조선경내에 들어가 고고학적발굴을 할것 같은 희떠운 마음도 노상 없지 않았었다.

나는 민예관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다녔다. 마치 그 3층벽돌집이 청춘의 정열을 끓게 하는 그 무슨 지점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구질구질 찬비내리는 마가을 저녁이였다.

《파르릉》 하고 귀청을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나는 펜을 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예, 관장선생이신가요. 제 리학봉입니다.》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내 방으로 오게.》

가루베는 민예관 관장이 고학식으로 보나 나이로보나 아버지벌 되는 사람이여서 존대와 하계로 통했다.

나는 서류를 책상뒤편에 대충 밀어넣고 문밖을 나섰다.

(무슨 급한 일일까?)

누구나 옷사람의 부름을 받을 때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려듯이 나도 그랬다.

요즈음 민예관 연구사들은 민예관설립 스무돛을 기념하여 열리게 되는 문화유물전시회 준비로 거의나 외지에 나가고 집안엔 몇명의 관원밖에 없었다. 이삼일째는 그들마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본사람도 아닌 조선사람에게 유물보충구입과 같은 중한 출장을 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이 지숙한 가루베이고 보면 혹시 말길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안고 2층층계를 묵묵히 오른 나는 손기척 소리를 내고 관장방에 들어섰다.

쪼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흰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닦으며 《아름다운》 공상에 잠겨있던 가루베는 나를 보자 여늬때없이 반가와하였다.

《리상 거게 앉으라구.》

나는 그가 권한 앞상의자에 조심히 앉았다.

가루베의 굳어진 얼굴에는 야릇한 웃음이 실려있었다.

나는 선망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작달막한 키에 가로퍼진 몸집이라던가 수시로 깜박이는 메밀눈은 번들이마와 교잔등우에 걸친 도수높은 안경과는 어텐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고명한 인사의 품격을 돋구는데 지장으로

되지는 않는듯했다.

《방안을 이렇게 꾸리니 어떨까?》

느닷없이 묻는 가루베의 말에 나는 그제야 관장방이 전과 다르다는것을 알았다.

고서들과 사전류들이 들어있던 두개의 장안에는 책대신 각종 유물들이 가득차있었다.

맞은편벽에도 못사람들의 눈을 끈 사꾸라동산의 풍경화대신 8층석탑을 그린 유화작품이 걸려있었다.

나는 관장방의 꾸림새를 보고도 지금 가루베가 이번 전시회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대뜸 짐작했다.

하긴 민예관설립 스무돛을 기념하여 열리는 전시회인데 보통전시회와 같을수 있는가. 교또는 물론 일본관도에 소문을 낼수 있지, 잡도리가 이럴진대 모름지기 굉장할것이다.

내가 미구하여 열리게 될 전시회의 훌륭한 전경을 그려보고있는데 가루베의 석심한 음성이 귀전을 쳤다.

《우리 민예관에 들어온지 언제던가?》

가루베는 정색한 눈매로 나를 쳐다보는것이였다.

나는 그가 왜 새삼스럽게 취직날자를 상기시키는지 미처 가늠해보지 못한채 나직이 대답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렇던가. 그러니 해수로 2년이지.》

가루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그의 의미심장한 모습에서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것 같은 감촉을 받았다. 그래 뒤말을 은근히 기다렸다.

《이 민예관에 발을 붙인셈이군,》

《제가 이제 가면 어쩔 가겠습니까!》

《하긴... 성미가 고정한 리상에게 여기가 제격이지.》

《...》

나는 가루베의 칭찬이 싫지 않았다.

그의 말처럼 나는 남을 업어넘기거나 리속을 채우는것과 같은 추한 일과는 담을 쌓고 제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였다.

관장이 나를 받아들인것은 물론 다른 리유도 있겠지만 이점을 많이 본것 같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내가 큰맘먹고 벌린 일인데...》

가루베는 무엇을 암시하듯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입을 열었다.

잠시 말없이 생각을 모으는듯 8층석탑의 웃초리에 눈총을 박고있던 가루베는 쓰파의 량쪽등에 손을 얹으며 자세를 바로가졌다. 그리고는 나직하나 무게가 실린 어조로 뒤말을 이었다.

《내 리상에게 큰일을 하나 시키려고 불렀소.》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분명 그런것이였구나. 이제사 리학봉이를 알아보는군.

《조선경내에 다녀올 생각은 없소?》

《예, 제가요?!》

예상보다 더 큰것이였다. 나는 저으기 놀라와 했다.

《그렇소. 실은 내가 다녀와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되네. 내 대신 리상을 보내기로 했소.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니 그리 알게.》

《...》

나는 고맙다는 표식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언제부터 우리 나라 고적들을 익히고싶은 절절한 생각을 품고있으면서도 연구사도 아닌 일반관원이 주재넘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을것 같아 한마디도 비치지 못하고 그냥 속에 묻어두고있던 자신이였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렇게 불시에 풀릴줄이야.

가루베는 벅찬 흥분에 싸여있는 내 심중의 목소리를 들은듯 우선우선한 어조로 말했다.

《조선에 건너가면 먼저 평양에 들려주게. 종로 거리에 팔동상을 하는 내 동생이 있소. 시바다라고 하면 장내가 다 알게요.》

그가 넘겨주는 귀물을 가지고오면 되오.》

《그게 뭔데요?》

나는 호기심이 앞서 다급히 물었다.

《알아야 조심을 하지. 조선의 유물인데 고려청자기라고 하는걸세.》

가루베는 입가에 벅글 웃음을 담고 말꾸리를 풀어놓았다.

《내 조선에서 교원노릇을 할 때 구해둔걸세. 조선에 머물러있는 5년동안에 2,000여기의 유적을 발굴했지만 그 고려청자기처럼 착상이 기발하고 형태가 진묘한것은 처음 보았네.》

생애의 절정을 장식하는데 쓰려고 20년간 간수해둔걸세. 이번에 그걸 전시한 다음 <천황>께 진상할 결심이네.》

가루베의 거뒀한 얼굴엔 불깃불깃 화색이 돌았다.

희열에 넘친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열띤 표정이였다.

관록있는 가루베관장이 하나의 유물을 두고 이처럼 흥분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

나는 《천황의 진상감》을 빨리 가보고싶은 충격을 받았다.

《민고 보내는 길이니 자그마한 실수도 없을줄 아네만 아무쪼록 각성있게 행동하길 바라네. 금번 전시회가 끝나면 리상의 처지에도 무슨 변동이 있어야지. 연구사의 직제에 한사람이 비였는데... 내 리상을 거기에 넣을 작정이네.》

가루베는 나를 던지시 건너다보며 입가에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사실 고고학을 지향하는 나에게 관원의 직제는 적합치 않았다. 무엇을 쥐고 탐구해내려면 연구사의 직분을 가져야만 하였다. 나는 이것을 모치

럼 바라고있었다. 내가 품고있는 이런 희망을 눈치챈 가루베는 이 중대사에 앞서 미리 귀뜸해주는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했던지 직제문제를 꺼내 놓는것이였다.

나는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조국땅을 밟는것만도 더없이 즐거운 일인데 갔다오면 연구사로 승격시켜준다니 이 얼마나 큰덕을 입는셈인가.

내 인생의 앞길에 이제 비로소 운이 트이는듯했다.

나는 관장이 당부한대로 이번 일을 착실히 실행하여 연구사의 자리에 틀고앉아 고고학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고 속다짐했다.

《앞으로 내 일을 조력해주게.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삼겠네. 그 고려청자기의 해설문도 리상이 써야 하겠네. 계룡산부근에서 발굴했는데 발굴경위는 차후에 알려주지 ... 떠날 때 잠깐 들렀다가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마주 들어서서 사람이 있었다.

《천황박물관》에서 온 구레나룻의 중년사나이였다.

나는 그에게 알릴듯말듯 목례를 해보이고는 친히 층계를 내렸다.

동뒤에서 몇마디 주고받는 소리가 귀전에 들렸다.

《리학봉군이 가네. 이번 진상드리는 일은 천황박물관의 고명한 어른께서 힘써주어야지. 고이즈미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없겠지. 옷사람을 잘 섬겨야 복이 차례지는 법이 아닌가.》

방안에서는 뒤따라 웃음이 터졌다.

거리엔 재빛어둠이 깃을 펴고있었다.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희미한 가로등빛은 고즈넉이 내리는 비발을 누비며 오가는 사람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점점이 굵어지는 비발이 어깨를 두들겼으나 나는 그에는 개의치 않고 호기있게 걸었다.

《비나 걷구오시지...》

앞에서 귀익은 정찬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리로 눈길을 던졌다.

안해 순영이가 우산을 들고 서있었다.

그는 받쳐든 우산으로 내 머리위의 비발을 막아주었다.

《집에 있지 왜 나왔소.》

나는 나무람하듯 가볍게 뇌였지만 이까지 마중나온 안해의 가룩한 마음이 대번에 헤아려져 약간 고맙지 않았다.

진일이 있거나 골치아픈 때에도 안해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안개걸린 산촌의 아침처럼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개운해지는것이였다.

그도 내 얼굴에 비낀 그늘과 밝음을 보고 근심

도 하고 기뻐도 했다.

금년봄에 어머니마저 저세상으로 보내고난 나에게 순영은 정말 행복과 안정을 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내 생의 전부였다.

나는 안해와 어깨를 같이하고 비내리는 저녁길을 걸었다. 우산등을 두들겨대는 비발도 이 순간만은 가락맞게 치는 장단소리처럼 귀맛 좋게 들리었다.

《여보, 당분간 적적해도 혼자있어야 할것 같소.》

나는 제흥에 겨워 밀도끌도 없이 뇌였다.

그러자 순영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델 다녀오게요?》

《어디 한번 맞춰보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담고 대답대신 이렇게 반문했다.

속에서 동심과도 같은 심리가 머리를 들었던것이다.

《당신도 룡을 할 때가 다 있어요. 그런걸보니아마 좋은곳인가보군요.》

순영은 웃음섞인 어조로 조용히 받아넘겼다.

《그렇소. 조선에 가오. 고향에도 둘러보고 좋은 구경도 하겠소.》

《구경을 많이하고 오세요.》

순영은 평소의 내 뜻을 알고있는터여서 몹시 기뻐했다.

우리는 각기 제 생각에 잠기여 묵묵히 걸었다.

이윽고 나는 안해에게 어제 있는 일을 대충 들려주고나서 이렇게 덧달았다.

《가루베관장이 나에 대한 관심이 큰것 같소. 다 아버지와 친교있는분이니 그렇겠지.》

《그런것 같애요. 아무래도 학자분이 달라요.》

순영이도 가루베의 선정을 잊지 않고 있는듯 기꺼이 응수했다.

가루베는 우리 아버지를 곤경에서 건져준 사람이였다.

내가 민예관에 취직하는 날 가루베는 나에게 옛날일을 회상시켜주었다.

《리상부친은 내가 살려주었소. 더러운 루명을 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경찰서를 드나든 사람은 가루베 나 하나뿐이었소.》

그것은 사실이였다.

나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기막힌 사실을 알고있었다.

...30여년전, 내 나이 열세살때였다.

우리 고향마을에서 중학교교원을 하던 가루베는 도자기를 생업으로 하고있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값진 도자기를 사가곤하였다.

발길이 잦아지자 아버지는 그를 손님으로 친절히 대해주었고 그 역시 아버지에게 각듯이 굴었다.

무더운 여름날 바깥마루에 앉아 땀을 들이던

가루베는 방안의 책상에 놓인 고려청자기를 보게 되었다.

가루베는 황홀경에 잠기며 고려청자기에서 좀처럼 눈길을 땔줄 몰라했다.

이 도자기점에 여러번 둘러 고가품을 주문도 하고 사기도 하였지만 아직 이처럼 희한한 귀물은 정말 처음본다는 놀라운 표정이었다.

열어졌던 창문으로 연연히 흘러드는 정오의 햇볕에 청자기는 눈이 부시게 고색찬연한 빛을 뿌리었다.

《저걸 왜 매점에 내놓지 않소?》

가루베의 묻는 말이었다.

《그건 상품이 아니요. 옛조상들이 물려준 가보요.》

《아하 그렇습니까.》

가루베는 리해가 간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

《저런 보물에는 필시 옛말이 따르는 법인데...》

《아니, 선생은 그런걸 어떻게 다 아시오?》

아버지는 자못 신통하다는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그런걸 좀 아는 사람이지요.》

《고고학자선생이군, 나 역시 그런데 흥미를 가지고있소.》

아버지는 동감의 뜻을 표하며 고려청자기에 깃든 사연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몇십대의 조상때라고 했다.

그즈음 싸움에 휘말려든 나라안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험난스러웠다. 매일같이 청장년들과 백성들이 화살에 맞아죽고 기아에 쓰러졌다.

세상은 갈수록 더 궁상스럽게 변해갔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마을사람들은 청자기에 앞산 바위썸의 웅달샘물을 담아 제상에 놓고 《하느님》께 절을 하면 소란스러운 세상도 평정해지고 쪼들린 살림도 편하다고 했다.

도자기기술에 능한 옛조상은 마을사람들의 념원대로 포도무늬박이청자기를 제조했다. 그는 그 자기에 백성의 깨끗한 마음과 고향산천의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끼도록 애썼다.

하나 고려청자기를 제상에 놓고 일년 삼백에순 닷새 교박 제를 지내어도 복은커녕 갖가지 불행이 덮쳐올뿐이었다...

《바로 이 유물에는 재난과 불행이 없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려는 선조들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는것이요. 내 조상들은 이걸 행복의 상징으로 여기고 대를 물려주었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난가루베는 진정한듯 매우 감탄해하였다.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의 가보를 정히 전사하시오.》

그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인 아버지는 책상위에 놓았던 고려청자기를 장안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났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이 들쭉 위졌다.

마을근방에서 유물《발굴》사업을 하고있던 일본《조선고적조사단》의 가시아란놈이 자기가 귀물로 여겨온 고려청자기를 도적맞혔다고 경찰에 도난계를 낸것이 물의를 일으켜 근방의 집들이 전부 가택수색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집도 예외로 될수 없었다.

이통에 장안에 간수한 고려청자가 경찰의 눈에 띄우게 되었는데 가시아란놈은 그것이 잃어버린 제물건이라고 했다는것이다. 도적이 매를 드는격이었다. 아버지는 대낮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물려받은 고려청자기를 빼앗기고 《도적죄》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다.

가루베의 주선으로 요행 며칠간 취조를 받고 나오긴 하였으나 고려청자기만은 찾지 못했다. 억울한 봉변을 당한 아버지는 치미는 분격을 삭이지 못해하며 자리에 누워 앓음소리를 냈다.

이듬해를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가족을 끌고 일본땅으로 건너갔다.

몇년후 아버지는 교토에서 가루베를 또 만나게 되었다.

2

나는 이틀만에 평양에 도착했다.

몇십년만에 밝아보는 조국땅이었다.

열네살때 일본땅에 온 나에게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운 정도, 그 깊음 표상도 없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조국땅을 밝아보는 나의 감회는 여간만 큰것이 아니었다.

울긋불긋 단풍잎 곱게 물든 모란봉이며 길우철길에 쇠바퀴를 대고 굴러가는 전차들, 오교가는 행인들...

그 누구도 알은체를 않고 무심히 지냈지만 나는 그들이 친지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내가 종로에 있는 가루베관장의 동생인 시바다의 집을 찾아간것은 중났때쯤이었다.

밖에서 몇번 주인을 찾자 모색이 비슷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시바다선생이신가요?》

《예, 누구신지?》

초면에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의심스럽게 여겨졌던지 그는 눈을 깜빡거렸다.

《가루베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에게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시바다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전보를 받았습시다. 어서 들어오십시오.》하고 내 팔을 잡아끌었다.

편지를 읽고난 그는 웬일인지 이상한 눈초리로 나의 행색을 살피는것이였다.

편지에 무엇이 씌여있기에 그가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하고 사람을 훑어보는지 알길이 없지만 나는 저으기 기분이 언짢았다.

(인사불성이군.)

회색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덤덤히 자리에 앉자 시바다는 다시 나를 일별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서는 반기는 기색과 함께 웃음발이 섰다. 《이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리학봉씨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자상히 썼거든요.

진곤씨 세루양복에 연두빛 넥타이를 맨 키 큰 청년인데 얼굴이 너무 작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것이 껍 인상적이라고, 적었지요. 그런데 거 스프링 코트를 입으셨으니...》

《가루베 선생은 정말 찬찬한분이십니다.》

나는 그제야 그가 초면에 내 기분을 왜 잡칠뻔 했는지 그 뜻을 알고 따라웃었다.

편지의 속내는 전혀 모르고있던 나는 신선한 김에 트렁크에서 스프링코트를 꺼내입었던 것이다.

무릎을 마주하고 앉은 우리 두사람은 소식들을 전하고 들으며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바다는 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매사에 친절히 굴었다.

형처럼 몸은 비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체소한 편은 아니었다.

작은 눈과 울려붙은 귀박죽은 형의것과 비슷하였으나 노상 말귀가 실려있는듯 얇은 입술은 가루베의 오물어든 입과 달랐다.

시바다는 모처럼 저녁상을 푸짐히 차렸다.

고급물고기들로 만든 회와 신선한 요리들이 구미를 돋구었다.

시바다는 인삼주도 잊지 않고 상머리에 올려놓았다.

시바다와 나는 서로 붓거니 권커니 하면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다.

으스름 달빛이 창가로 흘러드는 유정한 밤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그도 말이 해퍼지고 나도 대범해졌다.

《시바다선생, 형님이 것처럼 귀히 여기는 고려청자기를 좀 구경합시다.》

시바다는 가슴이 넓어졌는지 내 요구를 두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다.

옷방에서 쇠를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 시바다는 조개자박을 넣고 옷칠을 한 함을 들고 내려왔다.

그는 쇠고리를 벗기고 안에 있는 귀물을 손질했다.

전지불에 형래를 드러낸 고려청자기는 첫눈에도 황홀할 지경으로 우아하였다.

모양이 특이하고 포도송이와 잎을 조화롭게 새

긴 무늬는 실물같았다. 그리고 밝고 청아한 비색 빛같은 희미한 전등불아래에서도 눈을 부시게 했다.

여기에도 우리 집의 가보인 그것과 비슷한것이 있었다.

우리 집에는 고려청자기를 그대로 묘사한 한장의 그림이 있다. 림종을 앞둔 아버지는 고려청자기 대신 모사그림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래 나는 청자기의 모양새를 기억하고있었다.

《거 신통한 귀물입니다. 보다 처음인걸요.》

나는 취중이었으나 정신이 건듯 들리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탄의 목소리를 내질렀다.

우리 집 가보를 현물로 보는듯한 착각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 형님은 오늘을 내다보고 이걸 구해들었소.》

시바다의 자랑조에 나는 부채질을 해주었다.

《시바다선생, 밤도 깊었는데 구수한 이야기나 하구려. 그 보물을 어떻게 구해들었소?》

나는 다른 뜻도 있었으나 청자기의 해설문을 더 자상히 쓰려는 미련도 없지 않았다.

차라리 시바다한테서 얻어듣는것이 더 속편한 일이었다. 나는 앉은걸음으로 그 앞으로 바투 다가들며 시바다의 무릎을 허물없이 쳤다.

그러자 시바다는 순순히 말을 꺼냈다.

《형님이 조선에 있을 때 많은 돈냥을 주고 사들였지요.》

《그래요?》

나는 그의 입에서 첫마디부터 기이한 이야기가 흘러나올줄 알고 귀를 강구었는데 대답은 단순했다.

젊은시절 가루베가 고고학자로서 맹활동을 벌린 흔적이 고작 그런 류형의것인가.

《발굴하지 않고 사들였던단말이요?》

《글쎄, 다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만은 그랬다고 하더군. 하지만 우리 형님은 지금까지 제일 큰 귀물로 여겨온 량산부부무덤에서 찾아낸 금동관도 이 청자기에 비하면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소.

<천황>의 진상감인데 비길데가 있겠소.》

이야기는 이미 판이 난셈이었다.

밖에서 소란스럽게 귀청을 울리던 자동차의 발동소리도, 술주정꾼들의 지껄임도 뜸해지고 방안에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다만 책상위의 탁상시계만이 어서 잠을 자라고 재촉하듯 규칙맞게 잘각거릴뿐이었다. 으스름 달빛마저 창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시바다의 수수빚얼굴을 주시하며 시답잖게 말했다.

《난 형님이 대단한 고고학자인줄 알았는데...》

시바다는 시뻘한 말귀에 비위가 거슬리는지 별스럽게 눈을 찡긐거리고나서 거릉거리는 목소리로 성급히 내뱉었다.

《건 모르는 소리요. 형님이 쓴 논문을 못보았소.》

《언제 논문을 다 썼댔소?》

《금시초문이군. 하긴 20여년전에 쓴 논문이고 이름도 가시아란 닉명으로 냈으니 모를수도 있지.》

나는 귀가 벋끗 띄었다.

가시아라...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아니, 이제 가시아라고 했지요?》

《그렇소.》

분명 옳았다. 가시아란 이름은 나에게 원한과 증오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아버지를 곤경에서 건져주고 나에게 알자리를 주었으며 조선경내에 특별출장까지 보내준 가루베관장의 닉명과 같다니 이제 어디 뭇말인가. 나는 다만 고명한 그가 우리 집의 가보를 띠워해간 그런자와 같은 이름을 닉명으로 택한것이 못마땅스러울뿐이었다.

나는 시바다에게 던지시 건네었다.

《점잖은 어른이 좋은 제 이름을 두고 논문에 별치도 않는 가명을 단데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겠는데... 시바다상,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부은 술잔을 비우고난 시바다는 거나해진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발굴자가 부주의로 귀물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그런걸 사들였으니 아마 그자의 신세값음을 하느라고 그랬겠지.》

제소리지 들은 소리지 분간할수 없었으나 어떤가 진심스러운데도 있는듯 느껴졌다.

이게 어찌된 감투끈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마치 미궁속에 온몸을 잠근 때처럼 앞뒤를 가릴수 없었다.

나는 취기가 올라 기분나하는 시바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더 물었다.

《그 논문이 어느 잡지에 실렸소?》

《잡지가 아니라 <고적조사사업경과>라는 책일게요.》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있습니까?》

나의 심장은 비상한 사건의 전야처럼 세차게 고동쳤다.

시바다는 심상히 말했다.

《언제 나온 죄인데 아직 가지고있겠소. 일본의 큰 도서관들에는 있겠지. 한데 그걸 왜 찾소?》

나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입가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가루베선생이 쓴 논문을 그래 제자된 사람이 보아서 나쁘게 있소.》

《지당한 말이요. 이번에 돌아가면 품놓고 보시오.》

《그렇게 하겠소.》

이튿날 나는 략랑구역의 옛무덤터며 평양주변의 이름있는 고적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고향땅인 개성을 거슬러 략동강류역으로 내려왔다.

3

나는 가루베가 지정해준 날자보다 3일 앞당겨 집으로 돌아왔다.

수많은 유적유물들을 보려고 하였지만 어쩐지 분기가 치밀고 또 깊이 생각되는 일이 있어 불시에 길을 떠났었다.

안해는 어둠을 헤치고 집문턱을 들어서서 나를 보자 몹시 반기었다.

《스무나흔날 오신다기에 그리 알고있었어요.》

《집에서 며칠간 쉬려고 일찍 왔소. 내가 왔다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하지 마오. 민예관에도 들리지 않았댔소.》

《몸이 편치않은게 아니예요?》

순영은 근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그런게 아니요.》

여느때같으면 안해와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련만 지금은 그러고싶지 않았다.

나는 침통한 낯을 하고 창가에 앉았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 그르데 없었다. 동료들을 통해 조선의 문화재들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전해들었지만 그래도 국보급의 가치있는 유적들은 원상대로 보존되어있거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의 주관을 뒤집어놓았다.

평양락랑구역 일대의 고대무덤들은 물론 고려때의 고분들도 성한것이란 별로 없었다. 고려시기의 룡중에서 손꼽히는 무덤의 하나인 공민왕릉은 폭약세례를 받아 여지없이 파괴되었고 그안에 보관되었던 수많은 진귀한 유물들은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고건축물들은 비가 새어 천정과 벽에 얼룩이 젖고 정교한 석탑들의 아래층기단석들은 깨어져 불뿔이 없었으며 유명한 벽화들은 벽체채로 뜯어내고 그자리에 세멘트나 석회를 발라버린것이 태반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조선에서 유물들을 《발굴》했다는 흔적이었다. 과연 그네들이 《과학적발굴》이라는 미명밑에 진행한것이 이런 도굴이었던가.

나의 가슴속에서는 의문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번지었다.

아, 조선의 슬기, 백의 동포의 얼은 어디로 갔는가. 한뼉 이대로 뜯기우며 살아야만 하는가.

슬픈 비애가 온몸을 적신다.

이윽고 나는 울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심정으로 책상에 놓인 조개자박함을 열고 창가기의 우아한 모습을 감상했다.

소유자는 비록 일본사람이지만 그 귀물은 조선의 것이었다.

특이한 귀물이었다. 옷부분은 경쾌하고 아래부분은 단정하게 구성되어있는 주전자는 각이한 양상을 띤 선의 활동으로 하여 부드럽로우면서도 생신한 운동감을 준다.

주전자의 손잡이는 포도넝쿨의 모양을 조화시켜 섬세한 솜씨로 꼬아맞추었고 주둥이는 마치도 참대나무를 휘여 붙인것 같이 자연미를 띠고있다.

게다가 안정감을 주는 그릇모양의 받치개는 주전자의 품위를 한껏 높여주었다. 균형이 짝이고 조화롭게 생긴 포도무늬박이청자기였다.

우리 나라 하늘빛을 상징하는 밝고 푸른색은 투명하고 청아하였다.

조롱박형태를 띤 주전자의 온 돌레에는 포도송이와 잎을 수놓은듯 곱게 새겼는데 그 무늬는 얼마나 수려한가.

볼수록 치밀하고 견고한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청자기는 그 착상이 기발하고 모양이 우아하며 장식이 정교로웠다.

내가 고문헌들을 들춰본내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비취옥과 같은 아름다운 이 색을 얻어내기 위해 고집을 거듭했다고 한다. 이것은 오랜 숙련과 기술의 무수한 탐속에서 이루어진것이다.

진귀한 보물을 감상하고나니 어쩐지 기분이 상쾌해졌다.

금시 조국의 맑은 하늘이 눈앞에 비껴오는듯했고 감미로운 민족적정서가 그윽한 향수처럼 가슴속에 젖어드는것이였다.

확실히 고려청자기는 우리 선조들의 재능과 슬기가 한껏 깃들어있는 대결작품이였다.

이런 귀물이 어떻게 가루베의 손에 들어갔을까?

시바다의 집에서 느낀 그 이상야릇한 생각이 다시금 뇌리를 친다.

이 청자기는 그 무슨 의혹의 그림자를 던져주는것임에 틀림없다. 우연한 일치이긴 하겠으나 어쩌면 이처럼 우리 집의 가보와 가루베의 청자기가 비슷하며 략취자인 가시아눔과 논문필자의 다행이 같을가.

생각에 골몰하던 나는 장안을 뒤졌다. 고이 간수한 고려청자기도안을 실물과 나란히 놓고 대조해볼 심산에서였다.

탁상등이 두 물건을 똑같은 각광으로 비쳐주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환성같은것을 내질렀다.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듯 후두둑 뼓다. 온몸의 피가 우로 솟구치는지 얼굴마저 화끈거린다.

마치 그 그림은 청자기를 놓고 그대로 본뜬듯 모양새와 크기도 신동히 같았다.

나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고 가만히 여겨보았다.

색채 역시 청아하고 투명한것이 마치 실물을 보는듯했다.

파연 이것이 우연한 일치란말인가. 그럴수 없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추억을 거슬러 그날을 더듬었다. 순간 이 고려청자기는 선조들이 만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귀물인데 내가 커서 고고학자가 되거들랑 아무쪼록 꼭 찾아보라고 당부하며 청자기도면을 내 손에 간신히 쥐여주고야 숨지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막을수 없는 격랑이 속안에서 일어번지였다. 하자 가루베가 넘볼처럼 외우며 자랑한 그 모든 유물 하나하나가 어떤 수법으로 얻어진것인지 가히 짐작이 갔다.

다음날 아침 교토사립도서관을 찾아간 나는 품을 들어서야 《고적조사사업결과》라는 책을 찾아냈다.

책을 받쳐든 내 손은 이름할수 없는 격양된 감정의 분출로 하여 후들후들 떨렸다.

이 책에 실은 한 논문의 필자가 가시아가 아니고 가시다 혹은 그 비슷한 이름이면 그리고 그 내용이 청자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별개의것이라면...

나는 놀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귀전에 들으며 책투경을 펼쳤다. 그리고 총총한 눈빛으로 재빨리 차례를 훑어내려갔다. 가시아란 이름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책은 여럿이 쓴 논문집이였다.

나는 첫장을 다시 훑고나서 책장을 번졌다.

일순 나의 눈은 화등잔같이 커졌다.

내 시야에는 가시아란 이름이 그 어떤 실체처럼 확연히 안겨왔다.

《가시아.》

나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시바다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책갈피를 번지고 글줄을 더듬었다.

글획은 어리광을 부리듯 아래위로 뒹논다. 지나친 흥분의 탓인듯했다.

드디어 나는 논문이 고려청자기와 관련된것이며 계룡산부근에서 발굴했다는 글줄을 읽었다. 며칠전 가루베자신이 고려청자의 발굴산지를 그렇게 말했었다.

시바다가 알려준대로 이 책의 필자는 가시아였고 청자기의 발굴산지 역시 가루베의 말과 이 책에 밝혀진 지명이 같았다.

그렇다면 아,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도 있는가. 가시아란 가루베 그자신이였다.

나는 이 순간 빼앗겼던 가보를 20여년만에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한 인간이 저지른 죄행이 더없이 역스럽게 생각되어 살을 떨었다.

하긴 조선땅에서 문화유물들을 근 2,000기나 《발굴》한 가루베이고 보면 한가정의 가보쯤을 알아내는것은 그리 힘든 일도 아닐것이다.

이윽고 나는 책을 반환하고 그대신 고서점에 들러 《고적조사사업결과》를 샀다.

4

내가 고려청자기를 가지고 민예관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자 순영은 펄쩍 뛰었다.

《여보, 이제 무엇을 더 밝히겠어요. 어서 떠나자요, 무서워요.》

《일없소. 내 잠깐 다녀오겠소. 그놈을 단죄하지 않고는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소.》

그러나 안해는 나의 결기어린 목소리는 귀박으로 들은듯 내 옷섶을 부여잡고 목매여 부르짖었다.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쩔라고 그래요.》

《봉변은 그놈이 당해야지.》

나는 민예관을 향해 자욱을 떼었다.

비좁은 거리는 음침하였다. 한낮이 기울무렵이었지만 이마를 맞대고 앉은 건물들이 던진 그늘로 하여 어둡시곤하였다. 울긋불긋 여러가지 색조화를 피운 각이한 간판들이 나붙은 가게방이며 잡화상들, 음식점들과 술집들이 서로 자리다툼이라도 하듯 엮여있는 거리로는 사람들이 붐비며 오갔고 이따금 이 혼잡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쌍지팽이를 거드랑이에 낀 상이군인들이 시름겹게 방황하고있었다.

만추광야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소식을 실은 최근 신문들을 보고 나는 그 상이군인들의 물결을 쉽게 짐작할수 있었다.

나는 상이군인들의 우거지상에서 왜놈들에게 죽음을 주고있는 조선청년들의 의로운 격전을 상상해보았다.

어쩐지 마음이 통쾌하였다.

민예관은 명절전야처럼 흥성거렸다.

전시회를 앞두고 찾아오는 손님도 적지 않았지만 그보다 새로 구해들인 유물들을 전시하느라고 관원들이 분주히 싸다녔다.

1층 중간에 있는 《조선관》을 지나던 나는 발길을 멈추었다. 처음보는 진귀한 유물들이 의외로 많았다.

미소를 띤 백제시기의 금동불은, 금귀고리, 세나라시기의 조각품들, 그리고 청자백자기류와 공예품들...

더구나 나를 아연실색케 한것은 돌우에 그린 화려한 인동당초무늬였다.

(아니, 저것이 여기에 있다니?)

나는 제눈을 의심했다.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다. 분명 며칠전 평양근방의 고분벽화에서 본 그것이였다.

그날 나는 그 벽화앞에서 한참 발길을 옮기지 못했다. 한것은 평행고임돌을 깨뜨려 이 인동당초무늬를 뜯어내고 그자리에 석고를 슬쩍 바르고 그우에 무늬를 그려놓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한 도굴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기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은 혹시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고고학도들의 눈은 속일수 없다. 나는 그 벽화의

무늬를 머리속에 되새기며 이 진렬장안에 있는 무늬와 대조해보았다.

그 크기와 생김새가 같았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가루베가 뜯어온것이 아닌가. 명백한 사실이었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이 가루베와 같은 놈들의 란장질에 못쓰게 되고 이 섬나라로 기수없이 흘러들고있지 않는가.

일본 각처에 널려있는 박물관, 미술관들과 고관대작들의 집안과 정원에 있는 그 수만점의 귀물이 다 놈들이 폭약과 총칼부림으로 빼앗아온 민족의 재보였다.

과연 우리의 문화재들이 마구 털리우고 그 흔적마저 사라져가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조국이 없는탓이었다. 나는 이때 비로소 생명과도 같은 조국의 귀중함을 피부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꼈고 그것 없이는 모든것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할수록 지난날일들이, 청맹파니처럼 앞뒤도 가려 못보고 분별없이 처신한 자신이 더없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자책감이 밀물처럼 흘러들어 가슴노리를 적시었다. 나는 나라잃은 백성의 설분을 놓고 다시금 통탄하며 오열을 씹어삼키었다.

무거운 걸음으로 충계를 오른 나는 천천히 문가로 다가섰다.

방안에서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며 무춤거렸다.

《가루베선생, 리상이 아직 오지 않았소?》

음색이 탁한 사나이의 목소리는 《천황박물관》에서 온 고이즈미였다.

《스무나흘이 오늘이지, 아마 조만간에 들어설게요. 실수없는 사람이니까.》

《그 귀물을 이제 내 눈으로 볼수 있게 해줄수 있소?》

《보다뿐이겠소. 진상감으로 들어날게요.》

그건 그렇구. 고이즈미선생, 이번 우리 민계관 전시회가 여간만 성대하지 않습니다.

동방보물의 정수를 우리 나라에 건어들이는 리성적인 사업을 완성하는게 일본고고학자들의 본분이 아니겠소. 난 이번에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수의 본보기인 고려청자기를 <천황>께 드리겠소. 바로 이것이 내 큰뜻이요.》

가루베의 녀두리에 공감이 간다는듯 고이즈미는 소리내어 껄껄거렸다.

더 듣고싶지 않았다. 나는 방안으로 들어섰다.

화산폭발직전의 용암과도 같은것이 속안에서 불끈 치밀어올랐지만 나는 그 높은 기압을 의지의 힘으로 참시나마 애써 눌러버렸다. 지나친 흥분은 다된 일도 그르칠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기때문이었다.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방금 리상의 말을 했지.》

가루베는 얼굴에 희색을 띠고 일어섰다. 그리고 내가 들고온 조개자박을 박은 함을 얼른 받아 원탁우에 놓는다.

고이즈미도 쏘파에서 등허리를 펴고 입을 헤벌렸다.

《자, 앉게 마침 잘되었네. 고이즈미선생도 이 영광의 자리에 있으니... 내 뭐라든가 오늘중엔 볼수 있다고 했지.》

가루베는 입가에 노상 빙글웃음을 담고있었다.

《오늘은 가루베관장의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날이요.》

고이즈미가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그들이 노는 꼴이 우습고 어처구니없이 얼굴에 뺨소를 머금고 말했다.

《귀물을 구경하기전에 이걸 먼저 보시오.》

나는 가루베앞에 책 한권을 불쑥 내밀었다.

가루베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책가위를 내려다본다.

《<고적조사사업결과>라... 이 책은 어디서 구했소?》

《고서점에서 샀지요. 시바다상이 알려주기에 품을 들여 읽어보았소.》

《아하, 그런가 암, 선배의 정신을 배워야지. 제 사될 사람이 다르구만.》

가루베는 고이즈미도 들으라는듯 제 자랑을 앞세우며 혀를 날름거렸다.

《이 책엔 내 논문도 있지.》

《일찍부터 좋은 글을 쓰셨더군요.》

나는 입가에 쓴 웃음을 지어보였다.

《젊었을 때 정신없이 발굴사업을 했으니까...》

가루베는 추억을 더듬는듯 실눈을 했다.

나는 그놈의 숨통을 조일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다시한번 미끼를 던졌다.

《청년시기엔 다행으로 글을 쓰는것이 고명한 인사들의 풍격에 어울리는가봅니다.》

하자 가루베는 내 말 뜻을 제나름으로 이해했던지 흠족한 미소를 지어미 말했다.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가시아란게 내 다행이었소.》

모든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의심할 여지가 더는 없었다.

(20여년간 학자의 너울을 뒤집어쓰고 행세하면서 조선의 문화유물들을 수없이 도굴해간 이놈아.

어제는 아버지를 감옥에 처넣고 《구원자》로 자처하던니 오늘은 나를 제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잔꾀를 부렸지.)

나는 금시 그의 면상에 된주먹을 안기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러나 소용돌이속에서 튀어나온 나의 어성은 천둥소리처럼 방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가시아란자가 어떤놈인가 했더니 바로 당신이었구려!!》

나의 눈가에서는 섬광과 같은것이 번쩍 내뿜기

었다.

처음 어안이 빙빙해있던 가루베는 가시아란 이름에 덴겁을 한듯 몸을 흠칫거렸다.

그놈은 20여년전의 일을 내가 기억하고있는지 알길이 없었고 또 제 비행을 까밝히는 증거물로 론문을 들이댈줄은 상상도 못했을것이다.

《리상, 이거 오해하고있소. 일본땅천지에 아름이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건 내가 아니요.》

가루베는 림기웅변의 수로 나를 업어넘겨려고 했다.

나는 장벽앞에서도 나갈 구멍을 뚫으려고 골을 휘두르는 가루베의 보가지상통을 무섭게 노려보며 품속에서 그림한장을 꺼내여 놈의 코앞에 놓았다.

《이 그림은 우리 부친이 화가에게 청탁하여 그려놓은 청자기다. 자, 보아라.》

그리고는 이어 조개박합뚜껑을 활 열어제겼다.

가루베와 고이즈미의 놀란 눈길은 일시에 원탁우에 놓인 그림과 고려청자기에 쏠렸다.

아무리 낮가죽이 두터운 철면피한 인간이라 해도 이 두 증거물앞에서 입천정을 놀릴수는 없을것이다.

나는 드디어 치솟는 격분을 그대로 터뜨렸다.

《당신이 조선에서 발굴했다는 2,000여기의 유물들은 다 이 고려청자가와 세무덤의 인동당초무늬와 같은것이요.

당신은 학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보를 일본땅에 날라들인 략탈자요.》

나는 불끈진 주먹으로 앞책상을 내리쳤다.

서리고 엉킨 달아오른 감정의 폭발인듯 《탕!!》하는 강타음과 함께 방안이 쩡 울린다.

두놈평이는 그만 질겁해서 뒤걸음쳤다.

이어 가루베는 목젓이 막힌듯 눈을 뒤집고 이렇게 용을 썼다.

《저놈이 환장을 했나.》

그리고는 필사의 힘을 모아 어푸러지듯 원탁앞으로 다가들며 고려청자기함을 와락 덮치는것이였다.

나는 맹렬히 옥박해들어오는 그놈의 팔을 오른손으로 후려쳤다.

하자 가루베는 네활개를 벌리고 마루바닥에 벌렁 너부러졌다. 놈은 금시 숨이 넘어가는듯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놈평이처럼 헛소리를 쥐여치듯 고려청자기타령을 한다.

《고이즈미... 저놈이... 내 청자기를... 빨리 경찰에 알리라구.》

고이즈미는 뜻밖에 벌어진 사태에 어찌할줄몰라 그저 껍껍 모두숨만 쉴뿐이였다.

가루베는 마른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맞고 뒤번져진것이였다.

나는 고려청자기함을 안고 밖으로 나섰다.

가슴에 맺힌 웅어리가 빠진듯 속이 후련했다. 뒤일에 대한 우려같은것은 추호도 안중에 없었다.

다만 이 고려청자기를 안전한곳에 간수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있었다.

고려청자기, 이게 어떤 유물인가!

재난과 불행이 없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려는 옛조상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는 이 유물, 우리 선조들이 행복의 상징으로 여기고 대를 물려주 유물이 아닌가.

고려청자기는 후대들이 자랑하고 전해야 할 재보이며 우리 겨레가 조국의 유구찬란성과 민족의 정기를 감수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문화유물이 다.

하다면 이 청자기는 내 한 집안의 가보가 아니라 국보적성격을 띠는 귀물이 아닌가! 그렇다. 고려청자기는 마땅히 우리 민족의 재보로 되어야 한다.

가루베가 내 몸은 철쇄로 묶을수 있어도 민족의 슬기와 예지가 담긴 이 고려청자기만은 억만 철쇄로도 묶지 못할것이다.

내가 격노한 기상을 하고 나타나자 안해는 몹시 겁이 나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지않아도 가슴을 옥죄이고있던 그였다. 나는 그러는 안해를 마주쳐다보며 서둘러 말했다.

《빨리 길떠날 차비를 해야겠소.》

나는 그에게 고려청자기함을 넘겨주었다.

안해 순영은 모든것을 직잡한듯 그것을 받아 보자기에 썩다.

《여보, 이걸 가지고 꼭 조국으로 가야 하오. 그 길만이 이 귀물을 건질수 있소. 내 일전에 평양에 갔을 때 들은 애진데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선군사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나오실 날도 멀지않았다고 하더군.》

나는 고려청자기를 잘 간수해야 되며 홀몸도 아닌데 몸조심하라고 이르고나서 조용히 설유했다.

《얼른 뒤따라갈테니 먼저 떠나오.》

하자 순영은 《같이 가시자요.》 하고 애원에 찬 목소리로 간청했다.

《안심하오, 우린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소.

무엇때문에 우리 내외가 쫓기고 갈라져야 하오.

왜 선인이 <도적>으로 물리고 고고학도의 량심이 룡락당해야 하겠소. 지금 한 집안의 가보뿐 아니라 온 조선이 털리고있지 않소. 이것은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기때문이요.

조국이 없으면 민족의 유구한 력사도 다 잃게 되오.》

이때 내 가슴속에는 방금전 거리를 방황하는 상이군인들의 물결을 보고 느낀 그 감정이, 일본이 꺼꾸러질날도 각일각 다가오고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나는 안해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을 이

었다.

《재삼 부탁하오만 이걸 잘 간수하오.

이 귀물에는 옛조상의 념원과 아버지의 녀이, 그리고 내 심혼이 깃들어있소.》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나는 이렇게 재촉했다.

《시간이 촉박하오.》

순영은 일어섰다. 그러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듯 그냥 선채 나를 빠금히 쳐다본다. 그때 그의 눈가엔 천만마디의 사연을 담은 연연한 물기가 어려여있었다.

《어서 가오. 여보, 만약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만은 기쁜날을 맞이해야 되오. 밝은날 그 귀물이 어떻게 구원되었고 거기에 담긴 나의 소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자식에게나마 이야기해주오.》

내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서러움으로 가볍게 떨리는상싶었다.

나는 애정에 넘친 살뜰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채 안해를 배려주었다. 그러는 내 마음은 여간만 아프지 않았다.

몸뭉날도 멀지 않은 안해를 기약도 할수 없는 길에 홀로 떠나보내는 내 심정인들 오죽하겠는가.

이것을 알았던지 순영은 더 지체하지 않고 총총히 길을 떠나는것이였다.

나는 안해가 지금처럼 돋보이고 장해보이기는 처음이였다.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경찰들이 우리 집 마당가로 들어서고있었다.

(순영이 부디 잘 가주길 바라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우며 경찰들의 상관대기를 서리발 눈길로 쏘아보았다...

나는 《유물략취죄》를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였다.

20여년전 나의 아버지가 《도적죄》로 경찰에 잡혔을 때 가루베는 부친을 빼내는 연극을 꾸렸지만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쉬이 놓여서 나갈것같지 않았다.

리학봉은 해방되는 날을 며칠 앞두고 그리도 밝아보고싶은 조국땅에 발길을 대지 못한채 이역에서 애석하게 숨졌다.

해방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안해는 정히 보관했다가 조국이 광복되면 력사박물관에 기증하라는 옥중에서 보낸 남편의 편지에 적힌 유언대로 고려청자기와 수기묵음을 우리 박물관에 가져왔던것이다...

나는 마지막 문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나의 가슴속에서는 애뜻한 정이 짝을줄 모르고 그냥 넘치고있었다.

아담한 형식, 의의있는 문제성

리성덕

작고도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아담한 형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성을 밝히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를 가지고 열, 백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적요미이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큰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의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풀어내였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대작주의를 하지 말고 소박하고도 간단한 사건과 생활을 아담한 형식에 담으면서도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커다란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성을 밝히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거둔 귀중한 성과로 된다.

이 작품은 우리 생활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소박하고도 평범한 생활을 아담한 형식에 담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감동깊은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커다란 사회적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이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성,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들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될수 있으며 당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과 일본새를 가져야 하며 어떤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름없는 한 협동농장의 처녀분조장인 주인공 순심과 농기계작업소의 프락트르운전수인 리철수의 형상을 통하여 당원의 사회정치적생명은 그 증표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치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있다는것을 매우 감동적인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깊고도 오랜 력사적뿌리에서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40여년,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되는것을 더없이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새로이 탄생하는것으로 간주한 수백만의 근로자들과 청

년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입당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체위업수행의 계승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입당하게 될것인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게 되는 그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히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입당을 심의하는 과정도 형상하였고 당원증을 받아안고 돌아오는 주인공들의 크나큰 기쁨과 영예에 대하여서도 여러모로 형상하였지만 이 작품에서처럼 입당이 가지는 참뜻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작고도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입당에 대한 참뜻을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 참신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는데 바로 이 작품의 특출한 성과가 있다.

이 작품이 취급하고있는 사건이란 순심과 철수의 입당준비과정을 대비적으로 보여준 령습지개량문제와 입당심의에 가는 도중에 제기되는 남대천제방뚫을 막는 두개의 사건뿐이다.

이 작품은 령습지개량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순심이 평소 당원의 칭호를 얼마나 숭고한것으로 여기고있으며 당원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얼마나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었는가 하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작품은 개인적인 타산을 앞세우면서 남들이 보는데서나 극성스럽게 일하는가 하면 령습지개량을 되는대로 해버리려는 비량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적의 화구도 막을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철수의 형상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입당을 청원할 자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예술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사건을 통하여 두 인물을 예리하게 대치시키면서 당에 입당하는것은 결코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것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영예롭게 바치기 위한것임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을뿐아니라 이러한 혁명적각오가 없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수 없는 사람은 입당할 자격이 없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은 절정으로 설정된 제방뚫사건을 두고 두 인물의 정신적바탕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형상적해결을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도출해내고있

다.

이 작품의 형상적책은 철수가 군당에 입당심을 받을러 갔다가 자기는 순심이처럼 입당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격을 갖춘다음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되돌아가게 한것이다.

입당의 승고한 목적을 심장으로 체득하지 못한 철수였기에 입당심을 받기 위하여 군당을 찾아가는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막아나서며 제방쪽을 함께 구원하자는 순심의 권고를 외면하였던것이다.

작품은 군당에 가서야 순심이도 입당심의를 오게 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된 철수가 지나간 나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사상적준비가 너무도 어리고 보잘것 없는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비록 입당심의를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방쪽이 터지려는것을 그대로 지나칠수 없어 위험개소를 한몸으로 막아나선 순심이의 기특한 소행에서 비로소 입당의 합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게 된 철수는 스스로 입당청원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심으로 토로한다.

《지금까지 저는 준엄한 시각이 오면 화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방쪽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전... 전 아직 당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 1년이구 10년이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 이자리에 서겠습니다.》

철수의 이 진심어린 뉘우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번밖에 없을 입당의 날을 어떤 심정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참된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해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울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아안게 하는 이 작품의 형상적 알맹이, 사상적책이 있는것이다.

이 작품은 류형과 도식을 피하고 독창적인 예술적탐구로 철수가 스스로 자신의 입당청원을 취소하는것으로 형상함으로써 예술적구성의 묘미를 돋우고있다.

입당과 같은 심중한 문제를 취급한다는데로부터 입당을 심의하는 장면에서 철수가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맹세를 다지는것으로 형상을 마무리할수도 있었으나 이 작품의 창조자들은 철수에 대한 처리를 매우 독창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적책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현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조용하면서도 인상깊은 소박하고도 작은 아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있다.

조용한 서정적인 음악속에 펼쳐지는 작품의 서경만이라도 더듬어보자.

비가 쉬임없이 쏟아지는 발두령길에서 바람에 넘어진 강냉이대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일으켜세우고있는 소박한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 그가 다름아닌 입당심을 받기 위해 군당으로 가야 할 작품의 주인공임을 알았을 때 관객들은 얼마나 커다란 기대를 안고 작품의 세계로 끌려들어가게 되는가.

아직도 애리나는 얼굴에 티없이 깨끗한 미소를 담고 자기를 이끌고 도와준 로당원인 덕보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순심과 입당심을 받으러가는 뜻깊은 날에도 아침일찌기 강냉이밭을 돌아보면서 넘어진것을 세워주고있는 참된 새세대를 자라온 기쁨을 안고 그를 미덥게 바라보며 다정하게 바래주는 덕보로인.

마치 한쪽의 정교한 그림과도 같은 아담한 생활화쪽으로 작품을 시작하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여기에 이 작품이 품기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있다.

작품의 양상에 맞게 작품의 첫머리를 안정감있게 조용하게 하면서도 이야기를 소박하고 아담하게 시작하여 모든것이 실생활에서처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안겨오도록 형상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생활세계를 진실로 믿고 스스로 끌려들어가게 한것은 이 작품이 거둔 형상적성과의 중요한 측면이다.

작품은 본이야기에 들어서면서도 인상적인 생활적세부의 반복으로 예술적감미로움을 자아내고있다.

철수가 타고 군당으로 가는 자동차를 세우는 순심과 철수가 농촌으로 지원나올 때 그 프락토르를 멈춰세우는 순심,

이 두 장면의 반복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들 두 인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발전할것인가 하는 기대를 안고 작품의 세계에 이끌리게 하고있다.

이 작품은 이처럼 작게 시작하여 끝을 크게 맺도록 하는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면서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입당을 준비하여나가는 사업이 새세대들자신의 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당생활년한이 오랜 로당원들의 당생활과도 밀접히 련관되어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에 대한 형상적의미를 더하여주고있다.

이 작품은 당원이란 근로대중의 선봉투사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참다운 거울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당원으로 키우기 위하여 믿음직하게 뒤받침하여야 한다는것을 평범한 생활의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순심을 이룰 참된 당원이 되도록 준비시켜나가는 덕보로인과 철수에게 그릇된 영향을 주는 작업반장 만호의 형상적대비를 통하여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당원들의 일거일동에서 영향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는것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해방된 이듬해에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목숨으로 지켜나갈것을 맹세하고 당에 입당한 덕보로인은 그 맹세를 지켜 실 나이가 되었어도 아들네집으로 가지 않고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길에 자기의 진심을 다 쏟아부었다고.

그의 이러한 혁명에 대한 성실성과 당에 바치는 순결성은 순심에게 그대로 옮겨져 순심으로 하여금 믿음직한 당원으로 자라날수 있게 하는 밑거름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만호는 사업과 생활에서 요령을 부리며 거칠게 일함으로써 입당당시의 맹세를 저버리고 당원구실을 제대로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가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그대로 철수에게 영향을 미쳐 사업에서 요령주의를 부리고 입당준비와 같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적계기인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아야 할 순간에 그 사상적병집이 로출되게 하고있다.

작품은 덕보와 만호의 당생활과 그들의 사상정신적차이점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면서 당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만호의 사상적병집이 극복되는 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당원들의 참다운 당생활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강조하고있다.

덕보로인이 만호를 호되게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가.

《자네와 같은 부실한 당원이 있기때문에 새로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있단 말일세…

입당하기전에는 일을 잘했고 입당한 다음에도 한동안 일을 잘해왔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자 요령주의가 생겨 적당히 살아가고있거든… 당원의 영예는 입당하는 그 시각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이 맡겨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그 때에 참으로 빛나는것이네.》

작품은 이와 같이 당원이란 고상한 칭호를 간직한 모든 당원들이 계급의 전위투사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겠는가 하는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생활적으로 감동깊이 해명함으로써 입당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당생활의 의의를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여기에 또한 이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와 실천적이고도 인식교양적인 의의가 있다.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우에서 본바와 같은 현시기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극복해야 할 요령주의를 취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의깊다.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들이 시대와 생활을 꿰뚫어보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창작에 임하였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작업반장 만호와 그의 영향을 받는 철수에게서 발현되고있는 요령주의에 대비하여 모든 일에서 진심을 바쳐 실속있게 일해나가는 덕보와 순심의 성격적높이를 감명깊게 형상해냄으로써 참다운 시대정신이 작품의 전반적형상에 굽이치게 한 것도 이 작품이 거둔 성과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위주로 하고있는 극예술, 영화문학에서 생활적인 명대사들을 풍부하게 구현하는것은 작품의 형상과 예술적품위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생활적이면서도 뜻이 깊은 명대사들으로써 작품의 형상적깊이와 철학적심도를 담보하고있다.

덕보로인이 순심에게 하는 다음의 대사는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진심을 묻어야 한다. …땅이란 절대루 에너지를 몰라. 우리가 땅을 속이면 땅은 우리에게 쭈정이를 내밀고 우리가 진심을 쏟아부으면 땅은 우리에게 알찬 이삭을 선사하는 거란다…》

이 길지 않은 대사에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깨끗한 충성심이 깃들어있고 새세대들의 마음속에 당원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정신적준비를 착실하게 마련해주려는 로당원의 진심이 깊이있게 고여있다.

필요할 때면 자기도 적의 화구를 막을수 있다고 으시대는 철수에게 《화구를 막고 살아날수만 있다면 막을지도 모른다》고 쏘아주는 순심의 대사를 비롯하여 군당책임비서가 하는 의미심장한 대사 등 이 작품에는 뜻이 깊은 생활적인 명대사들이 많이 주어짐으로써 작품의 예술적품위와 철학적심도를 보장하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술영화 《참된 심정》은 작고도 아담하고 참신한 형식속에 시대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평범하고도 소박한 생활을 담아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회적문제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해답을 주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이 작품이 거둔 빛나는 성과를 일반화하면서 진실한 생활로 충만된 독창적이고도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귀항의 밤에

오재신

포근히 잠들었구나
파도를 헤쳐
풍어를 안고온 포구의 이 밤
고요하구나
바다항에 열렸던 창문들
불빛 꺼진 어로공주택마을은-

그 옛날 돌아오지 못한 님을 기다려
신체로 그 몸이 굳어졌다는
쳐너바위우에도 침묵이 서리우고
구내를 떠난 랭동렬차의 기적소리도
마을을 에돌아 멀어져가고...

어쩌면 이리도 조용하라
이 밤-
평온을 불러오는 고요만이
온 포구를 잠재우며...

내 어린시절의 추억은
다만 옛말속의 이야기-
멀기 사나운 날이면 그밤마다
그을음피는 어유등불아래 잠들지 못하던 포구
아버지를 찾던 그 애절한 부름도
녀인들의 쓰디쓴 눈물도
세월속에 영영 흘러가버리었구나

아- 포구의 밤이여
창가마다 흐르는 고르로운 숨결이여
이 밤의 평온속에 흐르는

한없는 걱정이여
이 밤 이 정적속에 나는 다시 묻는다
한기망만 더!
그물을 넣었건만
돌아오라고
파도가 높아질게 예견된다고
어서 귀항하라고
가슴을 찢던 그 뜨거운 목소리를!

산같은 배우에 이몸을 실어주고
그러고도 아, 그러고도
마음 놓지 못하는 심정
아버이의 그 마음이 지금
온 포구를 안고있구나

천리를 가도 만리를 떠나도
그 배길에 안겨주던 당의 그 은정은
이 밤 또한 나의 집 그 요람가에서
자장가 불러
잠재워주고-

아아
세찬 파도에도 드눌지 않던 가슴
이 가슴 흔들며
걱정의 파도는 뿔어쫓는다
귀항의 이 밤
포구의 이 고요속에...

벗이 많은 용해공

김영남

나는 용해공
벗이 많은 사람
칠 익은 쇠물
쏟아붓는 순간이면
하늘 가득 피어나는 노을을 보며

용해공의 이름 조용히 불러볼
그 술한 눈빛앞에 서있는 사람
강재 가득 싣고 구내선을 빠지는
정다운 렬차의 기적소리도

이 땅 그 어디서나 철을 받아안고
나를 향해 보내는 다정한 인사같아
언제나 궁지높이 불을 다루는 사람

날마다 시각마다
위훈 안고 나래치는 조국의 앞장에선
보람도 큰 나는 용해공
쇠물을 끓이는 내 마음속에
정녕 인연 없는이 어디 있던가

그때문에
어디서나 떨치는 자랑찬 소식
내 또한 벗들의 당부처럼 받아안나니

타입장엔 철근을
막장엔 인발관을...
얼굴이 낮익어서 벗이던가
이름들을 알아서 벗이던가

그 이름 그 얼굴 몰라도
온 나라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또한 온 나라가 있어
강철로 통하는 정 쇠물처럼 뜨거운

아, 나는 용해공
벗이 많은 사람

입궁전 한때

김덕선

입궁전 한때
잠시 차례지는
짧은 한시각!

떠오르는 아침해빛도
시원히 벌을 스쳐오는 바람도
탄부의 옷자락 놓지 못하는
입궁전 한때...

탄처럼 묵직한 성미여서
말이 없는 아바이
안전등 유리알 닮을 때면
젊은날의 그 버릇인듯
조용히 휘파람 불고

수집계 옷는 처녀 사진 돌려보며
탄부의 안해는 속이 깊어야 한다고
저저마다 하는 한마디에
약혼자는 뒤머리만 굽적거리는
입궁전 한때

심장이 달아올라야
캐는 탄도 뜨겁다고
탄벽이 무너지듯 터뜨리는
제대군인 총각들 호탕한 웃음이
그들 먼저 갯안으로 메아리쳐가는 때

가야 할 굴길은 앞에 있어도
웃음 없인 못살듯
웃고 떠드는 즐거운 이 한때
나무람 말자 그대가 누구이든

이제 입궁명령 내리면
땅우의 생활을 땅속으로 펼쳐갈 이들
이 한시각
이리도 유쾌할수 없다면
쏟아지는 석수 어이 봄비처럼 맞고
다가서는 암반 어이 가슴으로 밀라

떠오르는 아침해빛에도
선들 벌을 스쳐오는 바람결에도
탄부만이 느끼는 조국의 숨결
가슴가득 느끼는 때

마음은 벌써
막장 한끝에 잇대여놓고
웃고 떠들며
줄거이 명령을 기다리는
짧은 이 한시각
아 위훈의 출발선에서
열정을 호흡하는
입궁전 한때

탄벽앞에서 외편

조태현

십리를 내렸나
이십리를 내렸나
비로소 끝난 수직갱앞에
떡-막아선 시켜면 탄벽!

이것이구나
기름기도는 석탄
두손으로 만져보니
숫구치는건 기쁨만이 아니구나

기쁨에 앞서 이 가슴엔
물모래충속으로 수직갱 뚫은
그 젊은이들 생각...

어깨가 얼얼하게 내려붓는
그 석수를 들쓰면서도
웃으며 노래로 굴을 뚫었다는
그 젊은이들 수고

우리 땅 우리 바다밑에
쭉-깔린것이 석탄이어서
폭포처럼 쏟아진다 굴도 썼건만
내 다알고 썼더나

석탄의 무게를 알아야 하리
예까지 들어온 굴길 한치한치에
탄부의 한시절이 바쳐졌거니
우리모두 행복한 앞날의 축복도
서슴없이 선뜻 없어주어야 하리

석탄없이 단 하루 산적 없어도
난생 처음 석탄을 만져보는듯해라
우리 뜨뜻이 누워자는 방에
그토록 소중한 석탄덩이를
락엽을 때듯 너무도 가벼이 때지는 앓았더나

탄부의 훈장

성실한 뒤바라지로 늙어온
마누라조차 나무람 있었다지
젊은이들의 짐이 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때마다 서둘러 담배불 끄고
생각깊이 굴길로 들어서군하던
로탄부의 그 마음
조국은 알아주었지
명절때면 훈장을 안겨...

애송이시절부터 록순나이
스스로 정한 탄전에서
스스로 바쳐는 진정으로

석탄더미 고여올려
조국을 섬겨온 탄부

한생 캐올린 석탄이 얼마인지
한생 뚫은 굴길이 얼마인지
자신도 모른다더라만
조국은 년대마다 달아준 훈장으로
그것을 다 헤아렸더라

땅우에서 일한 사람에 비기면
못받은 햇빛도 많아선가
가슴가득 없어주었더라
땅우에 내리는 햇빛을 다 모아
금빛훈장으로 빛나게

무저항과 굴종을 설교하는 반동문학의 독소

은종섭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주와 파쇼, 애국과 매국, 진보와 반동간의 대결과 투쟁이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격렬한 반미반파쇼진출앞에서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와 전두환피괴도당은 광란적인 파쇼적폭압선풍을 벌리는 한편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켜보려고 갖은 술책과 음모책동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문학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이 참혹하게 유린되는 최악적현실을 해부하고 비판하는데 지향된 량심적인 문학경향이 현저하게 강화되여가는 반면에 미제와 그 앞잡이 파쇼통치집단의 비위에 맞추어 인민들의 투쟁정신과 투쟁의지를 마비시키는데 겨누어진 반동적경향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반동문화는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쪼먹는 유해로운 독소입니다.》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의 반동문학은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으로 되어왔다.

최근 남조선부르조아문단에서 눈에 띄이게 나타나는 경향의 하나는 무저항과 굴종의식을 설교하는 반동적작품들이 범람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할 때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 자기의 자주성을 구축하는

온갖 반동적인것을 때려부시고 사회와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되며 자주의식을 갖지 못하고 굴종의식에 물젖게 되면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의 노복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때문에 예로부터 착취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을 숙명적이며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왔으며 각양각색의 반동문학조류들은 레외없이 인간을 예정된 운명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수동적이며 예측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주어진 운명에 말없이 순종하는것을 삶의 본연의 자세로 그려내려고 무진애를 써왔다.

해방후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도 물론 여기에서 레외가 아니다.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그러한 경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날로 치렬해지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기세를 꺾고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려는데 지향된 가증스러운 행위로서 미제와 전두환매국도당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의 어용성과 반인민적, 반민족적 정체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무저항과 굴종을 강요하는데 지향된 남조선반동문학의 독소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운명은 숙명적이라는것을 주장하면서 투쟁의 무의미성을 설교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시인 조병화는 《전생에서의 머나먼 약속, 실로 그 약속의 궤도를 ...살아오고 살아가는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 미지의 약속의 궤도, 그곳에서의 숙소들이 나의 시들》이였다고 떠벌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비상이 높아진 시대이다. 누구도 굴욕적인 처지와 예측된 운명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성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것이 우리 시대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의 특징을 이루고있다. 필요하다면 산을 들어다 바다를 메우며 자연상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것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위력을 확인하고 찬미하는데 우리 시대 문학의 영예로운 임무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20세기도 말엽에 이른 오늘 남조선시단에서 《대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인생》은 《전생》에서의 《약속의 궤도》이며 그 약속의 궤도에서의 《숙소》가 다름아닌 시라고 꺼리낌없이 늘어놓는데는 아연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며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작가들이 쓴 최근의 시, 소설, 수필 등 여러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단편소설 《미로의 끝》은 동년배인 친구의 장례에 참례하고 돌아오는 한 늙은 본인의 심경을 그리면서 팔자는 타고나는것이며 그것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결과는 달라질것이 없다는 관념론적인생관을 설교하고있다.

장례의 주인공이였던 로인은 60이 지나도록 자식을 못보게 되자 무자식의 운명을 면해보려고

사내애와 처녀애를 데려다 길렀다. 그러나 양자, 양녀는 자라서 오히려 우환거리만 되었고 로인은 마음고생으로 시달리기만하다가 고독하고 괴롭게 죽어갔다. 결국은 인생은 미로, 미지의 길이며 주어진 궤도를 고스란히 걸어 끝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것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려는 골자이다. 소설의 작자는 늙은 문인의 내면독백을 빌어 《문제는 있어도 답이 없는게 인생이고 처방은 있어도 약효가 보장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저마다 <끝>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서 바쁘게들 방황하고있는것이 현세인들의 실태》라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민주와 애국과 량심이 파썸과 매국과 비열에 짓눌리고 모욕당하는 전도된 남조선현실을 인생의 본연으로 합리화하며 이 문제에서는 그 어떤 해결방도도 없고 설사 방도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가질수 없으니 구태여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독설이 울리고있다.

인간의 운명은 피할길이 없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받아들일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그럴듯한》 불가피의 정황을 고안해내는데 몰두하고있다.

소설가라고 하는 리동하는 의통지에서 어방없이 힘이 센 폭한을 만난 경우를 가정하고 《불가항력적인 폭력에 의해 자기 존재가 무력하게 유린당할때-또는 그럴 위험에 놓였을 때-는 누구냐

운명론의 신봉자가 될수밖에 없는것이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고있으며 (《현대문학》 1985. 9) 최상규는 《마지막 주말》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아무런 방비책없는 인간들이 무인도에서 해일을 만난 정황을 생각해내고 점차 물속에 잠겨가는 인간의 심리를 제멋대로 추구하여 그리고있다.

바다가운데 있는 돌섬에 주말여행을 나갔던 아버지와 아들은 뜻밖의 해일의 영향으로 물이 보통 때 만조이상으로 차오르는 사태에 직면한다. 물은 돌섬을 점차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섬의 맨 꼭대기에 쫓겨올라간 부자의 발목까지 잠그고 어느새 가슴까지 올라왔다. 아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하였으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버지는 그것을 태연하게 맞으며 아들을 타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평온》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목가적인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

《너와 나 각자의 가장 높은곳, 이곳까지도 물에 잠길지 모른다. 아니 잠길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잠자코 기다려야 한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젠 그게 유일한 존재리유이겠구요?》

《맞다.》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폐의적인 정황속에서 인간성격을

탐구할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성격의 본질을 옳게 추구하고 탐구된 성격속에 옳게 일반화하는 한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급하게 조작된 인조인간이 있을뿐 산인간성격은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 비록 이렇게 극단한 처지에 빠진다 해도 거기에서 최후까지 출로를 찾아 온갖 지혜와 힘을 다 짜내는것이 자주적인 인간의 본성적지향이며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활과 인간성격의 논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궁색하게 꾸며낸 이러한 조작된 인물들과 장면들을 그려내면서 각자가 의도한것은 피할수 없는 운명에 립하는 이러한 숙명적인 자세에서 그 어떤 정신적안정미를 끄집어내어 독자들의 자주적지향을 혼란시켜보려는데 있었던것이다.

무저항과 굴종을 강요하는데 지향된 남조선반동문학의 독소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순종해야 살아갈수 있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설교하고 이른바 순종의 미를 찬양하는데서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명색이 작가라고 하는 윤태림은 1986년을 맞는 새해인사말에서 살기가 괴롭고 불만이 있어도 소처럼 《꼭참는 모습에서 우리는 용기와 성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같은 생활자세가 《력사의 진행은 신만이 아느니하는 차원높은 철학》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현대문학》 1986. 1)인간성격의 미를 인간의 사회적본성인자주성이 아니라 소와 같은 복종정신에서 찾는 이러한 뼈뿔어진 사고방식은 분명히 건전한 리성을 가진 지성인의 사고는 아니며 대중의 거세찬 반미반파썸진출을 가라앉혀보려는 헛된 욕망으로 하여 분별을 잃은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현실타협과 순종을 설교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주인공을 현실에 일정한 불만을 가지는 인물로 설정하고 현실과 충돌할 때와 타협할 때 차례지는 각이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실에 융해되고 타협하는데 인생을 살아나가는 요령이 있다는 의식을 주입시키려고 애쓰고있다. 여기에 사람들에게 무저항과 굴종을 설교하는 이 작품들의 악랄한 독소가 있는것이다.

현실비판적인 한 신문기자가 현실과 대립해있을 때는 늘 고독하고 우울하게 지냈으나 이 과정에 《오염되어야 현실에서 살아남는다는것》을 《체득》하고 생활태도를 고치게 되자 《비로소 살아있음의 희열을 가슴버겁게 느낀다》는 내용의 《단독등반》이나 한 사나이가 정치부기자로서 체제저항적인 활동을 할 때는 철창속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으나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살게 되자 생활의 《자유》와 안락이 깃들었고 어느새 억대의 부와 젊은 녀인까지 차지할 행운이 차례지게 되었

다는 유치한 이야기를 엮은 《타인의 열쇠》와 같은 단편소설들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현실타협과 순종에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설교하는 작품들은 무저항과 굴종의식을 고취하는 경향의 작품들이운데서도 가장 반동적인것으로서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피괴도당의 사족을 받는 반동적문단에 의해 적극 내세워지고 장려되고있다.

《현대문학》 1986년 2호에 완료추천으로 발표된 《두 청년》(김영진)도 그러한 작품의 하나이다.

작자는 이 소설에서 각기 파괴군살이를 마친지 사흘만에 전당포에 갔다가 만난 두 청년을 설정하고 그들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그리고있다.

두 청년은 다 남조선사회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가난하고 불행한 청년들이다. 한 청년은 부모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4살때 그곳을 탈출하여 구두담이, 냄주이, 껌팔이, 신문팔이 등 도적질을 빼놓고는 별짓을 다해가며 자라난 혈혈단신의 수난자이며 다른 한 청년은 파괴군살이를 마치고 오니 그동안에 공장에 다니던 동생은 파로로 길가에 쓰러져 죽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앓아누워서 방세독촉에 시달리다가 맞아준 기막힌 처지의 주인공이다. 여기에는 오늘 미제와 전두환파쑈악당의 학정밑에서 겪는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고의 일단이 반영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지향점은 남조선인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나 불행을 보여주는데 있지 않다. 작자의 의도는 류사한 처지의 두 청년에게 차례진 대조적인 운명의 묘사속에 드러나고있다.

소설에서 고아로 자라난 청년은 자기를 불행속에 몰아넣은 대상을 징벌하고 체포되어 신세를 망치는것으로, 방세때문에 옷을 들고 전당포에 왔던 청년은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그렇게 갚음할수도 있》으며 《우리들처럼 힘없고 나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방법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되는》법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취직길도 열리고 삶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는것으로 운명이 처리되고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파괴박피착취근로인민대중은 짓밟히는 운명에 도전해나설것이 아니라 자기를 짓밟는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며 그런 삶의 방법에 익숙되어야 한다는것이 이 작품의 기본지향점이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이 감촉된다.

소설의 종교적색채는 취직길이 열린 청년의 《행운》을 그 어머니의 《동회같은 신앙》과 결부되게 꾸며놓은데서, 그리고 그 청년이 불행에 빠진 천우를 향해 《신의 구원이 있기를 빈다. 신만이 너를 구원할수 있다》고 부르짖게 한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있다. 현실타협과 순종에 대한 사상을 종교적 《자비심》과 결부시켜 설교하고있는데 이 작품의 주되는 독성이 있고 여기에 이 작품이 추천자들의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있

는것이다.

1985년 남조선소설문단에서 이른바 《력작》으로 평가되어 《현대문학》상을 받은 단편소설 《폭력료법》(《현대문학》, 1985. 9 리동하)도 그러한 계열의 작품이다.

소설 《폭력료법》의 각자는 자기의 이른바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작품자체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과정보다는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자세에 보다 의미를 두고》 있다고 썼다. 말하자면 어떤 작품을 쓰는가 창작에서 형상적지향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불관하고 창조행위 그 자체에 흥미를 가졌다는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말과는 달리 작품에서는 남조선에 횡행하는 폭력을 취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폭력을 로골적으로 긍정하는데 형상이 지향되어있다.

소설의 내용은 광기를 부리던 망나니청년이 폭력료법을 겪고서야 온순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작자는 여기에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남송택의 아들을 마을사람들속에서 《짐승》으로 불리우는 폭력배로 설정하고 여러 생활적계기들을 통하여 그를 혐오감이 나게 그려놓았다. 늙은 어머니가 이집저집 품팔이를 다니느라고 온몸이 《잔지주머니》가 되여도 못본체하고 한가히 방안에서 낮잠만 자고 부모나이의 등집장수를 마을사람들이 《한결같이 치를 떨수밖에 없》을 정도로 까닭없이 치고 받고 하며 다짜고짜 처녀에게 덤벼들다가 저항하니 《마치 변심한 제계집 두들기듯》 마구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지어는 밤이면 제어머니 까지도 무섭게 때려 때없이 통곡소리가 터져나오군한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그를 온마을을 공포에 몰아넣는 《인간자체가 작은 핵탄》인 존재로 묘사한 다음 뒤부분에서 《철망을 씌운 자동차》에 실려간지 한해만에 그 청년이 판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폭력맛을 보고 온 후에는 오히려 저쪽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마을사람들속에서 《인저 사람이 되였는가 보더라. 짐승같던 인간이 어찌 그리 순해질수 있는지》 하는 말이 나오게 되였다는것이다. 작품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동》을 부리면 감옥맛을 보여야 정신이 든다는것이다. 이것은 《질서》를 잡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미명밑에 감행되는 파괴도당의 야수적인 폭압행위에 대한 공공연한 합리화이다.

손에 동족의 피가 묻은 파쑈광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이러한 작품이 횡행하고 그것이 《삶이 지닌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극명히 추구》(소설 《폭력료법》에 대한 심사평에서)한 작품이라 하여 내세워지고 표창을 받고있는것은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이 얼마나 어용화되고 반동화되였는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무저항과 순종을 설교하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반동적독소는 생에 대한 허무감을 고취하고

죽음을 찬미하는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고 모순된 현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온갖 예측과 구속을 제거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본질에서 생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향이 없이 그것을 짓밟는 적대적인 것을 반대하여 나설 수 없으며 목숨까지 바쳐 투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생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의욕, 열정을 거세 한다는 것은 곧 자주적 삶을 위한 투쟁자체를 말살하는 것으로 된다.

생에 대한 허무감을 고취하는 부르조아문학이 사람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끼치는 해독성적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인생행로를 《전생에서의... 약속의 궤도》라고 한 반동시인 조형화는 제 《어느 생존》에서 인생을 《짜여져가며 더럽혀져가며 마비되어가는 이 지구에서》 지향없이 헤매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탐내지 않는... 목숨》이라고 읊조리고 있다.

여기에서 노래되고 있는 버림받은 인생은 인도주의적립장이나 현실의 불행을 파고드는 사실주의적태도에 의하여 포착된 것이 아니라 생존과 가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립장에서, 현대인에게 차례진 숙명적이며 불가피의 것이라는 견지에서 파악된 것이다. 그러므로 시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후더운 동정이 아니라 선풍한 허무이다. 여기에는 《실존적불안》의 정서가 짙게 어리여 있다.

버림받은 목숨, 비극적운명이 오늘 《너와 나》 남조선인민들모두에게 차례져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숙명적인 것이 아니고 현대인 누구에게나 다 차례진 것은 아니며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괴뢰통치의 필연적결과일뿐이다. 미제와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인민들 자신이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그들모두의 생은 버림받은 목숨이 아니라 참으로 귀중하고 축복받은 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버림받은 운명을 인생의 불가피로, 현대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묘사하면서 인민들속에 허무와 자포와 절망의식을 안겨주려고 꾀하고 있다.

생에 대한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당연히 그다음에 오는 것은 죽음에로의 설유다.

오늘 남조선반동문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에 대한 허무감을 고취하는 작품들의 반동적독소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된 남조선사회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현실에 대한 항거의 지향과 의욕을 거세하고 죽음으로써 고달픈 생을 끝내버리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사람을 깔고 몇달 감방생활을 하고 나온 택시

운전사의 운명을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것으로 결속짓고 그것에 《이 문드러진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주석을 단 단편소설 《사자의 박수》와 경우는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무저항과 순종을 설교하는 반동적독소는 대체로 순수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적지 않은 경우 실존주의적요소 및 종교적색채 등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진보와 반동간의 대결이 첨예화되는 현실에서 순수문학과 실존주의문학, 종교문학 등이 가지고 있는 체념적이며 현실도피적인 특질의 반동적성격이 더욱 발효하고 서로 어울려져 두드러지는 하나의 경향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조선부르조아문단의 순수문학제창자들은 문학은 《그저 순수한 뜻만 가지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상이 없어 편안한곳》이 자기의 미학적리상향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정차와 분리된 문학을 주장하고 문학의 공리성과 사상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인민대중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때에 현실저항의 무의미성을 집요하게 설교하고 이른바 순종의 《미》를 극성스럽게 강조함으로써 반동적이며 어용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실존주의문학은 남조선부르조아문학에서 하나의 문학조류로서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러저러한 문학경향과 엉키어 전반적으로 그 요소는 상당히 강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최근 그것은 절망과 체념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사람들에게 굴종과 무저항의 독소를 주입하는 유해로운 작품을 수많은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종교적신앙심이 반영된 《그리스도교문학》, 《불교문학》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륜회의식》을 그리고 신의 의지앞에서 인간의 힘의 무력함과 종교적자비등을 강조하면서 무저항과 굴종을 설교하는 반동적문학경향에 어울리고 있다.

오늘 남조선부르조아작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무저항과 순종을 설교하는 문학작품들은 그 사상적지향의 반동성과 함께 형상의 인위성과 줄렬함으로 하여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문인들과 독자대중의 배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뢰관원을 등에 업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여러가지 위장포로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은폐하면서 더욱더 발효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리해관계를 떠나 그 어떤 《순수》한 문학세계를 그리듯한 외피를 쓰고 인민들에게 무저항과 굴종의식을 주입시키는데 지향된 각종 부르조아반동문학의 정체를 예리하게 가려보고 그 범죄적기도를 철저히 폭로분쇄해나가야 한다.

나의 집 불빛

김일광

하루일 마치고
거리에 나서니
내 사는 마을의 준비한 집들이
멀리서도 나를 반기어주네

서늘러운 저녁바람에
시원히 하루일의 피로를 풀며
내 걸느라
하나 둘 켜지는 불빛들
아, 그속엔
나의 집 정든 불빛도 있네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 어느 먼 출장길에 가있어도
내 마음속에 따뜻이 찾아오는
나의 집 불빛, 정다운 불빛이여

무엇에 비기랴
나를 불러 어서 오라
귀여운 막내딸이 손저어부르는듯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마음어진 안해가 문을 열고 나올듯
발걸음 먼저 가닿는 나의 집 불빛

이 불빛이라네
은하수 기우는 한밤에도
봄비가 속살대는 그런 밤에도
나를 기다려 꺼질줄 모르는 불빛
늘쌍 보아도 무심히 볼수 없구나

어찌 보면 나의 어머니
내 돌아오는 밤길에
말없이 커든 등불인듯
걸음걸음 받들어주며
조국 위해 바친 이 하루의 나의 땀
소중히 여기며 맞아주는 어머니의 눈빛인듯

정녕 어찌하여
이 불빛에 마주서면
그처럼 뜨겁고 깨끗한것이
마음속에 물결처럼 차오르는것인가

오, 불빛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에게 둘도 없는 너를
그처럼 안아주고 지켜주는
고마운 조국이 있어 그리도 소중한것이나

조국이 없으면
니는 한갓 애처로운 반디불
조국이 없다면야
나의 보금자리를 지켜선
저 하나의 불빛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아, 바라볼수록 한없이 소중한 불빛
나의 행복이 어린 저 불빛도
조국의 품이 있어
시름없이 밝은것이여라

나에게 조국이 있어

-한 재일동포가 부른 노래-

박창화

줄이 끊어진 연처럼
향방도 없이
조국을 잃고 이역땅을 헤매일 때
내 얼마나 슬픈 눈물 흘리었던가

남의 집 굴뚝을 안고자는 신세에
자식은 조롱박처럼 울망줄망

정말이지 그때엔 커가는 자식들이
나날이 커가는 걱정이였다

한집의 샷집에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눌리워도
오이꽃같이 노랗게 뜬 얼굴들이 떠올라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어야 했고

한알의 사과면 줌이 찰
고사리같은 그 손들이 가슴을 허벼
내 그리도 즐겨 피우던
담배마저 끊어야 했다

했건만 폭 꺼진 눈동자들엔
쏟치면 뿌지직 내 가슴 태울
연물같은 눈물만이 가랑가랑
나는 진정 아버지 아닌 아버지였다

참말로 조국이 없었던탓에
인간의 존엄도
부모의 자격도
물려줄 유산도 나에겐 없었으니

자식에 있어서 부모가 아님을
조국이 있어야

부모가 부모로 될수 있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다

아, 내 운명이 뿌리내린 대지
자식들의 희망이 실린 맑은 하늘!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 수령님 안아오신
바로 그 땅, 그 하늘이

잠결에도 아이들 쓸어보는 어머니젓가슴처럼
놓치면 죽을것만 같아 울음을 터치며
아이를 붙잡고 따르는 어머니치마폭처럼
순간도 떠나 살수 없는 내 조국이거늘

자식이 많아 평생 숙이고만 살아온 머리를
오늘에야 높이 들고 살아간다
넘겨줄 유산은 따로 없어도
넘겨줄 조국이 나에게 있어!

들국화

박래설

해종일 놀음에 취하던
어린시절
내 들에 나가
함뼉이 피어난 들국화를 꺾어
머리화환 엮어쓰기를 즐겼더라

열아흔살 갓 잡히던 해
전선으로 떠나는 나에게
사랑하는 고향의 처녀
들국화 꽃뭉음을 안겨주며 말했더라
-부디 잘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내 포화속에서도
천리행군의 낮과 밤에도
잊을수 없었더라
들국화- 어릴적 그 추억을
조국 위해 잘 싸우라던
고향처녀의 그 부탁을

불바다를 헤치며
넘고넘어온 강과 들

적탄이 비발치는 결전의 언덕에서
쓰러진 전우의 작은 봉분우에
들꽃을 엮어놓았어라
그들이 흘린 피 이 땅우에 꽃으로 피어나라고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머나먼 개발지로 떠나는 우리에게
전우들은 차창으로
들국화 꽃뭉음을 던져주었었다
조국의 향기
지하천길 막장 그 어데서건
풍겨 넘쳐나라고

들국화-
나의 사랑하는 파란 잎의 들국화
어이하여 내 너를 것처럼 사랑하는지
알수 없어라
아마도 나의 어린시절
나서자란 정든 고향, 나의 조국의
뜨거운 숨결이 어려있음이여라